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3:00~18:00

장 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동) 대회의실(4층, 434호)

주 최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PI 국무총리선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발행일 2014년 9월 25일

발행인 백순근·김성훈·강일규·노혁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업체 동진문화사 (02) 2269-4783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다루는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 자신의 삶과 생활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여 학교의 커다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2013년 5월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해 9월부터 연구학교와 함께 올해부터는 희망학교를 더해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운영과 단계적 확대·시행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을 보완하여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의 당면 과제로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발표되면서 유관기관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세미나도 올해 수행하고 있는 각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중간 정리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학교 현장 선생님, 청소년 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모시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향후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견을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2014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 순 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 성 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직무대행 **강 일 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세미나 일정

◆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3:00~18:00

◆ 장 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동) 대회의실(4층, 434호)

13:00~13:30	등 록
	사회 정윤경(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소장)
13:30~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직무대행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축 사 박제윤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13:50~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발표자: 신철균·황은희·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송경오(조선대학교), 박민정(동국대학교) 토론자: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박헌순(경기 신길중학교)
14:4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발표자: 장현진·이지연·윤수린·이윤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서우석(한국진로교육학회장), 배경자(인천광역시교육청)
15:30~15:50	휴 식
	사회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특임센터 소장)
15:50~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실태와 과제 발표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김정숙(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토론자: 박찬열(홍은동청소년문화의집), 이승순(부평동중학교)
16:4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발표자: 정영근·김진숙·이근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홍원표(연세대학교), 황유진(연희중학교)
17:30~18:00	◆ 종합 토론
18:00	폐 회

[발표 1]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1

[발표자] 신철균·황은희·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송경오(조선대학교), 박민정(동국대학교)

[토론 1]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63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토론 2]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토론 67
박현순(경기 신길중학교)

[발표 2]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71

[발표자] 장현진·이지연·윤수린·이윤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 3]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132
서우석(한국진로교육학회)

[토론 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재고 137
배경자(인천광역시교육청)

[발표 3]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실태와 과제 143

[발표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김정숙(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토론 5] 지속가능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한 과제 180
박찬열(홍은동청소년문화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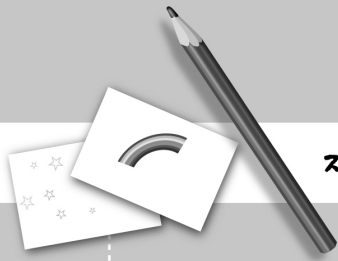
[토론 6] 삶속에 스며드는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과제 184
이승순(부평동중학교)

[발표 4]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189

[발표자] 정영근·김진숙·이근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토론 7]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240
홍원표(연세대학교)

[토론 8]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243
황유진(연희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발표 1]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 발표자: 신철균·황은희·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송경오(조선대학교), 박민정(동국대학교)

[토론 1]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토론 2]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토론
박헌순(경기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신철균·황은희·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송경오(조선대학교), 박민정(동국대학교)

I. 서 론¹⁾

세계적으로 학생의 행복과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 흥미 등 정의적이고 심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행복도는 그 만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원을 해줘야 할 지 주목을 받고 있다(Shahar, 2007). 학생의 행복 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도 변화의 큰 흐름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와 선진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최상덕 외, 2013a; Rychen & Salganik, 2005). 의사소통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 세계 각국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걸맞춰 우리나라도 학생의 행복과 역량 교육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 과연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하고 있는가? 이러한 반성적 물음에 맞춰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 역량 중심의 변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바로 자유학기제이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행복이다. PISA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흥미도와 행복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학교급 보다 더 심각한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거세다. ‘중 2’로 대표되는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남궁지영, 2012; 황갑진, 2004). 학교 폭력 문제, 학습 무기력 문제 등에 대해 교사들과 학부모는 입을 모아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 초점에 중학교가 있다. 또한 중학생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진로 의식이 낮다. 한

1) 본 발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연구 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신철균 외, 2014, 근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마디로 ‘꿈’과 ‘목표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지연, 2013a).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등장한 것이 자유학기제 정책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동아일보, 2013.11.22.)고 선언할 정도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시험에 예속된 답습형 교육체질을 창조형 체질로 전환하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학생 주도 중심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교과 본연에 충실한 학습경험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곽병선, 2013: 3).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 체제 개선에 의미가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자유학기제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현주, 2009). 그러므로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논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증거 기반 정책 집행의 기본이며, 이러한 연구는 정책의 실질적 개선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초기 단계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 짓는 시금석이 되는 시기이며 초기에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Tubin, 2009).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된 지금의 시기는 정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정착’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있다. 특히, ‘초기의 정착’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학설 따위가 당연하게 사회에 받아들여짐.’(네이버 사전)이란 의미로 정책이 학교와 교육현장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한 의의 없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가 비록 ‘초기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자유학기제의 문화인지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실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되고 지속된 현상이 되었을 때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많은 교육개혁 정책은 정착되지 못하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아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란 정책이 임시로 도입되어 잠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마는 정책이 아니라 학교의 틀 안에 내포(embedding)되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시험을 없애고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는 외형적 구조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인식의 제도화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학교의 교육활동 측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환경적 측면을 연구 분석의 중요한 영역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배경적 검토와 더불어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와 자유학기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그리고 교육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 간의 연계성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지원책이 어떻게 현장에 인식되고 있는지 그 간극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때 자유학기제는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혁 논의가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혁(Large-scale refor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ullan, 2000; Hargreaves, 2009, 정바울, 황영동 2011, 재인용). 자유학기제 역시 한두 학교의 변화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육 개혁, 특히 대규모 개혁 정책 연구 사례 축적과 교육 정책 이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잘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 이후 발표된 연구는 극히 소수이며(지은림 외, 2014; 최상덕 외, 2014; 황규호 외, 2013), 대부분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학생 등 관계자에 대한 인식 및 사례 조사 연구(최상덕 외, 2014; 최상덕 외, 2013b; 홍후조 외, 2013), 둘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과정과 수업, 진로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김은정, 2013; 이지연, 2013c; 정광순, 2013; 황규호 외, 2013). 셋째,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김진숙, 2013; 박삼철, 2013; 이지연, 2013b; 이기봉, 2013)이다.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향후 운영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질적 사례 연구인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황규호 외(2013)나 지은림 외(2014)의 연구는 각각 교육과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한 제한점이 있다. 발표된 대부분의 관계자 인식 조사 연구들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거나 교실 수업 개선에 두는 등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서로 달라 자유학기제의 이념과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며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하에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그 취지와 목적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병폐인 입시에 예속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행복하지 못한 학교생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밝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 연구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들은 정책 초기이니만큼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사례 조사 연구(최상덕 외, 2014; 최상덕 외, 2013b; 홍후조 외, 2013)이다. 최상덕 외(2014)의 연구는 2013년 연구학교 전체를 면담 조사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실시 후 변화된 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 조사 중심의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의 실태를 양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제한점은 있다. 최상덕 외(2013b)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교사, 교장, 학부모 단체, 중학생 총 32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중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인 협의의 진로교육보다는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논의 초기에 자유학기제의 방향을 잡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단위 설문 조사가 아닌 포커스그룹에 대한 설문 조사와 면담을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홍후조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연구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이었으나, 실시 준비와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자유학기제의 단계적·점진적 시행에 나가는 종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혔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로교육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김은정, 2013; 이지연, 2013c; 정광순, 2013; 지은림 외, 2014; 황규호 외, 2013)이다. 정광순(2013)은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역량 중심의 교과통합수업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PISA에서 강조한 역량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출한 핵심 역량(이광우 외, 2009)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서의 수업의 형태와 방법을 바꿔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안으로서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축약형 수업과 교과와 역량 통합 수업을 제시하였다. 김은정(2013)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과, 특히 기술·가정 과목에서 진로교육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교과와 진로교육’을 검색한 총 240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 교과 영역에서 진로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핵심 성취 기준과 함께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모형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지연(2013c)도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진로 교육 관점에 치우쳐 자유학기제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정광순(2013)과 이지연(2013c)의 연구는 교과 통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김은정(2013)은 특정 교과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교과와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황규호 외(2013)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심으로, 지은림 외(2014)는 평가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김기현, 2013; 김진숙, 2013; 김현철, 2013; 박삼철, 2013; 이기봉, 2013; 이지연, 2013b)이다. 김진숙(2013), 김현철(2013), 이기봉(2013)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Y)를 중심으로 하여 자유학기제를 비교하였다. 김진숙(2013)은 전환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공통점으로는 진로교육의 강화, 시험부담의 최소화 등을 꼽고 있다. 김현철(2013)과 이기봉(2013)은 전환학년제의 성공 요인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학교 전체의 참여, 코티네이터의 중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성공 사례를 통한 인식의 변화 등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박삼철(2013)은 호주의 연방 정부 수준에서 전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으로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수업 운영 상황의 변화 고려, 학교의 협력 수업 교사팀 구성, 학교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한 제2회 진로교육 국제 포럼(2013.6)에서는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의 사례 발표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 포럼에서 이지연(2013b)은 국제적 사례와의 비교 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 사례와 비교한 연구들은 주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에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사례와 비교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가 운영된 지 한 학기 밖에 안 된 시기적 한계와 더불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면밀한 탐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상덕 외(2014)를 제외한 두 편의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조사 연구는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고, 다른 개선 방안 연구도 포괄적인 학교의 교육 활동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 아닌 일부 영역 중심의 방안을 도출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부 시범운영계획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목표를 진로교육 관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가 많고, 교수-학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연구는 적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배경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단면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활동 실태, 지원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2. 자유학기제 정책의 등장 배경

자유학기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해당 정책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게 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맥락 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는 바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유학기 정책을 태동시킨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요구와 환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가. 과도한 경쟁과 입시교육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유학기제 정책은 종래의 과도한 입시 위주 학교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에 있어서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의 내적 동기의 결여와 몰입의 경험이 적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왔다. 청소년들의 학업동기와 관련한 연구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동기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강상진 외, 2006; 김아영, 2008; 김현철 외, 2012; 박병기 외, 2005). 예컨대, 강상진 외(2006)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별 동기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특히 교과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이러한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학기제의 핵심전략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다양한 학교내외 기존 프로그램들을 자유학기제를 통합, 연계, 체계화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가 요구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경험의 현장학습을 통해 진로교육을 확산,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나.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교육적 관심 필요

오랫동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전환기 과정 정도로만 인식해왔던 중학교 과정에 대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면서 중학생의 행복을 고민하는 교육과정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장래희망 ‘없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된다는 한국교육정보원(2008) 조사에 따르면 장래희망 ‘없음’의 응답률이 초등 11.2%, 중학교 34.4%, 고등학교 32.3%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 등의 팽창과 고교평준화의 일부 붕괴로 인해 한국의 중학생들은 이미 입시위주의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이다.

중학생의 현 진단에 기반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키워주며, 수업과 생활에 참여적이고 동료 및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제 추진 방법으로 참여형 수업이나 협력적 관계, 배움의 즐거움 등을 강조하는 것과 통한다고 보고 있다. 자유학기 동안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마음으로 수업과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 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적 요구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직업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도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미미하게나마 시도해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된 전략으로 자유학기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외국 학교사례 등이 소개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되었는데, 유럽국가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의 중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제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인데,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중 주니어과정(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과정(고등학교, 2년)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사회, 도덕, 음악과 예술, 철학, 응용논리 등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 중심교육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영역별 특성, 학생수요, 학교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이 이루어지나, 학생의 기본능력 개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평가는 교수학습 상황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총합평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덴마크 또한 자유학교와 유사한 애프터 스쿨을 통해 공립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 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학교로 전체 학생의 약 30% 정도가 자율적으로 희망하고 참석한다.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 활동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므로 직접적인 직업체험보다 감성교육 등을 통해 진로모색을 강조한다. 역할극,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위주의 수업진행으로 학생흥미를 제고한다. 스웨덴에서는 현장연계 중심 진로체험 학습을 강조하여 기초학교 8, 9학년(한국 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업체험 기간,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 체험을 실시한다. 기초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사회과학, 경영, 공업,

건설, 호텔 등 총 17개 교육과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5주 이상의 현장교육이수를 통해 학습과 진로연계 강화를 실시한다. 이러한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외국 사례 소개는 국내에서 직업 연계 교육과정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이는 자유학기제 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 영향력과 자유학기제 정책선도자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정치적 흐름(Kingdon, 2003)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2012년 대선 당시 발표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표 II-1> 참조)으로 집권 이후 수월하게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복지 확충,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의 3대 교육정책의 축 중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자유학기제 추진을 채택하게 되었다. 인수위 제안 140대 국정과제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여, 단위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최상덕, 2013b).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을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표 II-1> 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p>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 청소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p> <p><새누리의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며,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함. <p><새누리의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한 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 토론,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진행
--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자유학기제는 Kingdon(2003)이 지적한 바 있는 정책선도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미 행복교육추진단에서부터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과 인수위 교육위원들이 자유학기제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선도자들의 영향력 덕분으로 자유학기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개혁 흐름의 영향

대외적으로 자유학기제 등장에는 최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세기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수용과 암기보다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21세기로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사회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미래를 예비하는 학교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업에서 그것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학생이 참여하여 직접 탐구하거나 구성하는 교과수업이나 교과체험 및 경험 중심의 활동 수업으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학생의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창의·인성교육, 우리교육에서 주력해야 할 핵심역량 등의 이름으로 학교의 교과 수업이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부터 OECD에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생애에 걸쳐 청소년과 성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강조한 바 있다(<표 II-2> 참조). 핵심역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나 학교 개혁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정광순, 2011). 정광순(2011)의 리뷰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7 국가 교육과정 개정(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07)에, 프랑스는 7개의 역량을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고(French Ministry, of education, 2010), 싱가포르(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2006), 태국(Taiwan Ministry of Education, 2006)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그리고 대만, 독일, 프랑스, 미국도 일부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 역량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표 II-2> OECD가 제안한 세 가지 영역의 핵심역량 범주

<p>< OECD가 제안한 세 가지 영역의 핵심역량 범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도구활용 :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며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지식과 정보,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 사회적 상호작용 :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역량 - 자율적 행동 :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고 생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부합하는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혁신 전략으로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상덕 외(2011)의 글에서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게 제시된 바 있는데, “21세기 들어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국가의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이러한 변화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므로 모방형 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자유학기제 정책 등장에는 사회적 요구, 교육적 요구,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적 영향과 정치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 정책 등장에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교육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 중학생 행복에 대한 관심과 진로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요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정치적 배경,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조하는 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²⁾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학교 구성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준비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자유학기제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학교유형(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에 따라 어떠한 지원전략이 필요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본 연구 과제(『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신철균 외, 2014, 근간))에서는 연구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도 진행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면의 제한 상 설문 조사 결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결론에는 일부 사례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1. 설문 조사 틀: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학교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학교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인적요인(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정책적·제도적 요인(개혁안, 교육제도 등), 물적·재정적 요인(학교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학교 문화, 지역사회 여건, 학교구 특성 등)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유길한, 2010; Leithwood, Doris & Blair, 2002; Trenkimp, 2007). 즉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조직 내부 특성의 변화, 학교를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의 역할 관계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Elmore, 1990; 서용희, 주철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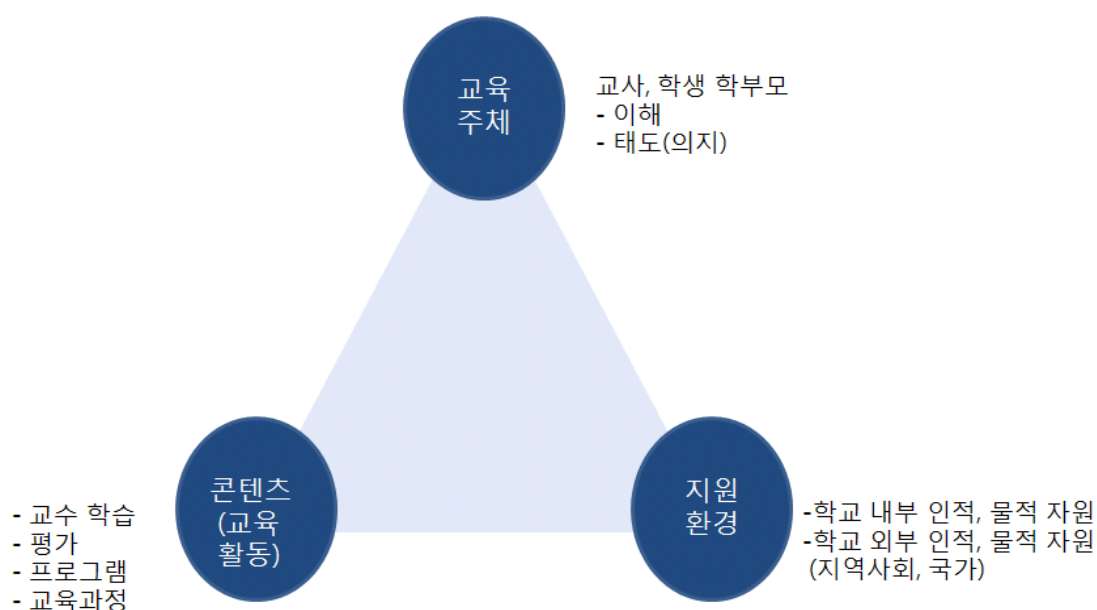
과거 많은 연구들에서는 학교 성과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자원이 얼마나 있거나 또는 없을 때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는지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의 관점은 자원의 유무가 아니라 자원이 교육주체 즉 교사나 학생이 교육활동의 실제에서 어떻게 활용하거나 하지 않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수업의 특성 및 교육 주체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Cohen et al., 2003). 특히 학교 혁신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학교 행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정현, 2011; 이기명, 천세영, 2011; 정바울, 2011; Holcomb, 2007; Smith,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hen et al.(2003)의 연구에서 강조한 요소를 토대로, 교육 주체, 콘텐츠(contents), 그리고 지원 환경(environments)을 교육의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세 가지 요소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정책 이해와 태도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콘텐츠(교수-학습, 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가 학교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세 가지 요소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의미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의 주체인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Fullan, 2001: 115; 박상완, 2005: 86; 김효정, 2011: 366). 즉 교사의 지식과 기술, 행동, 학생의 경험과 지식, 수업태도 등 구성원이 어떠한 지식, 행동,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교육 실체를 결정짓게 된다(Cohen, et al., 2003). 또한, 최근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신상명, 2004). 자유학기제의 경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주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im,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지식과 경험)와 태도(긍정적 태도 및 자율적·협력적 노력)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심변인은 교육과정, 교수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된다(최준열, 2000: 250; Conley, 1993; Poster, 1999).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 참여·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비실시하는 평가 체제의 변화에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변인의 하나로 콘텐츠(교수-학습, 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지원환경적 요인 역시 학교교육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학교 구성원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 내적으로 조직특성(인력운용, 시간 활용, 자원 등), 학교문화,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연수 및 컨설팅 등 외부지원, 관할 교육청의 규정 및 정책, 사회적 분위기 등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역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과 학교 교육 개선의 주요 변인으로 환경적 요인(학교 내적 요인, 학교 외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분석하는 틀은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분석 틀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실태조사 설문 영역은 교육 주체, 교육활동, 지원환경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교육활동의 성과, 정책 전반의 요구사항을 함께 조사한다. 설문지의 전체적인 설문 틀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우선 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주체에 대한 질문은 교육주체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였다. ‘이해’ 영역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학생 평가에 대해 교육주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교육 주체의 인식 수준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및 일반 학교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학교 간의 차이 또한 분석한다. 또한 ‘태도’ 영역에서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필요성 인식, 정책에 대한 신뢰, 자율적인 노력, 협력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따른 교육활동 실태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교육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교육활동 영역에서는 교수·학습 운영 실태, 평가 운영 실태, 프로그램 운영 실태,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활동 실태 수준에 대해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차이를 분석하며, 실태분석과 함께 학교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성과 관련 설문은 향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학교별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시 학교 분류 준거 중 하나의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지원환경 영역은 학교 내부의 지원 현황과 학교 외부의 지원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학교 외부는 다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학교, 희망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영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I-1> 설문 조사 틀: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

영역	조사 항목		조사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	이해	목적과 취지	○	○	○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태도	긍정적 태도	○	○	○					
		필요성 인식								
		자율적 노력								
		협력적 노력								
정책 신뢰										
교육활동	교수-학습 운영 실태		○	○	-					
	평가 운영 실태		○	○	-					
	프로그램 운영 실태		○	○	-					
	교육과정 운영 실태		○	○	-					
지원환경	학교 내부 차원 실태		인적자원	○	○	-				
			물적자원							
	학교 외부 차원 실태	지역사회	인적자원	○	○	-				
			물적자원							
		국가	홍보, 연수 등의 지원				○	○	-	

2. 설문 조사 절차

(1) 조사 틀 구안과 문항 개발

본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틀(교육주체, 교육활동, 지원환경, 학교운영결과)에 기초하여 기존 관련 설문도구들을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도구 개발 1차 완료 후, 평가측정 분야 전문가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2) 사전조사 실시

2차적으로 확정된 문항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인 세 유형의 중학교(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를 선정하여 사전 예비조사(2014년 5월 28일~6월 5일)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총 3개교에서 교사 28명, 학생 31명, 학부모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III-2 참조). 응답자 검토 결과, 애매한 표현이나 어려운 문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표 III-2> 사전 조사 대상

구분	학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총계
연구학교	1개교	8명	11명	11명	30명
희망학교	1개교	10명	10명	10명	30명
일반학교	1개교	10명	10명	10명	30명
계	3개교	28명	31명	31명	90명

(3) 본 조사 실시 및 분석

최종 확정된 문항에 대한 본 조사는 7월 1일~7월 18일에 시행되었다(표 III-3 참조). 설문조사 결과 연구학교 80개교(응답률 100%), 희망학교 39개교(응답률 97.5%), 일반학교 38개교(95%)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희망학교 중 4개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로 확인되어 최종 표집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반학교 중 2개교는 표집대상이 아니었던 3학년 학생, 3학년 자녀의 학부모가 응답함으로써 모두 결측 처리되어 역시 최종 표집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연구학교 80개교(유효응답률 100%), 희망학교 35개교(유효응답률 87.5%), 일반학교 36개교(유효응답률 90%)로 확정되었으며, 총 151개교에서 교사 2,702명(유효응답률 92.18%), 학생 3,020명(95.99%), 학부모 2,203명(유효응답률 92.52%)이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코딩 및 설문결과 분석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표 III-3> 참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인식, 교육활동, 지원환경, 학교운영결과에 대한 차이 분석은 t, F검정을 활용하였고, 요구사항 부분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III-3> 설문조사 일정 및 절차

일정	내용	비고
5/28~6/5	사전 예비조사 실시	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에서 표집
6/6~6/12	사전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설문 문항 수정·보완	.
7/1~7/18	본조사 실시	.
7/20~8/30	코딩 및 설문결과 분석	.

IV.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와 미실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및 일반학교³⁾의 차이 비교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를 대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확대하여 자유학기제의 운영 및 준비 정도를 파악하였다.

1. 설문 조사 내용 및 대상

가. 설문 내용

(1) 구성원용

조사 영역에 따른 하위 영역 및 그에 따른 문항의 내용은 <표 IV-1>과 같다. 설문지는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연구학교용과 희망학교 및 일반학교용으로 구분하여 6종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르트 척도로 제작 하였다. 설문 문항 중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에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구체적 설문조사 문항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설문조사 문항 내용

대 영 역	하위 영역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교육 주체	이해	I	1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I	1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I	1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
			2	교육과정의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		2	교육과정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3	교수-학습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4	학생 평가의 변화
	태도	I	5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수업 준비	5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 검색	5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 검색		
			6	핵심성취기준에 근거한 교과내용 재구성 노력						

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점수와 단위학교 당 약 3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2013년 지정학교, 2014년 지정학교)이며,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연구점수는 부여되지 않고 약 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 희망학교는 대부분 2014년 2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 시점인 7월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아 일반학교와 함께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로 분류하였다.

대 요 영역	하위 영역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7	자유학기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력	6	모둠활동을 위해 친구들과 협력	6	자유학기제를 위해 학부모 지원단 등 참여		
		8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을 위해 동료교사와 협의						
		9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	7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	7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		
		10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필요성 인식	8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필요성 인식	8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필요성 인식		
		11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						
		12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일관성						
		13	자유학기제 운영의 향후 지속성						
		교육 활동	교수- 학습	1	학생 참여형 수업 진행	1	학생 참여형 수업 진행		
				2	융합 연계수업 진행	2	융합 연계수업 진행		
			평가	3	과정 중심의 평가 진행	3	과정 중심의 평가 진행		
				4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게 평가 기록	4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게 평가 기록		
			프로 그램	5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5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6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설	6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설		
교육 과정	7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7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8		교과, 교과의 활동 시간 배분 적절	8	교과, 교과의 활동 시간 배분 적절				
지원 환경	학교 내부	1	보조인력이나 행정인력 적절						
		2	구성원의 업무 배분						
		3	학교장의 인프라 발굴 노력						
		4	학교장의 협력적 풍토 조성 노력						
		5	학교 시설(공간) 적합	1	학교 시설(공간) 적합				
		6	예산 지원 적절						
	학 교 외 부	지 역	7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8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	2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			
			9	체험처의 다양성	3	체험처의 다양성			
		국 가	10	체험처 교육프로그램 질	4	체험처 교육프로그램 질			
			11	연수 제공 적절성					
			12	자유학기제 홍보 적절성	5	자유학기제 홍보 적절성			

대 영 역	하위 영역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학교 운영 결과	학교 생활	Ⅲ	1	교사-학생 관계	Ⅲ	1	교사-학생 관계	Ⅱ	1	부모-자녀 관계
			2	교사 간 소통 원활		2	학생 간 관계		2	자녀 친구 간 관계
			3	수업준비·진행의 즐거움		3	수업활동의 즐거움		3	자녀의 수업활동 즐거움
			4	수업·평가의 교사 자율성 발휘		4	학생의 강점(끼) 계발		4	자녀의 강점(끼) 계발
			5	교사전문성 신장		5	학생의 자신감		5	자녀의 자신감
			6	교직에 대한 보람		6	꿈(진로) 인식		6	자녀의 꿈(진로) 인식
			7	전반적인 만족도		7	전반적인 만족도		7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요구	정착 방안 요구	V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이해	V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이해	Ⅲ	1	자유학기제 기본 방향 이해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1	자유학기제 적합 학기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
			3	받고 싶은 연수 종류						
			4	타학기·타학년 연계방안					3	타학기·타학년 연계방안
			5.1	기대사항(학생)		3	기대사항		4	기대사항
			5.2	기대사항(교사)						
			6.1	우려사항(학생)		4	우려사항		5	우려사항
			6.2	우려사항(교사)						
			7.1	촉진요인(구성원 인식)					6.1	촉진요인(구성원 인식)
			7.2	촉진요인(교육활동)					6.2	촉진요인(교육활동)
			7.3	촉진요인(지원환경)					6.3	촉진요인(지원환경)
			8.1	장애요인(구성원 인식)					7.1	장애요인(구성원 인식)
			8.2	장애요인(교육활동)					7.2	장애요인(교육활동)
8.3	장애요인(지원환경)			7.3	장애요인(지원환경)					
배경	학교 배경	VI	1	소재 지역	VI	1	소재 지역	IV		
			2	성별		2	성별		1	자녀와의 관계
				3		학년	2		자녀의 성별	
				4		성적	3		자녀의 학년	
							4		자녀의 성적	
				3		담당직위	5		사교육비	
	개인 배경			4		교직경력				
		5	담당교과							
		6	자유학기제 담당 여부							
		7	현재 담임 여부							
총 문항 수			연구학교 55 문항 일반학교 49 문항		연구학교 39 문항 일반학교 35 문항		연구·일반학교 30문항			

(2) 학교용

학교용 설문지는 개인 차원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응답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학교 조직 차원에서 인적·물적 인프라의 지원 및 활용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제작하였다 (<표 IV-2> 참조). 학교용 설문지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별 자유학기제 주무교사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외부 '인력'의 활용 정도에 대한 문항은 외부 인력의 활용 여부와 이에 대한 섭외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강 강사, 예체능 강사, 학부모 자원 봉사자, 대학생 멘토 등을 자유학기제 운영 시 활용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들을 섭외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외부 '기관'의 활용 정도에 대한 조사 문항은 자유학기제를 위해 MOU를 맺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외부 기관(체험처)의 총 개수와 구체적인 활용 양상에 대한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부 기관을 학교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가 직접 기입하고 각 기관에 대한 MOU 체결 여부, 공공기관 여부, 지역 사회 여부를 선다형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을 어떠한 경로로 활용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활용하였으며 도움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함께 선다형 보기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교용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표 IV-2>과 같다.

<표 IV-2> 학교용 설문지 틀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비고
외부 '인력' 활용 정도	1	활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진로 포함) 강사 • 예체능 강사 • 학생선택 프로그램 강사 • 동아리 강사 • 학부모 자원 봉사자 •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멘토
		섭외 어려움 정도	
외부 '기관' 활용 정도	2	외부기관(체험처) 활용 수	-
		MOU 체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를 맺은 기관은 필수 기입하여, 최대 15개 기관의 명칭을 적은 뒤 각각의 현황을 조사함
		공공기관 여부	
		지역사회 기관 여부	
		활용 경로	
		활용 횟수	
		도움 정도	

나. 설문 대상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특성 분석과 이와 유사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 있는 일반 학교와 희망학교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2013년 지정된 42개 연구학교와 2014년 지정된 38개 연구 학교 총 80개교가 연구학교 대상 집단이다. 또한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위해 연구학교 인근의 학교를 중심으로 희망학교 총 731개교 중 40개교를 표집하고, 일반학교 총 2,448개교 중 40개교를 표집하였다. 학교 선정은 연구학교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학교들을 임의 표집 하였으며, 학교 선정 시 지역(시·군 기준), 남·여학교 비율, 학교 규모(소규모 여부) 등을 고려 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3>와 같다.

<표 IV-3> 설문조사 대상 선정 기준

설문 대상	교사	학생	학부모
연구학교 (2013,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 교감 중 한 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명 (단,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년의 1반 중 출석번호 1~20번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학부모 15명
희망학교 및 일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장, 교감 중 한 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에서 1반 중 출석번호 1~10번 학생 2학년에서 1반 중 출석번호 1~10번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학년 학생의 학부모 15명

(1) 설문 대상 학교4)

설문 대상 중 응답한 학교는 2013년 연구학교 42개교, 2014년 연구학교 38개교, 희망학교 35개교, 일반학교 36개교로 총 151개교이다. 설문 대상 학교를 지역 규모, 설립유형, 학교 유형,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 수, 자유학기제 이외의 연구학교 경험 여부, 자유학기제 중점모형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자유학기제 이외의 연구학교 경험 여부와 자유학기제 중점모형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점모형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IV-4> 설문대상 학교 분포

(단위 : 개교, %)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전체
		2013	2014	계	희망	일반	계	
지역 규모	대도시	21(26.3)	16(20.0)	37(46.3)	16(22.5)	16(22.5)	32(45.1)	69(45.7)
	중소도시	8(10.0)	5(6.3)	13(16.3)	9(12.7)	7(9.9)	16(22.5)	29(19.2)
	읍면지역	13(16.3)	17(21.3)	30(37.5)	10(14.1)	13(18.3)	23(32.4)	53(35.1)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설립 유형	국공립	39(48.8)	36(45.0)	75(93.8)	33(46.5)	30(42.3)	63(88.7)	138(91.4)
	사립	3(3.8)	2(2.5)	5(6.3)	2(2.8)	6(8.5)	8(11.3)	13(8.6)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교 유형	남중	7(8.8)	6(7.5)	13(16.3)	3(4.2)	7(9.9)	10(14.1)	23(15.2)
	여중	4(5.0)	3(3.8)	7(8.8)	4(5.6)	5(7.0)	9(12.7)	16(10.6)
	공학	31(38.8)	29(36.3)	60(75.0)	28(39.4)	24(33.8)	52(73.2)	112(74.2)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교 규모	대규모	10(12.5)	14(17.5)	24(30.0)	9(12.7)	13(18.3)	22(31.0)	46(30.5)
	중규모	21(26.3)	14(17.5)	35(43.8)	17(23.9)	13(18.3)	30(42.3)	65(43.0)
	소규모	11(13.8)	10(12.5)	21(26.3)	9(12.7)	10(14.1)	19(26.8)	40(26.5)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	5(6.3)	1(1.3)	6(7.5)	5(7.0)	5(7.0)	10(14.1)	16(10.6)
	20명 이상~ 30명 미만	18(22.5)	17(21.3)	35(43.8)	13(18.3)	11(15.5)	24(33.8)	59(39.1)
	30명 이상	19(23.8)	20(25.0)	39(48.8)	17(23.9)	20(28.2)	37(52.1)	76(50.3)
	계	42(52.5)	38(47.5)	80(100.0)	35(49.3)	36(50.7)	71(100.0)	151(100.0)
이외 연구 학교 경험 여부	경험없음	19(23.8)	21(26.3)	40(50.0)	-	-	-	40(50.0)
	경험있음	23(28.8)	17(21.3)	40(50.0)	-	-	-	40(50.0)
	계	42(52.5)	38(47.5)	80(100.0)	-	-	-	80(100.0)
중점 모형	진로탐색 중점모형	27(23.7)	14(12.3)	41(36.0)	-	-	-	41(36.0)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18(15.8)	18(15.8)	36(31.6)	-	-	-	36(31.6)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8(7.0)	9(7.9)	17(14.9)	-	-	-	17(14.9)
	예술·체육 중점 모형	8(7.0)	7(6.1)	15(13.2)	-	-	-	15(13.2)
	특별히 중점을 두는 모형없음	1(0.9)	4(3.5)	5(4.4)	-	-	-	5(4.4)
	계	62(54.4)	52(45.6)	114(100.0)	-	-	-	114(100.0)

4) 학교 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한 학교 정보는 연구학교의 경우 학교용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희망·일반 학교의 경우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2) 설문 대상 교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교원을 교원이 속한 지역 규모, 성별, 직위, 경력, 담당 과목⁵⁾,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 담임여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설문대상 교원 분포

(단위 : 개교, %)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전체
		2013	2014	계	희망	일반	계	
지역 규모	대도시	402(27.6)	323(22.2)	725(49.8)	310(24.9)	317(25.4)	627(50.3)	1352(50.0)
	중소도시	150(10.3)	99(6.8)	249(17.1)	175(14.0)	130(10.4)	305(24.5)	554(20.5)
	읍면지역	199(13.7)	282(19.4)	481(33.1)	127(10.2)	188(15.1)	315(25.3)	796(29.5)
	계	751(51.6)	704(48.4)	1455(100.0)	612(49.1)	635(50.9)	1247(100.0)	2702(100.0)
교사 성별	남교사	237(16.8)	215(15.3)	452(32.1)	202(16.7)	201(16.7)	403(33.4)	855(32.7)
	여교사	489(34.8)	466(33.1)	955(67.9)	393(32.6)	411(34.1)	804(66.6)	1759(67.3)
	계	726(51.6)	681(48.4)	1407(100.0)	595(49.3)	612(50.7)	1207(100.0)	2614(100.0)
교사 직위	교장·교감	48(3.4)	28(2.0)	76(5.4)	28(2.3)	30(2.5)	58(4.8)	134(5.1)
	교사	673(48.0)	652(46.5)	1325(94.6)	565(47.0)	580(48.2)	1145(95.2)	2470(94.9)
	계	721(51.5)	680(48.5)	1401(100.0)	593(49.3)	610(50.7)	1203(100.0)	2604(100.0)
교사 경력	5년 미만	133(9.5)	177(12.6)	310(22.1)	117(9.7)	135(11.2)	252(21.0)	562(21.6)
	5년 이상 ~10년 미만	101(7.2)	95(6.8)	196(14.0)	82(6.8)	87(7.2)	169(14.1)	365(14.0)
	10년 이상 ~15년 미만	92(6.6)	108(7.7)	200(14.3)	74(6.2)	75(6.2)	149(12.4)	349(13.4)
	15년 이상 ~20년 미만	65(4.6)	54(3.9)	119(8.5)	31(2.6)	60(5.0)	91(7.6)	210(8.1)
	20년 이상	333(23.8)	243(17.3)	576(41.1)	287(23.9)	253(21.1)	540(45.0)	1116(42.9)
	계	724(51.7)	677(48.3)	1401(100.0)	591(49.2)	610(50.8)	1201(100.0)	2602(100.0)
교사 과목	주요교과	282(20.5)	261(19.0)	543(39.4)	232(19.7)	267(22.7)	499(42.4)	1042(40.8)
	그외교과	426(30.9)	408(29.6)	834(60.6)	351(29.8)	327(27.8)	678(57.6)	1512(59.2)
	계	708(51.4)	669(48.6)	1377(100.0)	583(49.5)	594(50.5)	1177(100.0)	2554(100.0)
자유 학기제 경험	경험있음	542(38.7)	563(40.2)	1105(78.9)	149(12.4)	45(3.7)	194(16.1)	1299(49.9)
	경험없음	181(12.9)	114(8.1)	295(21.1)	444(36.9)	565(47.0)	1009(83.9)	1304(50.1)
	계	723(51.6)	677(48.4)	1400(100.0)	593(49.3)	610(50.7)	1203(100.0)	2603(100.0)
교사 담임 여부	담임	384(27.4)	404(28.9)	788(56.3)	327(27.2)	331(27.6)	658(54.8)	1446(55.6)
	비담임	339(24.2)	273(19.5)	612(43.7)	264(22.0)	279(23.2)	543(45.2)	1155(44.4)
	계	723(51.6)	677(48.4)	1400(100.0)	591(49.2)	610(50.8)	1201(100.0)	2601(100.0)

5) 담당 과목은 주요교과와 그 외교과로 분류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주요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로 한정하였다.

(3) 설문 대상 학생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생을 학생이 속한 지역,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6> 설문대상 학생 분포

(단위 : 개교, %)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전체
		2013	2014	계	희망	일반	계	
지역 규모	대도시	436(27.0)	331(20.5)	767(47.4)	317(22.6)	326(23.2)	643(45.8)	1410(46.7)
	중소도시	167(10.3)	101(6.2)	268(16.6)	185(13.2)	134(9.6)	319(22.7)	587(19.4)
	읍면지역	242(15.0)	340(21.0)	582(36.0)	206(14.7)	235(16.7)	441(31.4)	1023(33.9)
	합계	845(52.3)	772(47.7)	1617(100.0)	708(50.5)	695(49.5)	1403(100.0)	3020(100.0)
학생 성별	남학생	374(23.5)	383(24.0)	757(47.5)	312(22.5)	323(23.3)	635(45.7)	1392(46.7)
	여학생	461(28.9)	375(23.5)	836(52.5)	388(27.9)	366(26.3)	754(54.3)	1590(53.3)
	합계	835(52.4)	758(47.6)	1593(100.0)	700(50.4)	689(49.6)	1389(100.0)	2982(100.0)
학생 학년	1학년	57(3.6)	187(11.7)	244(15.3)	446(32.1)	360(25.9)	806(58.0)	1050(35.2)
	2학년	766(48.0)	571(35.8)	1337(83.8)	255(18.3)	329(23.7)	584(42.0)	1921(64.4)
	3학년	14(0.9)	0(0.0)	14(0.9)	0(0.0)	0(0.0)	0(0.0)	14(0.5)
	합계	837(52.5)	758(47.5)	1595(100.0)	701(50.4)	689(49.6)	1390(100.0)	2985(100.0)
학생 성적	상	220(13.8)	237(14.9)	457(28.7)	165(11.9)	228(16.4)	393(28.3)	850(28.5)
	중	485(30.5)	425(26.7)	910(57.2)	414(29.8)	376(27.1)	790(56.9)	1700(57.1)
	하	129(8.1)	94(5.9)	223(14.0)	120(8.6)	85(6.1)	205(14.8)	428(14.4)
	합계	834(52.5)	756(47.5)	1590(100.0)	699(50.4)	689(49.6)	1388(100.0)	2978(100.0)

(4) 설문 대상 학부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그리고 일반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학부모를 자녀와의 관계, 자녀 성별, 자녀 학년, 자녀 성적, 사교육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7> 설문대상 학부모 분포

(단위 : 개교, %)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전체
		2013	2014	계	희망	일반	계	
자녀 와의 관계	부	79(6.6)	68(5.7)	147(12.3)	55(5.5)	49(4.9)	104(10.4)	251(11.4)
	모	527(44.1)	502(42.0)	1029(86.2)	445(44.5)	434(43.4)	879(88.0)	1908(87.0)
	기타	13(1.1)	5(0.4)	18(1.5)	10(1.0)	6(0.6)	16(1.6)	34(1.6)
	합계	619(51.8)	575(48.2)	1194(100.0)	510(51.1)	489(48.9)	999(100.0)	2193(100.0)

	구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전체
		2013	2014	계	희망	일반	계	
자녀 성별	남	278(23.3)	252(21.1)	530(44.4)	188(18.9)	216(21.7)	404(40.6)	934(42.6)
	여	342(28.6)	323(27.0)	665(55.6)	321(32.2)	271(27.2)	592(59.4)	1257(57.4)
	합계	620(51.9)	575(48.1)	1195(100.0)	509(51.1)	487(48.9)	996(100.0)	2191(100.0)
자녀 학년	1학년	51(4.3)	132(11.1)	183(15.3)	370(37.2)	265(26.7)	635(63.9)	818(37.4)
	2학년	556(46.6)	441(37.0)	997(83.6)	138(13.9)	221(22.2)	359(36.1)	1356(62.0)
	3학년	13(1.1)	0(0.0)	13(1.1)	0(0.0)	0(0.0)	0(0.0)	13(0.6)
	합계	620(52.0)	573(48.0)	1193(100.0)	508(51.1)	486(48.9)	994(100.0)	2187(100.0)
자녀 성적	상	216(18.1)	232(19.5)	448(37.6)	171(17.2)	205(20.6)	376(37.9)	824(37.7)
	중	339(28.5)	286(24.0)	625(52.5)	280(28.2)	242(24.4)	522(52.6)	1147(52.5)
	하	63(5.3)	55(4.6)	118(9.9)	53(5.3)	42(4.2)	95(9.6)	213(9.8)
	합계	618(51.9)	573(48.1)	1191(100.0)	504(50.8)	489(49.2)	993(100.0)	2184(100.0)
사교 육비	10만원 미만	142(12.0)	102(8.7)	244(20.7)	119(12.1)	74(7.5)	193(19.6)	437(20.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99(16.9)	213(18.1)	412(34.9)	158(16.0)	142(14.4)	300(30.5)	712(32.9)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62(13.7)	177(15.0)	339(28.8)	158(16.0)	176(17.9)	334(33.9)	673(31.1)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68(5.8)	52(4.4)	120(10.2)	38(3.9)	62(6.3)	100(10.2)	220(10.2)
	70만원 이상	41(3.5)	23(2.0)	64(5.4)	29(2.9)	29(2.9)	58(5.9)	122(5.6)
	합계	612(51.9)	567(48.1)	1179(100.0)	502(51.0)	483(49.0)	985(100.0)	2164(100.0)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인식, 학교의 교육활동 실태, 교원과 학생의 학교생활,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 자유학기제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1) 전체 경향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성원의 이해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태도는 자율적 노력, 협력적 노력, 긍정적 태도, 내면화, 정책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8>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전체경향)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이해	목적과취지	4.1(0.8)	3.6(1.0)	25.06***	4.1(0.9)	4.1(0.8)	-0.94	3.7(0.9)	3.4(1.0)	10.74***
	교육과정	3.9(0.9)	3.4(1.0)	25.07***	3.9(0.9)	4.0(0.8)	-1.92	3.6(0.9)	3.2(1.0)	11.26***
	교수학습	3.9(0.9)	3.3(1.0)	27.85***	3.9(0.9)	4.0(0.8)	-2.63**	3.5(1.0)	3.1(1.0)	12.01***
	평가	3.8(0.9)	3.3(1.0)	24.21***	3.8(1.0)	3.8(0.9)	-2.24*	3.5(1.0)	3.1(1.0)	12.63***
	소계	3.9(0.8)	3.4(0.9)	28.66***	3.9(0.8)	4.0(0.7)	-2.21*	3.6(0.8)	3.2(0.9)	13.01***
태도	자율적 노력	3.5(1.1)	3.1(1.1)	17.42***	3.5(1.1)	3.5(1.1)	-0.27	3.2(1.1)	2.9(1.0)	8.85***
	협력적 노력	3.9(1.0)	3.4(1.0)	18.61***	3.8(1.0)	3.9(0.9)	-2.03*	3.6(0.9)	3.3(1.0)	9.91***
	긍정적 태도	3.7(1.0)	3.5(1.0)	10.66***	3.7(1.0)	3.7(1.0)	0.74	3.6(1.0)	3.4(1.0)	8.28***
	필요성 인식	3.9(1.0)	3.6(1.0)	11.63***	3.9(1.0)	3.9(0.9)	0.06	3.7(1.0)	3.5(1.0)	8.83***
	정책신뢰	3.6(0.9)	3.2(0.9)	12.67***	3.6(0.8)	3.5(0.9)	3.06**	3.4(0.8)	2.9(0.8)	10.48***
	소계	3.7(0.8)	3.4(0.8)	18.63***	3.7(0.8)	3.7(0.7)	-0.63	3.5(0.8)	3.2(0.8)	10.71***
계	3.8(0.7)	3.4(0.8)	25.79***	3.8(0.8)	3.8(0.7)	-1.31	3.5(0.7)	3.2(0.8)	13.46***	

*p<.05, **p<.01, ***p<.00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총점으로 볼 때 연구학교(3.8)가 희망·일반학교(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도 이해와 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학교 내에서는 2014년 연구학교가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2013년 연구학교보다 0.1점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두 학교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희망학교와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희망학교(3.5)가 일반학교(3.2)보다 총점 및 전체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 영역에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모두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고, ‘평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았다. ‘태도’영역에서는 연구학교의 경우 ‘협력적 노력’이,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구학교의 경우 ‘정책 신뢰’,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자율적 노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책 신뢰의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은 연구학교는 4.0점, 희망일반학교는 3.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운영과정의 일관성은 연구학교는 3.5점, 희망일반학교는 3.1점으로 떨어진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연구학교는 3.3점, 희망일반학교 2.9점으로 인식과 태도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학교에서는 2.7점을 보여 자유학기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책 신뢰의 구체적 문항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정책신뢰 세부문항 분석

(단위: 점, 표준편차)

문항내용	전체학교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자유학기제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	4.01 (0.85)	3.45 (0.96)	15.91***	4.03 (0.84)	3.99 (0.85)	0.90	3.67 (0.89)	3.23 (0.98)	8.10***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의 일관성	3.46 (0.97)	3.10 (0.94)	9.64***	3.53 (0.96)	3.38 (0.97)	2.91**	3.37 (0.90)	2.84 (0.90)	10.35***
자유학기제 운영 향후 지속성	3.27 (1.06)	2.92 (1.04)	8.66***	3.38 (1.05)	3.16 (1.06)	3.87***	3.19 (1.06)	2.65 (0.96)	9.36***

*p<.05, **p<.01, ***p<.001

나. 학교 교육활동 실태

(1) 전체 경향

학교의 교육활동 실태를 교수·학습 운영, 평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교육활동 실태에 대해, 희망·일반학교는 평소 교육활동 실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0> 학교 교육활동 실태(전체 경향)

(단위: 점, 표준편차)

문항	전체학교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교수-학습 운영 실태	3.9(0.7)	3.2(0.9)	33.62***	3.9(0.8)	3.9(0.7)	-2.35*	3.3(0.8)	3.1(0.9)	4.47***
평가 운영 실태	4.0(0.7)	3.7(0.7)	13.03***	4.0(0.8)	4.0(0.7)	-1.32	3.8(0.7)	3.7(0.8)	3.62***
프로그램 운영 실태	3.9(0.8)	3.8(0.9)	6.38***	3.9(0.9)	4.0(0.8)	-1.34	3.8(0.8)	3.8(0.9)	2.56*
교육과정 운영 실태	3.9(0.8)	3.6(0.8)	10.33***	3.9(0.8)	3.9(0.8)	0.40	3.7(0.8)	3.6(0.8)	5.23***
계	3.9(0.7)	3.6(0.7)	19.06***	3.9(0.7)	3.9(0.6)	-1.31	3.6(0.6)	3.5(0.7)	4.9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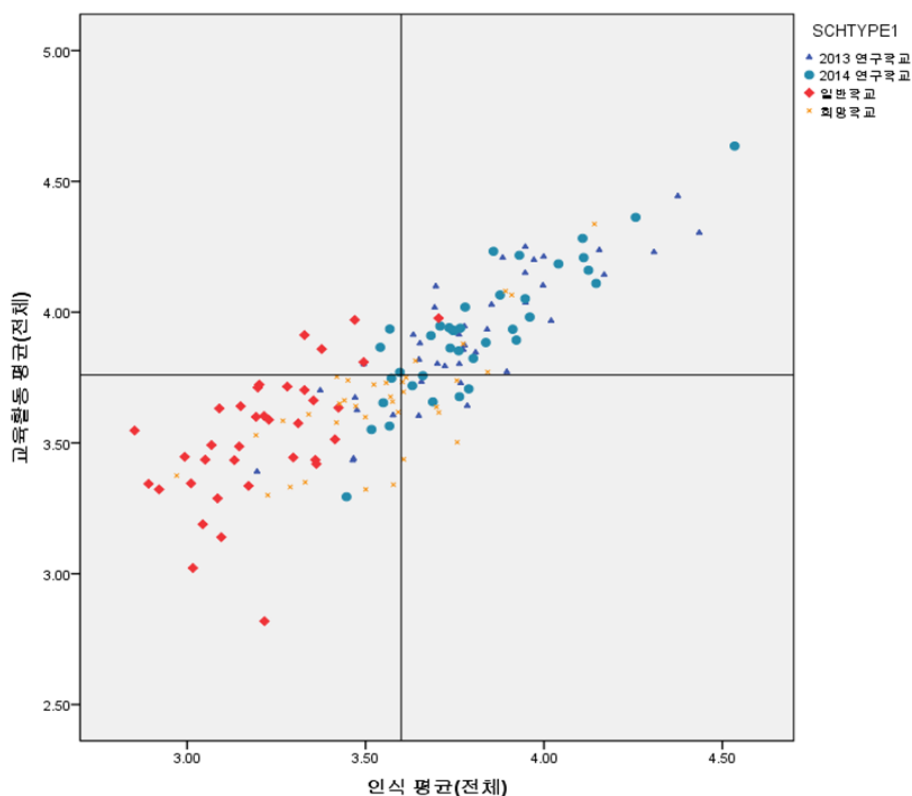
학교의 교육활동 실태 분석 결과 전체학교는 총점 3.9,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총점 3.6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실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학습 운영, 평가,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연구학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연구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학생 참여형 수업, 교과 융합·연계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개인 특성에 맞는 평가 결과의 기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 항목별로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가장 격차가 큰 것은 교수-학습 운영 실태이고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은 연구학교의 경우 평가 운영 실태,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실태로 나타났다.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중에서 연구학교의 경우, 과정중심의 평가 및 개별화된 평가결과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학교의 점수는 높았으나 희망일반학교 간에 격차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다른 영역보다는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활동 수준에 따른 학교 분포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IV-1]과 같다.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활동이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4사분면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1사분면(이하 상상 그룹)에는 연구학교(세모와 동그라미 모양, 파랑색과 푸른색)가 대부분 위치해 있고, 일부의 희망학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사분면(이하 하하 그룹)에는 대부분 희망일반학교가(마름모와 ×표 모양, 빨강색과 노랑색) 포진해 있다.



[그림 IV-1] 인식×교육활동 전체 학교 분포

<표 IV-11>을 통해 구체적 학교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인식과 교육활동이 모두 높은 상상 그룹에는 연구학교의 수가 55개교(36.4%), 희망일반학교의 수가 7개교(4.6%)로 압도적으로 연구학교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식과 교육활동이 모두 낮은 하하 그룹에는 희망일반학교의 수가 52개교가 위치하였고, 연구학교의 수가 12개교에 그쳤다. 즉,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활동의 점수가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로서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IV-11> 인식×교육활동 전체 학교 분포

(단위 : 개교, %)

사분면 (인식/교육활동)	전체학교		계	연구학교		희망·일반학교		계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1사분면 (상/상)	55 (36.42)	7 (4.64)	62 (41.05)	30 (19.87)	25 (16.56)	6 (3.97)	1 (0.66)	62 (41.05)
2사분면 (하/상)	4 (2.65)	4 (2.65)	8 (5.29%)	1 (0.66)	3 (1.99)	0 (0)	4 (2.65)	8 (5.29)
3사분면 (하/하)	12 (7.95)	52 (34.44)	64 (42.38)	7 (4.64)	5 (3.31)	21 (13.91)	31 (20.53)	64 (42.38)
4사분면 (상/하)	9 (5.96)	8 (5.30)	17 (11.25)	4 (2.65)	5 (3.31)	8 (5.30)	0 (0)	17 (11.25)
계	80 (52.98)	71 (47.01)	151 (100)	42 (27.81)	38 (25.16)	35 (23.17)	36 (23.17)	151 (100)

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1) 전체 경향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영역은 학교 내부와 외부의 인적 지원, 학교 내부와 외부의 물적 지원, 학교장의 리더십, 연수, 홍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희망일반학교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2>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전체 경향)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학교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내부 인적	보조, 행정 인력	2.7(1.1)	.	.	2.8(1.1)	2.7(1.1)	2.42*	.	.	.
	구성원 업무 배분	3.1(1.0)	.	.	3.3(0.9)	3.0(1.0)	5.08***	.	.	.

		전체학교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학교장 리더십	인프라 발굴 노력	3.7(0.9)	3.6(0.9)	3.34***	3.8(0.9)	3.6(0.9)	2.87**	3.7(0.9)	3.4(0.9)	6.43***
	협력적 풍토 조성	3.8(0.9)	3.7(1.0)	4.13***	3.9(0.9)	3.8(0.9)	2.91**	3.8(0.9)	3.6(1.0)	3.93***
내부 물적	학교 시설	3.4(1.0)	·	·	3.5(1.0)	3.4(1.0)	3.79***	·	·	·
	예산	3.4(1.0)	·	·	3.5(0.9)	3.3(1.0)	2.84**	·	·	·
외부 인적	인력풀	3.4(1.0)	2.9(0.9)	15.30***	3.4(1.0)	3.4(1.0)	-0.62	3.1(0.9)	2.7(0.9)	6.61***
	강사의 질	3.1(1.0)	3.0(0.9)	3.45***	3.1(1.0)	3.1(1.0)	-0.20	3.1(0.9)	2.8(0.9)	5.78***
외부 물적	다양한 체험처	3.2(1.1)	3.1(1.0)	5.33***	3.2(1.1)	3.3(1.1)	-2.21*	3.2(1.0)	2.9(1.1)	6.76***
	체험처 질	3.4(1.0)	3.2(1.0)	9.88***	3.4(1.0)	3.5(0.9)	-2.75**	3.3(0.9)	3.1(1.0)	5.76***
연수		3.3(0.9)	3.1(0.9)	7.08***	3.3(0.9)	3.3(0.9)	0.97	3.3(0.9)	2.8(0.9)	8.16***
홍보		3.7(0.9)	3.2(1.0)	19.33***	3.7(0.9)	3.6(0.9)	2.02*	3.4(0.9)	2.9(1.0)	13.95***
계		3.5(0.8)	3.2(0.8)	12.11***	3.5(0.8)	3.5(0.8)	0.39	3.4(0.8)	3.1(0.8)	10.20***

*p<.05, **p<.01, ***p<.001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분석 결과 학교장리더십, 외부 인적 지원, 연수, 홍보의 경우 연구학교의 점수가 희망·일반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연구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협력적 풍토조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내부 ‘보조·행정’ 인력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구성원의 업무 배분’, ‘외부 강사의 질’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희망·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강사 인력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 학교 운영 결과(학교생활)

(1) 전체 경향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문항은 교사용과 학생용이 다르며,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 운영 결과(학교생활) 조사는 구성원 간의 관계, 수업의 즐거움,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가능성, 교사의 전문성/ 학생의 자신감, 교사의 보람/ 학생의 꿈과 미래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3> 학교 운영 결과(전체 경향)

(단위: 점, 표준편차)

	전체		t	연구학교		t	희망·일반학교		t
	연구학교	희망·일반		2013	2014		희망	일반	
학생-교사/ 학생-부모 관계	3.8(0.9)	3.9(0.9)	-2.45*	3.8(0.9)	3.8(0.9)	-0.50	3.9(0.9)	3.9(0.9)	1.14
교사 간/ 친구 간 관계	4.1(0.8)	4.1(0.8)	-0.82	4.1(0.8)	4.1(0.8)	1.73	4.1(0.8)	4.1(0.8)	1.27
수업의 즐거움	3.8(0.9)	3.8(0.9)	-0.47	3.8(0.9)	3.8(0.9)	2.50*	3.8(0.9)	3.8(0.8)	-0.58
교사 자율성/ 학생 강점	3.8(0.9)	3.6(0.9)	8.86***	3.8(0.9)	3.8(0.8)	-1.16	3.7(0.9)	3.6(0.9)	3.08**
교사 전문성/ 학생 자신감	3.9(0.9)	3.9(0.8)	-2.38*	3.9(0.9)	3.9(0.9)	1.15	3.9(0.8)	3.9(0.8)	-0.29
교사 보람/ 학생의 꿈	3.8(0.9)	3.8(0.9)	0.56	3.8(0.9)	3.8(0.9)	-0.45	3.8(0.9)	3.8(0.9)	0.22
학교생활 만족도	3.7(1.0)	3.8(0.9)	-3.87***	3.7(1.0)	3.7(0.9)	0.43	3.8(0.9)	3.8(0.9)	0.84
계	3.8(0.7)	3.8(0.6)	-0.08	3.9(0.7)	3.8(0.7)	0.65	3.9(0.6)	3.8(0.6)	1.10

*p<.05, **p<.01, ***p<.001

분석 결과 총점에 있어서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 별로 살펴볼 때,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과 부모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 희망·일반학교가 연구학교보다 0.1점 높았다.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강점 영역은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 보다 0.2점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연구학교에서는 교사 간(교사)/ 친구 간(학생)의 관계 점수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3.7로 가장 낮았다. 희망·일반학교의 경우, 교사 간(교사)/ 친구 간(학생)의 관계 점수가 4.1로 가장 높았고, 교사 자율성/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 가능성 점수가 3.6으로 가장 낮았다.

(2) 구성원 별 학교운영결과

구성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교사는 교사 간의 관계 형성, 교사의 자율성 측면에서 연구학교에 비해 조금 높고, 상대적으로 수업의 즐거움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낮다. 학생은 수업의 즐거움과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는 부분이 희망 일반학교에 비해 높았고, 관계 형성 부분은 조금 낮았다. 학부모는 자녀가 강점을 아는 것, 즉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이 높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이 일반희망학교의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연구학교가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학생을 제외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 낮게 나왔다.

<표 IV-14> 구성원 별 학교운영결과

(단위: 점, 표준편차)

문항	교사		t	학생		t	학부모		t
	연구학교 교사	일반희망 학교교사		연구학교 학생	일반희망 학교학생		연구학교 학부모	일반희망 학교학부모	
학생-교사/ 학생-부모 관계	3.8(0.9)	3.8(0.8)	0.15	3.8(1.0)	3.9(1.0)	-2.49*	3.9(0.9)	4.0(0.8)	-1.82
교사 간/ 친구 간 관계	3.9(0.9)	3.8(0.8)	2.20*	4.2(0.8)	4.3(0.8)	-2.76**	4.2(0.7)	4.2(0.7)	-1.24
수업의 즐거움	3.6(0.9)	3.8(0.8)	-6.91***	3.8(0.9)	3.6(0.9)	4.49***	4.0(0.8)	4.0(0.8)	0.86
교사 자율성/ 학생 강점	4.0(0.8)	3.9(0.8)	3.60***	3.8(0.9)	3.5(1.0)	7.26***	3.7(0.9)	3.6(0.8)	4.23***
교사 전문성/ 학생 자신감	3.8(0.9)	3.8(0.7)	-0.16	3.9(0.9)	4.0(0.9)	-2.15*	3.9(0.9)	4.0(0.8)	-1.76
교사 보람/ 학생의 꿈	3.7(0.9)	3.8(0.9)	-2.24*	3.9(1.0)	3.9(1.0)	0.36	3.8(0.9)	3.6(0.9)	3.29**
학교생활 만족도	3.6(1.0)	3.8(0.9)	-4.53***	4.0(0.9)	3.9(0.9)	0.62	3.5(1.0)	3.6(0.8)	-2.86**
계	3.8(0.7)	3.8(0.6)	-1.48	3.9(0.7)	3.9(0.7)	1.18	3.9(0.7)	3.9(0.6)	0.17

*p<.05, **p<.01, ***p<.001

마. 요구사항 분석 결과

(1)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5>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순위	전체 학교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진로교육 활성화	2347 (31.1)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1099 (41.6)	평가 방법의 변화	903 (31.0)	진로교육 활성화	716 (35.9)
2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2059 (27.3)	진로교육 활성화	803 (30.4)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895 (30.8)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574 (28.7)
3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1831 (24.3)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590 (22.3)	진로교육 활성화	828 (28.5)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466 (23.3)
4	평가 방법의 변화	1256 (16.6)	평가 방법의 변화	123 (4.7)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	266 (9.1)	평가 방법의 변화	230 (11.5)
5	기타	55 (0.7)	기타	27 (1.0)	기타	17 (0.6)	기타	11 (0.6)
계		7548 (100.0)	계	2642 (100.0)	계	2909 (100.0)	계	1997 (100.0)

모든 구성원의 응답을 종합해 볼 때, 구성원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을 ‘진로교육 활성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생의 경우 ‘평가 방법의 변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진로교육 활성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구성원 간의 차이를 보였다.

(2)-1 자유학기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6>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학기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1학년 2학기	2741 (35.7)	1학년 2학기	1203 (45.2)	1학년 2학기	798 (27.4)	1학년 2학기	740 (35.2)
2	2학년 1학기	1401 (18.3)	2학년 1학기	457 (17.2)	2학년 2학기	721 (24.8)	1학년 1학기	553 (26.3)
3	1학년 1학기	1347 (17.6)	1학년 1학기	396 (14.9)	2학년 1학기	496 (17.1)	2학년 1학기	448 (21.3)
4	2학년 2학기	1327 (17.3)	2학년 2학기	367 (13.8)	1학년 1학기	398 (13.7)	2학년 2학기	239 (11.4)
5	3학년 2학기	510 (6.7)	3학년 2학기	182 (6.8)	3학년 2학기	254 (8.7)	3학년 2학기	74 (3.5)
6	3학년 1학기	342 (4.5)	3학년 1학기	54 (2.0)	3학년 1학기	242 (8.3)	3학년 1학기	46 (2.2)
	계	7668 (100.0)	계	2659 (100.0)	계	2909 (100.0)	계	2100 (100.0)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학기는 ‘1학년 2학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성원 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1학년 2학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순위 응답 결과에 있어서는 교사의 경우 ‘2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 학부모의 경우 ‘1학년 1학기’로 구성원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랐다.

(2)-2 적합 학기 선택 이유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7> 적합 학기 선택 이유(최대 2개까지 응답)

순위	전체 학교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걱정해서	3892 (49.0)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걱정해서	1289 (48.0)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걱정해서	1572 (52.5)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걱정해서	1031 (47.8)
2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2946 (37.6)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1025 (38.2)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1030 (34.4)	학생들의 중학교 생활 적응에 적합해서	891 (41.3)
3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1973 (25.2)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562 (20.9)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862 (28.8)	학생들의 고입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549 (25.5)
4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1610 (20.6)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457 (17.0)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634 (21.2)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519 (24.1)
5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455 (5.8)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228 (8.5)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150 (5.0)	교사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77 (3.6)
6	기타	169 (2.2)	기타	42 (1.6)	기타	96 (3.2)	기타	31 (1.4)
사례수		7832	사례수	2684	사례수	2992	사례수	2156

자유학기제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학기에 대한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진로 탐색 시기로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 순서로는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 학생들에 대한 고입 부담이 적기 때문,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해서, 교사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연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8> 자유학기제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연수(최대 2개까지 응답)

순위	전체 교사	
	문항 번호	빈도(%)
1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	1487(55.4)
2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1357(50.6)
3	교육과정 자율화 역량 개발	582(21.7)
4	성취수준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497(18.5)
5	기타	30(1.1)
사례수		2682

분석 결과 다양한 자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의 요구가 높았다.

(4)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자유학기제 내용 중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9> 다른 학기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최대 2개까지 응답)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2627 (55.2)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1478 (56.8)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1149 (53.2)
2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1631 (34.2)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947 (36.4)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753 (34.8)
3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1527 (32.1)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	774 (29.7)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684 (31.7)
4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1030 (21.6)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562 (21.6)	교과-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연계	468 (21.7)
5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492 (10.3)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352 (13.5)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371 (17.2)
6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376 (7.9)	기타	10 (0.4)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140 (6.5)
7	기타	17 (0.4)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평가 방법 개선	5 (0.2)	기타	7 (0.3)
사례수		4763	사례수	2602	사례수	2161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1순위는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교사의 경우 체험형/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부모의 경우 다양한 학생 선택 프로그램의 개설로 나타났다.

(5)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⁶⁾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기대되는 사항은 학생 측면에서의 기대사항과 교사 측면에서의 기대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6) 사전조사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묻는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는 단일 응답에 어려움이 있어 복수응답으로, 교사는 응답에 어려움이 없어 단일응답으로 응답 방식 차이를 주었다.

(가) 학생 측면 기대사항 설문 결과

학생 측면의 기대사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가 가장 기대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의 증가, 진로 의식의 성숙,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관계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의 증가’가 1순위인 반면 학부모의 경우 ‘진로 의식 성숙’이 1순위로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학생측면)(최대 2개까지 응답)

순위	전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910 (35.9)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1629 (54.5)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918 (42.5)
2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677 (26.7)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1178 (39.4)	학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증가	910 (42.1)
3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480 (18.9)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949 (31.7)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확대	829 (38.4)
4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377 (14.9)	학생들의 진로 의식 성숙	649 (21.7)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583 (27.0)
5	교사-학생 및 학생 간 관계 개선	86 (3.4)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255 (8.5)	친구들 및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	273 (12.6)
6	기타	8 (0.3)	기타	49 (1.6)	기타	10 (0.5)
사례수		2538	사례수	2989	사례수	2161

(나) 교사 측면 기대사항 설문 결과

교사 측면의 기대사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교사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 활동이 가장 기대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자율성, 수업 및 평가 방법, 협력적 문화 조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교사측면)

순위	전체 교사	
	문항 번호	빈도(%)
1	교사들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 활동	897(35.7)
2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793(31.5)
3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623(24.8)
4	교사들의 협력적 문화 조성	177(7.0)
5	기타	26(1.0)
계		2516(100.0)

6)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려되는 사항은 학생 측면에서의 우려사항과 교사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 측면 우려사항 설문 결과

학생 측면의 우려사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태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체험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문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구체적인 평가 결과 확인의 어려움 등을 우려 사항으로 순으로, 학부모의 경우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학생측면)(최대 2개까지 응답)

순위	전체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산만한 수업 태도	1111 (42.8)	학업 성적 저하	1554 (52.2)	학업 성적 저하	1103 (51.0)
2	학생들의 학업 성적 저하	783 (30.1)	산만한 수업 태도	1060 (35.6)	산만한 수업 태도	655 (30.3)
3	체험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 문제	482 (18.6)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717 (24.1)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530 (24.5)
4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171 (6.6)	구체적인 평가결과 확인의 어려움	612 (20.6)	고등학교 입시 준비 문제	482 (22.3)
5	기타	51 (2.0)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적응이 어려움	370 (12.4)	구체적인 평가결과 확인의 어려움	422 (19.5)
6			체험활동 시 안전 문제	349 (11.7)	체험활동 시 안전 문제	391 (18.1)
7			기타	83 (2.8)	기타	47 (2.2)
	사례수	2598	사례수	2978	사례수	2162

(나) 교사측면 우려사항 설문 결과

교원 측면의 우려사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들은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운영 및 준비의 부담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에 대한 관련 업무 부담,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교사측면)

순위	전체 교사	
	문항 번호	빈도(%)
1	자율과정 등 새로운 수업에 대한 운영(준비) 부담	1292(49.8)
2	협업기관 연계 등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587(22.6)
3	다음 학기 연계에 대한 부담	532(20.5)
4	시수 조정에 대한 교사 간 갈등	153(5.9)
5	기타	29(1.1)
	계	2593(100.0)

7)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의 인식, 교육활동, 지원 환경 측면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성원의 인식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4>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구성원의 인식)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1298 (27.8)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763 (28.9)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803 (39.7)
2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1067 (22.9)	교사 간 활발한 협력	588 (22.2)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505 (25.0)
3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998 (21.4)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562 (21.3)	교사 간 활발한 협력	239 (11.8)
4	교사 간 활발한 협력	827 (17.7)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	495 (18.7)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	235 (11.6)
5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419 (9.0)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191 (7.2)	학부모의 신뢰와 지원	228 (11.3)
6	기타	57 (1.2)	기타	44 (1.7)	기타	13 (0.6)
	계	4666 (100.0)	계	2643 (100.0)	계	2023 (100.0)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를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성원별로 볼 때는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랐다.

교원의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사 간 활발한 협력,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변화를 권장하는 학교 분위기, 교사 간 활발한 협력 순으로 응답하였다.

(나) 교육활동

교육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5>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교육활동)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1372 (29.4)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811 (30.7)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17 (30.5)
2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1253 (26.8)	내실 있는 체험활동	643 (24.3)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	561 (27.7)
3	내실 있는 체험활동	1130 (24.2)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636 (24.0)	내실 있는 체험활동	487 (24.0)
4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772 (16.5)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464 (17.5)	학교 맞춤형 자율과정 편성/운영	308 (15.2)
5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122 (2.6)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75 (2.8)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47 (2.3)
6	기타	21 (0.4)	기타	16 (0.6)	기타	5 (0.2)
	계	4670 (100.0)	계	2645 (100.0)	계	2025 (100.0)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은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 시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1순위 응답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 시도를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내실있는 체험활동,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수업 및 평가 방법의 시도, 내실 있는 체험활동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 지원환경

지원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6>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촉진하는 요인(지원환경)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1832 (39.4)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1090 (41.4)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	742 (36.8)
2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확대	1388 (29.8)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확대	789 (29.9)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확대	599 (29.7)
3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761 (16.4)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498 (18.9)	외부강사 인력풀 확보	263 (13.0)
4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403 (8.7)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164 (6.2)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239 (11.8)
5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224 (4.8)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55 (2.1)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169 (8.4)
6	기타	46 (1.0)	기타	39 (1.5)	기타	7 (0.3)
	계	4654 (100.0)	계	2635 (100.0)	계	2019 (100.0)

다른 영역과 달리 지원환경 측면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자유학기제를 가장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확대, 외부 강사 인력풀 확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8)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성원의 인식, 교육활동, 지원 환경 측면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성원의 인식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게 꼽힌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였다. 이는 교사에게서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었다. 그 다음이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로서, 학부모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다.

<표 IV- 27>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구성원의 인식)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1642 (35.5)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1107 (42.7)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843 (41.4)
2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1468 (31.7)	학업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	625 (24.1)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	535 (26.3)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3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1023 (22.1)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598 (23.1)	진도와 시험 중심의 전통적 사고	425 (20.9)
4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242 (5.2)	교사 간 소통 부재	130 (5.0)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142 (7.0)
5	교사 간 소통 부재	215 (4.6)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와 무관심	100 (3.9)	교사 간 소통 부재	85 (4.2)
6	기타	41 (0.9)	기타	33 (1.3)	기타	8 (0.4)
	계	4631 (100.0)	계	2593 (100.0)	계	2038 (100.0)

(나) 교육활동

교육활동 측면에서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의 정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제일 높은 순위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는 평가 기록 부담을,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가 교육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표 IV-28>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교육활동)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	1897 (41.0)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	829 (32.0)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체험활동	1068 (52.3)
2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900 (19.4)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672 (25.9)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345 (16.9)
3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869 (18.8)	프로그램 개설시 학생 요구 수용의 한계	555 (21.4)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	253 (12.4)
4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	559 (12.1)	자율과정 구성 등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	306 (11.8)	교사들의 평가 기록 부담	197 (9.7)
5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378 (8.2)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208 (8.0)	타학기, 타학년 간 연계 부족	170 (8.3)
6	기타	28 (0.6)	기타	20 (0.8)	기타	8 (0.4)
	계	4631 (100.0)	계	2590 (100.0)	계	2041 (100.0)

(다) 지원환경

지원환경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이었다. 2순위로는 교사는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이, 학부모는 지역 체험 기관과의 협력부족이 선정되었다. 교사는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의 부담 가중이 자유학기제 정착의 큰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9>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지원환경)

순위	전체학교					
	전체		교사		학부모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문항 내용	빈도 (%)
1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1513 (33.0)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765 (29.8)	예산, 학교 시설 등 물적 지원의 부족	748 (37.0)
2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848 (18.5)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692 (27.0)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부족	344 (17.0)
3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부족	819 (17.9)	지역 체험기관과의 협력 부족	475 (18.5)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225 (11.1)
4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472 (10.3)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291 (11.3)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218 (10.8)
5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434 (9.5)	체험활동 시 학생 안전문제에 대한 부담	209 (8.2)	외부강사 인력풀 부족	181 (8.9)
6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259 (5.6)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82 (3.2)	교사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부담 과중	156 (7.7)
7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226 (4.9)	자유학기제 홍보 확대 부족	41 (1.6)	연수, 장학, 컨설팅 등 제공 부족	144 (7.1)
8	기타	16 (0.3)	기타	9 (0.4)	기타	7 (0.3)
	계	4587 (100.0)	계	2564 (100.0)	계	2023 (100.0)

바. 체험처 활용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학교용)

1) 체험처 수 및 활용 경로

연구학교 80개교는 총 801개의 외부기관을 체험처로 활용하고 있어, 학교당 평균 19.9개의 체험처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기관의 활용 경로는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요청하는 비율(70.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사의 인맥을 통해 활용하는 것(12.5%)이었다. 지역교육청의 소개(7.8%)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소개(2.0%) 비율은 작았으나 도움 정도는 가장 높았다(지역교육청 소개 4.68점,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소개 4.94점).

2) MOU 기관의 도움정도 및 체험처의 활용 빈도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의 학교 활동 도움 정도(4.64점)가 MOU 체결 기관(4.46점)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관(79.1%)이 지역사회 이외 기관(20.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도 지역사회 기관이 지역사회 이외 기관보다 높다.

외부기관의 한 학기 동안 활용 횟수는 1~2회가 가장 높았고(64.4%), 그 다음이 3~5회(13.7%)이었으며,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은 비율도 6.4%(52개 기관)이나 되었다. 도움 정도는 대체적으로 활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0>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교)의 체험처 활용 분류 및 도움 정도

구분		활용 기관수 (단위: 개)	학교활동 도움 정도 (5점만점)	t/F값 (유의도)	
MOU체결 여부	체결함	308(38.4%)	4.46	-3.228** (.001)	
	체결하지 않음	494(61.6%)	4.64		
공공기관 여부	국가·공공 기관	444(55.1%)	4.59	.578 (.563)	
	민간 기관	362(44.9%)	4.56		
지역사회 기관 여부	지역사회 기관	631(79.1%)	4.62	3.289** (.001)	
	지역사회 이외 기관	167(20.9%)	4.40		
기관활용 경로*	인맥	교사를 통해	101(12.5%)	4.48	1.500 (.175)
		학부모를 통해	28(3.5%)	4.50	
	소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63(7.8%)	4.68	
		교육부 및 KEDI를 통해	16(2.0%)	4.94	
	직접요청	학교에서→기관으로	564(70.1%)	4.56	
		기관에서→학교로	27(3.4%)	4.63	
한 학기 동안 활용 횟수	0회	52(6.4%)	3.50	34.535*** (.000)	
	1회 ~ 2회	525(64.4%)	4.55		
	3회 ~ 5회	112(13.7%)	4.70		
	5회 ~ 9회	44(5.4%)	4.93		
	10회 이상	82(10.1%)	4.88		

* '기관활용 경로'의 기타 비율은 0.7%(6개) 기관임.

*p<.05, **p<.01, ***p<.001

3) 연도별 및 지역규모별 연구학교의 체험처 수: 체험처 확대 가능성과 지역규모별 체험처 편차

2013년 연구학교의 활용 체험처(평균 16.6개)에 비해 2014년 연구학교(평균 23.3개)의 활용 체험처의 수가 높아졌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규모별로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 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24.5개) 체험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읍면지역(13.2개)의 체험처 수가 가장 적었다(중소도시 17.0개). 체험처를 학교에서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체험 기관 인프라의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규모별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지역 및 학교규모별 체험처 활용 평균

구 분		평균(단위: 개)	표준편차
학교구분	2013 연구학교	16.63	16.95
	2014 연구학교	23.31	22.21
지역규모	대도시	24.47	25.03
	중소도시	17.03	14.22
	읍면지역	13.18	9.73
학교규모	대규모	22.24	23.00
	중규모	16.00	15.91
	소규모	20.73	20.07

V. 결 론

1. 연구의 주요 결과

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실태 형성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실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연구학교들은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 이해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이해와 태도뿐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평가, 교육과정 운영이 실태 측면에서도 희망·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의 분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의 인식과 교육활동을 축으로 하여 4사분면으로 구분하여 봤을 때 인식과 교육활동이 ‘상’인 1사분면(이하 상상 그룹)에 연구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반면 3사분면(이하 하하 그룹)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연구학교의 수는 훨씬 적다. 인식과 지원환경 혹은 교육활동과 지원환경 양측이 모두 높은 상상 그룹에 연구학교들이 비연구학교에 비해 많다. 그리고 분석한 그림을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활동과 지원환경을 양측으로 한 상상 그룹에는 학교 운영 결과도 높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유학기제 관련한 교육활동과 지원환경이 학교 운영 결과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정책을 경험한 이후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뒤따를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 정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016년에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심지어 2015년에 전면 확대를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희망학교와 일반학교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환경 등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예컨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비록

연구학교라는 대상의 제한성이 있으나, 이후 연구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희망학교의 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제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가 더 타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 촉진, 그러나 평가에 대한 부담 존재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를 통한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화이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교수-학습에 대한 높은 이해와 교수-학습 운영 실태 결과는 연구학교가 희망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들 간에 융합·연계 수업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음은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가 어렵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프로젝트식 수업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수업이 될 때 수업은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고 교실은 활기차졌다.

한편, 평가는 이해도는 낮으나 수행평가 활용 등에 대해서 높은 실태를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학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고부담 시험인 총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던 중간·기말고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지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비해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학교에서 일부분이라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실태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여전히 평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평가 부담은 새로운 평가 실시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많은 학생을 서술식으로 작성 기입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으로 구별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존의 입시 체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기존의 결과 중심의 총괄 평가를 대체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에 대한 업무적 부담으로서 ‘평가 기입에 대한 부담’을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의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는 촉진되고 있으나, 한편 평가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심리적·업무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교육활동의 공간 확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자유학기제는 교육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학교 내의 테두리에 막힌 채 진행해왔다면,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육 활동은 이 벽을 넘어서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 중의 학생선택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외부에서의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장소를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물, 인적자원은 유용한 교육인프라가 되고 있다. 모든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체험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특강 강사나 학생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당 평균 약 20개의 체험처 등의 외부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교육활동에 주는 도움 정도는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부기관들은 지역 사회 기관이 약 80%에 육박할 정도로(지역 사회 이외 기관 20.9%) 지역의 기관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지역 사회 기관이 지역 사회 이외 기관에 비해 높다.

또한, 교육은 학교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실행 이전에는 주변의 활용가능한 교육자원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게 되면서 교육활동의 유형과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며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마을에서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도 안겨준다.

라.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

자유학기제 정책이 교수-학습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책 목적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일관성과 향후 지속성에 대해 다른 문항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즉, 정책은 좋으나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운영 과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시행 초기에 교수-학습 개선 중점과 진로체험 활동 중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학교를 모집하였으나, 이후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기인한다. 이 점에 대해 연구학교들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정책 운영과 정책 방향의 중점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등 진로체험 중심의 외국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자유학기제=진로직업 체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졌다고 판단된다. 이후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중심이 된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임을 연구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자유학기제의 핵심 방향이 일관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는 정책 운영 과정의 일관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층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향후 지속성을 묻는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 2013년 연구

학교에 비해 2014년 연구학교는 더 낮고, 일반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2점대 중반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향후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학교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신철균, 2011),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의 많은 정책을 수입하거나 영향을 받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되기 보다는 연구학교를 통해 정책의 씨앗을 뿌리기만 할 뿐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왔다(신철균, 장용석, 2010). 기존의 정책 시행에 대한 수많은 경험은 새롭게 행해지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신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존부터 쌓여온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자유학기제 정책이 수업 변화 등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정책 역시 지속성 면에서 고스란히 부정적 시각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정책의 지속성 담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마. 체험 인프라 구성에 대한 중앙의 지원과 학교의 체감도 간극 존재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확대, 중앙행정 처·청 간의 업무협약, 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⁷⁾ 이를 통해, 교육부는 중앙부처·청, 교육기부 공공·민간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협력 체제 형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교육부 블로그, 2014.4.19.).

그러나, 중앙 차원의 구축 제공 노력에 비해 여전히 학교 차원의 체감도는 낮다. 학교에서 외부기관을 섭외하고 체험처를 통한 연속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 부처와 지역교육청의 소개를 통한 학교의 외부기관 활용 비율은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며, 여전히 개별 학교 차원에서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교사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규모별로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의 수가 대도시에 비해 평균 10개 기관 이상 적어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MOU 체결 부분이다. 많은 학교에서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MOU를 체결한 기관이 오히려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보다 학교 활동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MOU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외부 기관들과 MOU를 맺는 것이 형식적 체결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 단위에서 외부 기관들과 MOU를

7)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협업기관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2013년 6월)에서 17개 기관(2014년 9월 현재)으로 확대하였고, 법제처와 소방방재청 등 8개 중앙행정 처·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2014년 3월) 하였으며,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2013년 1개 기관에서 2014년 3개 기관으로 확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하였다. 또한, 10개의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연간 4,000~8,000만원을 향후 2년간('14~'15)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울이고 있다.

맏도록 독려하거나 현황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 학교가 형식적 MOU 체결에 대한 부담을 앓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희망적인 부분은 연구학교의 체험처 수가 2013년에 비해 확대(2013년 평균 16.6개, 2014년 평균 23.3개)된 점으로서 중앙과 지역사회, 학교의 노력으로 체험처 확대가 현실화 되는 지점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부처와 지역교육청이 소개한 기관들은 교육 활동에 도움 정도가 커 학교에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체험기관을 중앙과 교육청 차원에서 선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을 위시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 노력이 꾸준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역사회의 특징과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향후 과제 및 정책 방안

가. 자유학기제 인식 지원 방안

(1)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학교차원의 심리적 풍토 조성

○ 문제현상

교사들은 수업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결과에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약했고, 사례조사에서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여주었다.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보여주었는데,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즐거웠는지, 학생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학교 교사의 응답수준은 일반학교 교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정책의 운영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학교운영의 부정적인 결과로 일부 반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 원인분석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교체시마다 변동되어왔고, 이를 수차례 경험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 또한 지난 수많은 정책과 마찬가지로 5년 후에는 관심과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현장

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확대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현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정책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전 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학년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교사들로 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동료교사들과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을만한 풍토와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채 단순히 개인 교사의 업무로만 인식되고 있어 해당 교사들은 고립감과 함께 업무부담의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 대안마련

정부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포함하여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예산 지원 지침이나 법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교사들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내용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전 정책집행 연구들의 교훈을 통해 볼 때, 교육정책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학교차원에서는 교사에게 정책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심리적 풍토를 조성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시행착오 등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교수학습 경험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체제나 교수학습 전략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 심리적 풍토 조성과 함께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석교사와 교과과목 교사중심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정보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교육과정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개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문제를 TF팀에서 함께 시도하면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사 개인 또는 교과목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협의회와 같은 단순히 시스템 마련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수석교사 등 학교의 핵심이 되는 중견교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교사들 간의 시행착오와 서로의 경험들을 흥허물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2)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와 실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

○ 문제현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높은 것

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반면, 기본교과와 자율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중심의 평가 순으로 자신의 이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을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화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로 이해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은 진로교육의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책실행의 주체인 교사들과 정책의 직접적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학생·학부모의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실행의 구체적 운영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긍정적 태도 배양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 문제원인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정책 운영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내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13년 자유학기제 정책실행 초기에는 교수-학습 개선이나 진로체험 중점을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교수-학습 개선과 진로체험 교육을 통합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연구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변경된 정책내용을 실행해야 했으므로 자유학기제 정책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 융합형 수업, 학생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할지 준비도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자신감 부족도 유발하였다.

○ 대안마련

자유학기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과제이다. McLaughlin(1987)을 비롯한 교육정책 실행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 중 하나는 교사들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희망일반학교와 연구학교의 경우, 정책이해를 위해 다른 전문성 강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자유학기제를 실행하지 않은 희망일반학교에서는 정책운영에 필요한 방법론에 앞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진로활성화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므로, 변경된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연구학교에서는 정책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가 높은 편이므로 정책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융합형 수업방법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년을 담당하는 일부교사들만 정책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체 교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책이해와 전문성 강화는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 관료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각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실무인력들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과 9월의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관은 16개 기관이 바뀌었고, 장학사는 7개 기관의 주무 담당자가 바뀌었다(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내부 자료, 2014.9.18.).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Pressman과 Wildavsky(1972)의 정책집행의 원리를 되새겨, 자유학기제가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의 정책이해와 실무능력에 대한 전문성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학부모의 시험중심 사고방식 전환을 위한 학습체험기회 마련

○ 문제현상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자녀들의 학업 성적의 저하로 보고 있다. 이렇듯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학기동안 시험은 보지 않은 채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자유롭고 충분히 배우지 못할 것이므로 학력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교의 변화는 입시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표출한다.

○ 문제원인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간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도 지속적으로 시험점수를 중심으로 경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시스템과 사회적 풍토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험점수 중심의 경쟁체제 하에서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미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과 학습패턴을 지닌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변화시킨다고 해도 자유학기제를 거치고 난 다음 학기나 학년부턴은 경쟁시스템에 편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기를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지나가는 학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시험중심의 교수-학습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학부모들의 사고방식과 학습방식을 한 학기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에 앞서 학부모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 대안마련

장기적으로는 시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험점수를 우선시하는 경쟁시스템, 입시정책, 사회적 풍토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 학기만 ‘반짝’ 실시하는 자유

학기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핀란드와 같이 전 학년을 통해 시험중심의 교수학습방식과 경쟁체제를 배제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사례공유’를 통한 ‘공감’으로 시험중심의 사고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설득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대화가 늘어나는 등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에 대해 학부모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이의 전반적인 인생에서 당장의 시험점수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대상의 성찰적 학습기회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의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입시정보를 획득하면서 시험중심의 사고방식을 오히려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에 관심을 부추기는 정보제공으로부터 벗어나 자녀의 진정한 행복한 삶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을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습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사적인 영역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학습체험을 제공하여 자신이 지닌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지원방안

(1) 자유학기제와 전체 학기 교육과정의 연계

○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를 향한 가장 큰 회의적 반응은 자유학기제가 “한 학기동안의 즐거운 여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행을 마치면 여행 동안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처럼 자유학기제도 해당 학기가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에 하던 교육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한 학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암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 문제 원인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하면서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교사로서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가 끝난 후에는 고교입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입시준비에 적합한 교사 중심의 전달식, 강의식 수업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했다. 학생들도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동기도 부여되고 자신감도 향상되었지만 그러한 성과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유학기제의 종료 후에는 바로 수동적인 학습자의 모

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교육과정과 연동되지 못한 채 잘라진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 해당 학기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대안 마련

자유학기제가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기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해당 학기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근시안적 관점을 넘어 중학교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주요 변화의 축인 수업방법 개선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학습자들 각자의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는 대안적 교육시스템을 제도화하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유학기제 동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모든 교사가 고민하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추구하는 수업방법 개선이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일시적 과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 출발점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동안의 기본 교과학습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이후의 교과학습 및 학교의 교육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과제수행 방식,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 발표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학습계획의 수립 및 실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새로운 수업방법이 추후의 교육과정 속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입시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사실상,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 의지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입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가 학생들이 전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전체 교육과정으로 녹아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2) 진로체험 활동의 내실화: '직업체험 이벤트'를 넘어 '교육체험' 만들기

○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관공서, 기업체,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직업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직업분야에서 하는 업무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직업분야에서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을 활용한 체험 활동이 일회적이고 단절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 기관 활용을 한 학기 동안 1~2회 이하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어 외부기관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절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원인

진로체험이 대부분 일회적 이벤트처럼 운영됨으로써 교육적 지속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 중 진로체험을 위한 장소 및 강사섭외가 가장 힘들지만 노력 대비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는 확신이 어렵다. 직업체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또들고 놀았어요’, ‘때 두르고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만 하다 왔어요, ‘그냥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는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을 경우 시간낭비나 단편적 이벤트성 활동에 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 기관의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교육활동에 도움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연속적인 프로그램 계획 하에 외부 기관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교육과정 상의 수업과 긴밀히 연계된 체험 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안 마련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체험기관을 발굴/섭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진로 체험 활동의 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양질의 체험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체험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기관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험기관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일단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교육적 열의와 마인드가 없이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체험활동을 기획해나갈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는 기관을 섭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체험기관에서도 진로 체험 제공과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준 우수한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함으로써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한 노하우가 지역사회 전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인적·물적 자원 지원방안

(1) 체험처 구축을 위한 중앙 및 지역협의체 마련: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활성화

○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에서는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의 네 가지 자율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 때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부의 체험터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부 인력의 전문성 개발 및 활용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전문 인력도 활용하고 있다. 외부 인력의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자율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의 수업시수 증가나 이에 따른 수업 준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처가 다양한가’, ‘지역 사회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이 양호한가’의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미흡하거나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진로체험처를 확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요청하거나(약 70%) 교사 개인의 인맥과 노력을 통해 발굴(약 12%)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교육부, 지원센터, 시도 및 지원청을 통하여 체험처를 활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약 10%). 즉, 체험처 활용 시 대부분의 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외부 기관으로 직접 요청을 하거나 교사의 인맥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학교들은 특강(진로 포함),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을 위해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80% 이상), 선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외부 강사를 적극 활용(평균 70% 이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력풀이 잘 구축되어 있음’, ‘외부 강사 활용시 우수한 강사확보가 잘 이루어짐’에 대한 질문에 보통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섭외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강사로 대학(원)생은 강사로 활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원인

그 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의 양적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시도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진로체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단계라 하겠다. 중앙의 지원과 현장 학교 간의 체감도 면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학교에 외부 기관과 MOU 맺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나, 이 역시 학교의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고 심지어 MOU를 맺은 기관이 맺지 않은 기관보다 학교 교육활동의 도움 정도가 낮았다.

교사와 학생이 요구하는 수준의 외부 체험터와 외부 강사 인력풀 구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이 안되는 상황이며, 농어촌의 읍면지역에는 기존의 인프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 등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사실 진로체험 활동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교육 활동으로서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부족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질적 확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대안 마련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능한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체험처를 확대하는 방법은 학교나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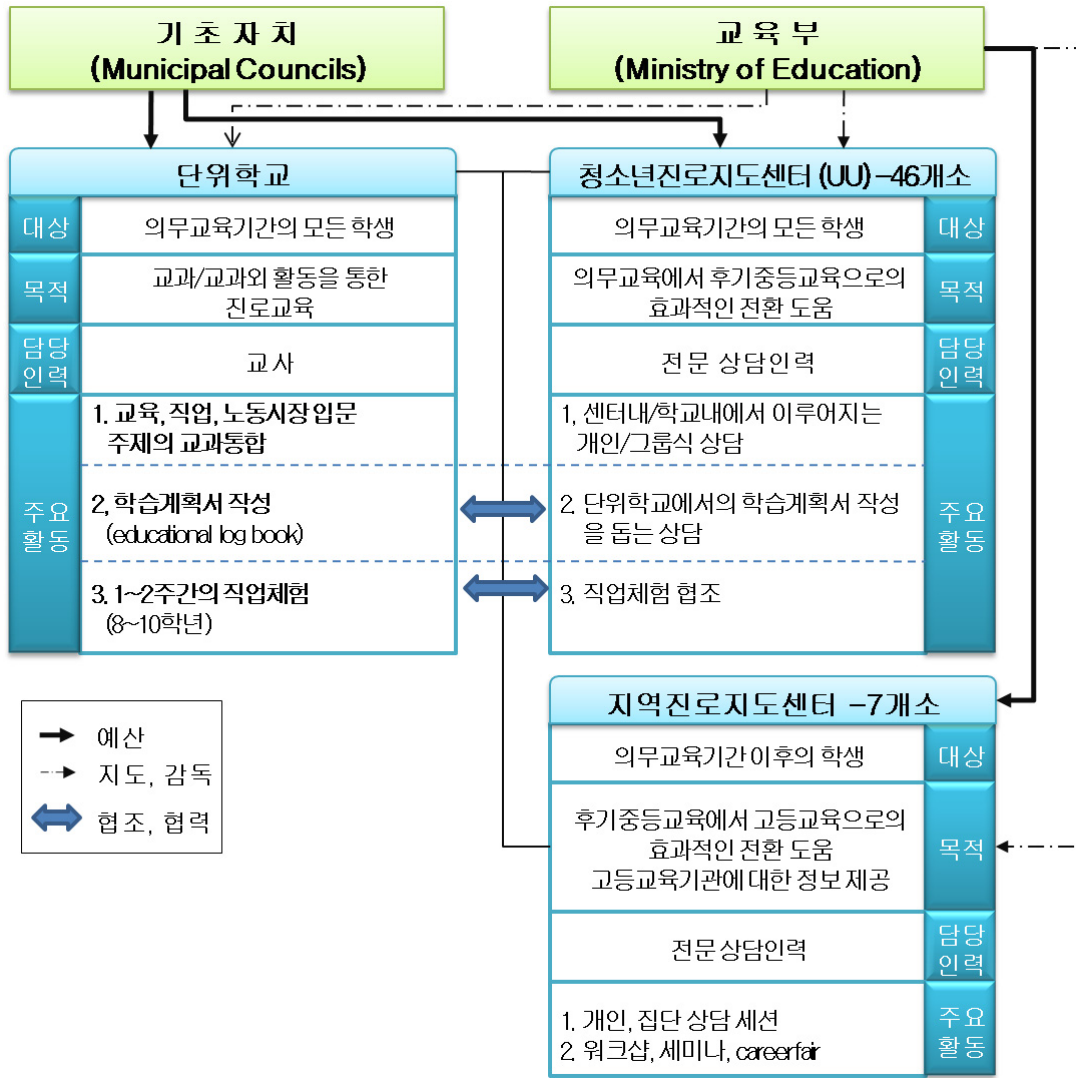
개별의 노력보다는 외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 이외 기관보다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 활동에 도움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협의체 마련을 통한 자유학기·진로 체험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0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1조8)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지역 내 교육관련 의제 설정을 위해 기관장간 협의회를 구축 운영하고, 교육청·자치단체·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센터 구성하여 학생 체험 활동 지원 정책 추진을 한다. 교육부는 광역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를,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진로교육지원단을 실무센터로 하여, 지역기반 학생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체험처 발굴 및 단위학교 연계 지원 노력 추진 중이다.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은 학교의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센터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같이 지원청·지자체가 직접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활용 가능하다. 경기도 이천시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운영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교육부 공교육진흥과, 2014).

또한, 학교 특성에 따른 필요와 요구를 고려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간 연합, 지역사회 간 연합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성되어 지역사회 별로 교육 요구에 맞는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구성원들은 대도시에 비해 체험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처가 다양함’, ‘지역사회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이 양호함’의 질문에 대해 읍면도시, 소규모 학교의 응답이 다른 지역과 규모의 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남). 반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은 다른 지역과 규모의 학교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진로체험과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열악한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긍정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의 사례로는 덴마크의 국가단위 진로교육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2.5. 4)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단위 진로정책 지원기관인 ‘Centre of Expertise for Guidance」를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의 우수 진로지도 사례, 진로지도 서비스 개발, 각종 정보 및 프로그램 조사 및 시범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적으로 진로정보 포털(www.ug.dk)을 구축하여 청소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 등 제공, 각종 진로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진로지도지원센터 ‘YouthGuidanceCenter: UU」을 전국에 46개 운영하며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보 및 교육 제공하고 진로상담 요원(career counsellor)이 단위학교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8)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림 V-1] 덴마크 국가 단위 진로 지원 체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5.4)

(2) 교과별 다양한 수업방법의 발굴 및 공유 체제 지원: 학습공동체(교사연구회) 중심의 지속적 학습 체제 마련

○ 문제 현상

자유학기제에 내재된 핵심적 개혁안 중 하나가 수업방법 개선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지는 탐구 중심의 수업방법이나 팀티칭(team-teaching), 코티칭(co-teaching)으로 몇 개의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자율과정의 새로운 과목에 대한 수업 부담 등을 포함하여 수업 개선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수업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노하우의 부재 속에서 이전의 수업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문제 원인

비록 교사가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실행을 기대할 수 없다. 본 사례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융합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업의 맥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참여형 수업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도 이러한 수업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교사도 이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새로운 수업방법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아직은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교수-학습 관련 연수도 부족하고, 특히 개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이루어지는 연수가 적다. 심지어 일부 실시되는 연수조차 집합식 강의 위주로 진행되어 교사가 교실에서 이를 실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변화를 노력하는 교사들은 연구회 차원에서 함께 이뤄지는 경우 보다는 개별 교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의 힘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학기제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과별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업방법 및 수업자료의 발굴 및 보급, 교사 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향한 실행의지 및 실질적인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대안 마련

교사들의 수업 방법 발굴 및 공유 체제 지원을 위한 학습기회 또한 두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는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연수 내용과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교사들의 인식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교사들은 학생중심의 평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융합형 수업과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시범수업이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사례를 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적으로도 고민이 필요한데, 단시간의 통합적인 연수보다는 같은 학교교사들을 중심으로 장기간 연수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현장실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학습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중심(content-specific)이어야 하고, 교사들의 적극적 활동(active learning), 즉 탐구학습, 멘토링 등과 같은 학교 동료 중심의 협동활동, 그리고 장기간의 연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교사전문성개발 연구자들(대표적: Garet et al., 2001)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

학기제지원센터에서 교과별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이 실시되어 참여하는 교사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지속적 운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중심의 공식적인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나 협의회를 통한 학습기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교사들은 교사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나 책자가 상당히 유익하고, 교사 필요에 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과별 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이를 자료화하고 교사간 협동학습의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지원 하에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를 공모하여 30개팀이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8월까지 활동하였다. 참여한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내 교사들로만 구성된 연구회도 있었고 여러 학교의 교사들로 연결된 연구회, 심지어는 타시도의 교사들로 결성된 연구회도 있었다. 이들은 바쁜 일과 중에서 교사 연구회 활동이 힘들었지만, 교사 연구회가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과 아래로부터의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새로운 모델 발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 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또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좌절과 회의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수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 김아영, 박광배, 반재천, 이규민(2006). **중학생 적성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곽병선(2013).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기조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한국교육학회**, 49(1), 20-30.
- 교육과학기술부(2012.5.4.).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2014.8.29.).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회자료, 100-1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2013).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NYPI 기획세미나(2013.2.21.), 47-6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아영(2008). 한국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S), 111-134.
- 김은정(2013).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용 방안 -가정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5(3), 105-121.
- 김정현(2011). **학교개혁의 동인과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2013).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Y)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23(6), 163-183.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백유선, 이재연(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2013).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 김효정(2011). **교사의 학교 개혁 실행 영향 요인 간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궁지영, 김위정, 김양분(2012).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1~3주기 초·중·고등학교 종합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한국교육심리학회**, 19(3), 699-717.
- 박삼철(2013). **호주IBP 프로젝트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상완(2006). 교사평가에 관한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학교조직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9(1), 261-292.
- 서용희, 주철안(2007). 미국의 성공적인 학교교육혁신사례 비교연구. **비교교육 연구**, 17(3), 191-215.
- 신상명(2004). 교사평가 방안의 합리성 논의.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411-437.
- 신철균(2011). 연구학교의 운영 과정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철균, 장용석(2010). 연구학교 제도의 특성 분석: 연구학교 주제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8(2), 281-305.
- 유길한(2010). 우리나라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사의 정책실천 효과성에 관한 구조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109-137.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기명, 천세영(2011). A초등학교는 왜 변하지 않을까?. *교육행정학연구*, 29(3), 223-247.
- 이기봉(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외국 사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NYPI 기획세미나 자료집, 1-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2013a).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17-52.
- 이지연(2013b). 한국의 자유학기제. 178-179.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제 2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13c).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29-51.
- 정광순(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대비 역량 중심 교과통합수업 설계 방안 제안. *통합교육과정연구*, 7(3), 1-30.
- 정바울, 황영동(2011). 자생적 학교 혁신의 확산 경로와 과정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2), 313-338.
- 지은림, 원효현, 민경석, 손원숙(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김진영, 반상진, 이강주, 이수정, 최현영 (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최영섭, 장상현, 김영철(2013a).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신철균, 박균열(2013b).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포지션 페이퍼 10권 1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이상은, 김병찬, 박소영, 소경희, 홍창남(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준열(2000). 학교 재구조화의 의미 탐색. *교육학연구*, 38(40), 245-257.
-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직업사전) 알고싶은 직업 만나고 싶은 직업**.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33-68.
- 황갑진(2004). 중등교육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11(2), 251-275.
- 황규호, 김경자, 소경희, 홍원표, 온정덕(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교육부.
- Cohen, D. K., Raudenbush, S. W., & Ball, D. L. (2003). Resources, instruction, and research.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2), 119-142.
- Conley, D. T. (1993). *Roadmap to Restructuring: Policies, practices and the emerging visions of schooling*. ERIC Clearinghouse on Educational Management, University of Oregon, 1787 Agate Street, Eugene, OR 97403-5207.
- Elmore, R. F. (1990). *Introduction: On changing the structuring of public schools*. in Elmore, R. F. and Associates (Ed.). *Restructuring schools: The next generation of educational reform*.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Fullan, M. (2000). The return of large-scale reform.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1), 5 - 28.
- Fullan, M. (2001). *Learning in a culture of change*. Jasley-Bass, CA.
- Hargreaves, A. (2009). A decade of educational change and the defining moment of opportunity - an introd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0(2-3), 89-100.
- Holcomb, L., E. (2007). *Students are Stakeholders Too!: Including Every Voice in Authentic High School Reform*. CA: Corwin Press.
- Kingdon, J. W. (2003).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2nd ed.). Longman.
- Lim, Soo-Yin(2003).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in G. Olsen & M. L. Fuller (eds.) Home-school relations: Working successfully with parents and families(2nd ed.). Pearson Education Inc.
- Leithwood, K., Jantzi, D., & Mascal, B. (2002). A framework for research on large-scale reform.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3(1), 7-33.
- McLaughlin, J. 1987). *A Guide to national and state arts education services*. NY: ACA Books.
- McLaughlin, M.W. (1987). Learning from experience: Lessons from policy X-X-IMPLEMENTATION,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9(2), 171-178.
- Poster, C. (1999). *Restructuring: The key to effective school management*. London: Routledge.
- Pressman, J. L., & Wildavsky, A.(1972). *Implementa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fo California Pres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Obtenido el, 14.
- Shahar, T. B. (2007). Happier :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노혜숙 역(2007). **해피어**. 위즈덤하우스.
- Smith, L. (2007). *Schools that Change: Evidence-Based improvement and Effective Change Leadership*. CA: Corwin Press.
- Trenkamp, K. K.(2007). *An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form implementation practices of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ers*. Dissertation obtained from University of Maryland.
- Tubin, D. (2009). Planning an Innovative School How to Reduce the Likelihood of Regression toward the Mean.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37(3), 404-421.

교육부 블로그(2014.4.19.). <http://if-blog.tistory.com/3559>.

동아일보(2013.11.22.). 박근혜대통령 동작중학교 방문 관련 기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인식과 준비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학교 입시 위주로 획일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는 정책적 필요성과 학교 변화에 대한 잠재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제도라는 점에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책 시행 초기단계부터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범위한 설문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세부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요청되는 지원 방안을 교육주체와 학교 유형(연구학교, 희망학교, 일반학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확대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로서 이 연구의 연구 절차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다. 다만,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할만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희망학교의 범주화

이 연구에서는 희망학교를 일반학교와 함께 자유학기제 미운영학교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장과 같이 희망학교는 자유학기제를 2014년 2학기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운영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해와 태도의 측면은 이미 희망학교로 지원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희망학교를 일반학교와 묶어서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2. 설문대상 학생의 학년 분포상 차이

<표 IV-6>에서 보면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설문대상 학생의 학년 분포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학교는 2학년이 83.8%인데 비해서 희망·일반학교는 1학년이 58.0%로 더 많다. 보통 청소년의 경우 학년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사시점 상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진학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교육 경험이 다소 간 다를 수 있다. 이런 조사 대상에서의 차이가 연구학교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학교 운영 결과

자유학기제의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로 연구학교가 다른 희망·일반학교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특히 총점).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해당 세부 항목들이 학생-교사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교사의 전문성, 학생의 자신감 등 직접적 결과보다는 간접적 결과를 상당수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항목에서는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희망·일반학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유학기제의 직접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성 발휘와 학생의 강점(끼) 계발 부분에서는 연구학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종적인 해석에서는 세부 항목 간 질적 차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왜 이런 직접적 성과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파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 응답에서 보면, 학생의 강점(끼)을 계발하고 있지만 학생의 꿈(진로)를 인식하는 데에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 교사들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서 교사의 자율성 발휘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수업의 즐거움이나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전반적인 학교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고려해야하는가 하는 점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4. 연구점수 부여의 효과

연구결과는 대체로 연구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유학기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이런 긍정적 성과가 연구학교 교사에게 연구점수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는 아닌지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런 점이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학교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점수 부여는 교사로 하여금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2016년 이후 중학교에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들이 연구학교의 연구점수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5. 구성원 간 요구사항의 차이

<표 IV-15>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인식의 차이는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 활성화로 나타나지만, 실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교사는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은 평가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향후 자유학기제 추진에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의미를 다양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화하여 여러 교육주체들이 동일한 인식과 목적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정착 방안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회의와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로 요약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번 수립된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정책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도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활동과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자유학기제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험점수 우선의 경쟁 시스템과 입시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며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시험점수 위주의 경쟁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입시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경쟁적 교육이 완화된다면 굳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례공유와 공감을 통한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현실적 필요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성과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질 높은 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이런 경험을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성적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이후 학업성취도나 진로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체계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 토론

박 헌 순 (경기 신길중학교)

1. 토론에 앞서

교육의 기본 목적은 생존과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인류 초기 단계의 교육과 학습은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풍요로운 음식의 조달, 새로운 도구의 활용 등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며,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 사회의 진보라는 목적아래 교육이 도구로 전락하였다. 여기에 국가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늘날의 교육은 기본 목표에 성취와 행복이라는 관념적 요소와 사회적 지위 유지와 개인의 과시(誇示)라는 실질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문명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교육의 본질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생존과 발전 외에 개인의 행복 추구, 사회 질서의 유지, 인류사회의 화합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교육에 요구하는 바가 증가하였으나, 반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잘못된 우리의 교육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의 과시나 사회적 지위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이 아닌 생존과 발전, 미래지향적 사고의 전환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을 가진 교육개혁인 것이다. 기존의 교육개혁은 학교나 교실, 수업이라는 직접적 교육주체에 한정된 것이라면, 자유학기제는 교육주체를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로 확대한 것이며, 개혁 또한 학교만이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미래에 대한 국민적 사회 인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교육을 학교의 문제로만 떠넘기려던 기존의 개혁과는 다른 이유이다.

2.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

신철균 외(2014)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와 과제’는 설문조사와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 학교의 운영 실태 등을 비교적 자세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의 인식 변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체험 인프라 확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와의 차이를 인식한 것 등은 실제로 학교가 안고 있는 변화와 우려를 잘 읽어낸 연구인 것이다.

또한 ‘향후과제 및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나 정책 전문성의 강화, 학부모의 학습체험기회 마련, 자유학기제와 전체 학기의 교육과정 연계, 이벤트가 아닌 교육적 활동이 되어야한다는 진로체험활동의 내실화, 지역협의체의 조직, 교사의 학습공동체 중심의 지속적 학습 체제 마련 등은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경우는 리더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든 교사들의 희망에 의한 것이든 자유학기제를 실행해 봄으로써 얻는 많은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다. 학생들의 학교 인식에 대한 변화 - 말 그대로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 를 볼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매우 높아진 편이다. 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학교의 내적 변화인 교실 수업의 개선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 교과수업 내용의 재구성, 교사들의 전문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역할을 위한 노력 등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이다. 즉, 이러한 변화들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려하던 것만큼 자유학기제의 부정적 측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에 이르면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이나 자유학기제의 형식적 운영, 일부 진보세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집단의 정책적 반대 또는 운영의 방해 등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다. 실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3. 학교에서 보는 자유학기제 문제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실천해야하는 기관이다. 학교를 교육기관이라고 구분하지만 과연 오늘의 학교에서 교육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혼돈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자.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학생들의 급식을 지켜야 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의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반항적인 학생들과 끊임없이 상담해야 하고, 학교에 적대적인 학부모들과 상담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노후한 학교 시설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등등 ... 푸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학교와 교사의 현실이다. 이 중에 수업은 교사의 전체 학교생활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교실 수업을 바꾸라고 말하면 어느 교사가 찬성하겠는가? 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역시 막대한 경제적 투자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교육 현실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일부 학교의 학급

학생 수를 줄여줌으로써 일부는 성공한 듯 착각을 주기도 하지만 투자대비 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최저 수준이다. 그에 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이 거둔 성과는 가히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이끌어낸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증가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장차 학령기의 무학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율활동에서의 교육적 효과도 높아졌다.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올바르게 정착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 핵심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이제 학교에게 학교 본연의 임무만을 주자는 것이다. 학교의 교사는 교육만을 담당할 수 있게,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도 교육 상담만을 할 수 있게 배려해 보자, 급식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업체에 주고, 체험학습의 안전 문제도 교사와 협력 단체(새로운 협력 단체가 요구됨)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떻게 학교가 방과 후 학생들의 책임을 위해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의 역할을 흐려놓는 것을 교육 책임 기관이 제도화 시킬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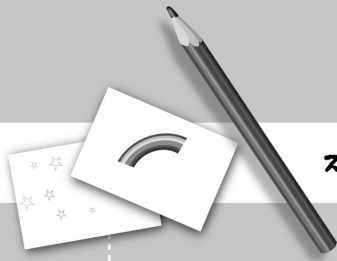
둘째, 우리 사회 교육의 목표가 개인의 사적 능력 과시나 사회적 지위의 유지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활용하여 대기업의 취업 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공무원 채용 방식도 과목 시험 중심에서 사회적 인식제고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미래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된다면 교육은 바뀔 수 있을 듯하다. 학교생활의 행복이 미래 삶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신뢰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이해이다. 이미 발표하신 내용에도 ‘자유학기제 정책의 전문성 함양’이라고 지적하였지만, 학교 관할 교육청에서의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의 교체에 따라 자유학기제 추진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시각의 변화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운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4. 토론을 마치며

정책의 실시는 제도의 개선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변화에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학기제의 정착 여부도 정책의 실천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인프라 부족의 문제, 학부모의 학력 저하 우려 문제, 지역사회의 비판적 시각 등 여러 문제 요소들도 교사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도 바뀔 것이다. 학교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 조직 리더들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지도가 필요하며, 리더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수없이 많은 형식적인 연수나 강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조직의 리더나 교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리더나 교사 모두에게 교육을 담당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효과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발표 2]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 발표자: 장현진·이지연·윤수린·이윤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 3]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서우석(한국진로교육학회)

[토론 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재고
배경자(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¹⁾

장현진·이지연·윤수린·이윤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서,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교육을 통해 진로탐색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나 성적 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지나친 내용학적 지식에 편중된 학습, 학생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수능성적 만으로 결정되는 대학 및 전공 결정 등 우리 교육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위해 도입되었다.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앞으로 사회 및 직업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성, 사회성, 직업의식 등을 함양하며, 각종 활동과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에 관련된 진로탐색 및 삶과 연관된 수업을 함으로써 보다 의욕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고민과 취지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국외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미 십년 이상이 되어 상당히 인정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도 추진 과정상의 우려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적 자체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극복하여 왔다. 우리는 이제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및 확산의 시기에 있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다양한 성공 요인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현장의 모습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이 원고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년도 기본과제서 장현진 박사(연구책임) 등이 진행 중인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이번 세미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최종보고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진로탐색 증진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 및 장애 요인을 탐색하고,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성공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며, 향후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유학기제 정책, 선행연구 및 관련 해외 사례 고찰
- 둘째,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및 운영 현황 분석
- 셋째,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탐색
- 넷째,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도출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 내용 분석, 심층그룹인터뷰(FGI), 현장방문과 인터뷰, 델파이(Delphi), 전문가협의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다.

절 차	내 용	방 법
자유학기제 정책,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및 연관 정책 고찰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개념 탐색 ○ 국내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증진 선행연구 고찰 ○ 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고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참여 학교 현황 및 운영 추이 파악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분석 - 2013년 2학기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분석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 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탐색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장애요인 및 문제점 탐색 ○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FGI(총 4회) ○ 현장방문과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 요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협의회(1차)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파이(총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향 설정 ○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전략 및 세부 방안 도출 ○ 정책적 제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 전문가 협의회(2차)

[그림 I-1] 연구 추진 절차, 내용 및 방법

문헌 고찰은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로탐색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취지와 핵심 내용,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여타의 정책 추진 현황, 국내의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활성화 관련 요인 탐색, 해외 자유학기제 관련 사례의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내용 분석은 서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진로탐색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13년 2학기에 운영된 42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결과 보고서’를 내용 분석하였다.

심층그룹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FGI 진행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학교 교사 대상 2회, 협업기관 담당자 1회, 교육청 담당자 1회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 패널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이메일 송부하고, 내용을 받아 진행하여 효율성을 기하였다.

<표 I -1> FGI 포커스 그룹 구성 및 진행 일정

구분	포커스 그룹	일정 및 대상
연구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담당 교사] - 진로탐색에 보다 초점을 두는 학교 중심 - 학교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정: 2014년 4월 9일(1차), 5월 12일(2차) ○대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담당 교사 6인(1차), 5인(2차)
협업기관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담당자] - 진로탐색 연관성 높은 기관 중심 - 연구소를 제외한 실무적인 진로체험 지원 기관 중심	○일정: 2014년 6월 10일 ○대상: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담당자 5인(3차)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담당자] - 선도교육지원청 가운데 진로탐색 지원이 활발한 교육청 중심 -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고른 선정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정: 2014년 6월 18일 ○대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7인(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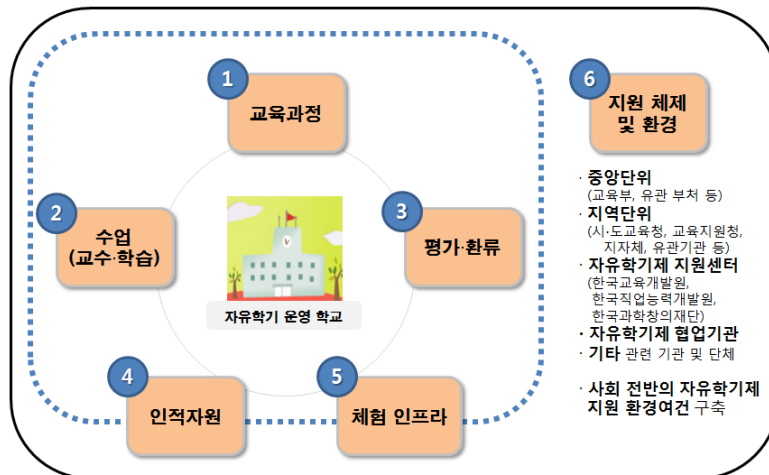
현장방문과 인터뷰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학교 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성공 및 장애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Delphi)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과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는 패널구성, 1차 질문지 개발, 1차 조사 및 분석, 2차 질문지 개발, 2차 조사 및 분석을 거쳐 이루어졌다.

<표 I -2> 델파이 패널 구성

구분	패널	인원
학교 교사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교사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안배	6
학계 전문가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관련 교수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관련 연구원	10
교육청 전문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담당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자	6
정책 담당자	○자유학기제 담당 공무원 ○진로교육 담당 공무원	3
계		25

구체적인 질문 영역은 1)교육과정, 2)수업(교수·학습), 3)평가 및 환류, 4)인적자원, 5)체험 인프라, 6)지원 체제 및 환경이다. 이 영역은 학생의 진로탐색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 지원되어야 할 주요 장면으로서 연구진 논의를 통해 구안되었다. 여기서 인적자원과 체험 인프라는 학교와 외부 환경이 함께 교차되는 부분이어 경계선에 위치하였다.



[그림 I -2] 델파이 질문 영역의 구성 체계도

전문가협의회는 이 연구의 추진 단계마다 도출된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도 및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관계자 등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이 연구의 진행 결과를 검토 받았다.

※ 이 원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유학기제 선행연구 및 운영 현황 분석의 시사점, 성공 및 장애요인 도출 항목 및 시사점, 델파이 조사 결과, 그리고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II. 자유학기제 선행연구 및 운영 현황 분석의 시사점

1. 자유학기제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의 시사점

첫째,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 취지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하기 위한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 확대이다. 자유학기제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의 체계성을 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는 교육의 궁극적 대상인 학생들의 진로탐색 증진을 우선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개선 및 학생 진로탐색 활동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진로탐색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까지 넓혀서 성공 요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하되, 다만, 진로탐색의 주요 부분일 수 있는 진로수업, 진로활동, 진로체험 등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진로탐색 학년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자유 학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었지만, 자유 학기제의 도입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학기제와 같은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에 공감한다. 학교 교육 전반을 개혁하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자유학기제가 담이거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준비를 하도록 독려하고, 학생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스킬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과 기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인 중1(13세)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 단순한 진로탐색 뿐 아니라 종합적인 소프트스킬 개발을 위해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로탐색 활동 내실화를 위해 지역자원과 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뿐 아니라 운영 체계, 인력, 예산 등 제반 지원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현황 분석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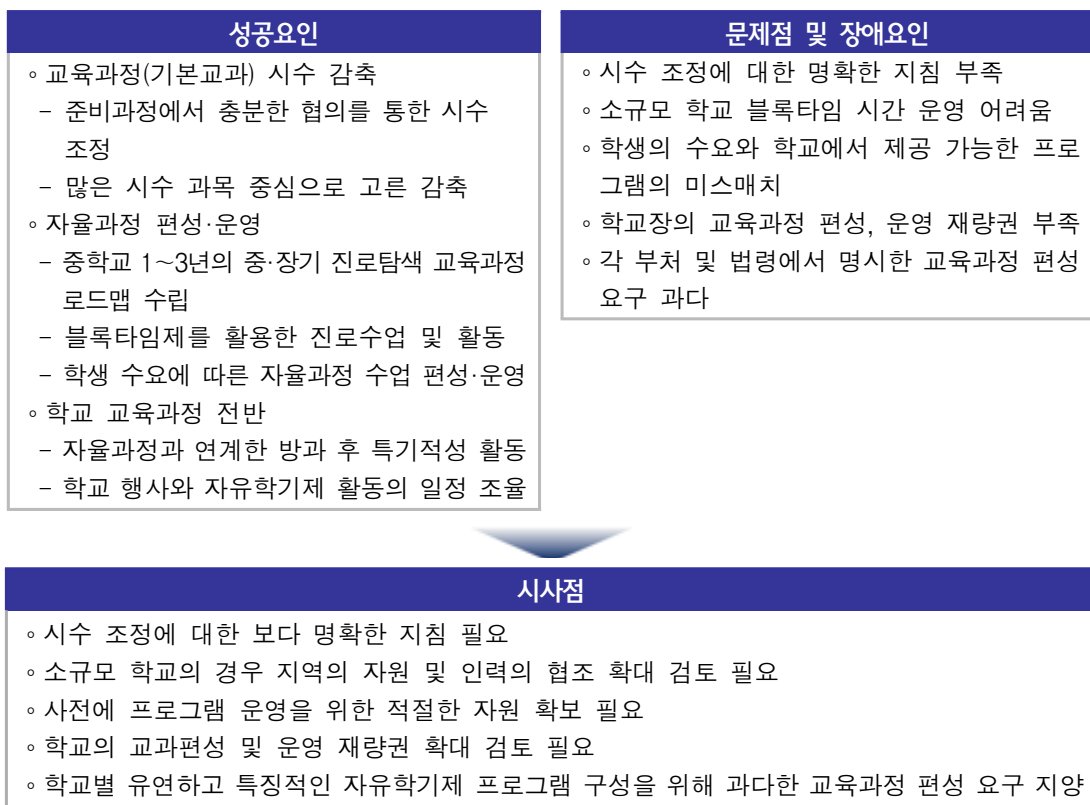
진로탐색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 학기를 운영하였고, 진로탐색과 관련한 내용이 강조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부족한 인프라와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및 환류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제공되었던 국가의 지침이 없고 학교

자율을 강조하다보니 학교의 어려움이 있었다. 보다 명료한 방향과 학교의 자율성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보다 명료한 모델 및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이나 체험 인프라 측면에서는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교사, 지원 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편차, 학교 규모에 따른 가용 인력 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어려움의 정도가 달랐다. 수업 및 교수·학습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별로 많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담당 교사의 역량이나 의식에 많이 의존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투입과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Ⅲ.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요인

1. 교육과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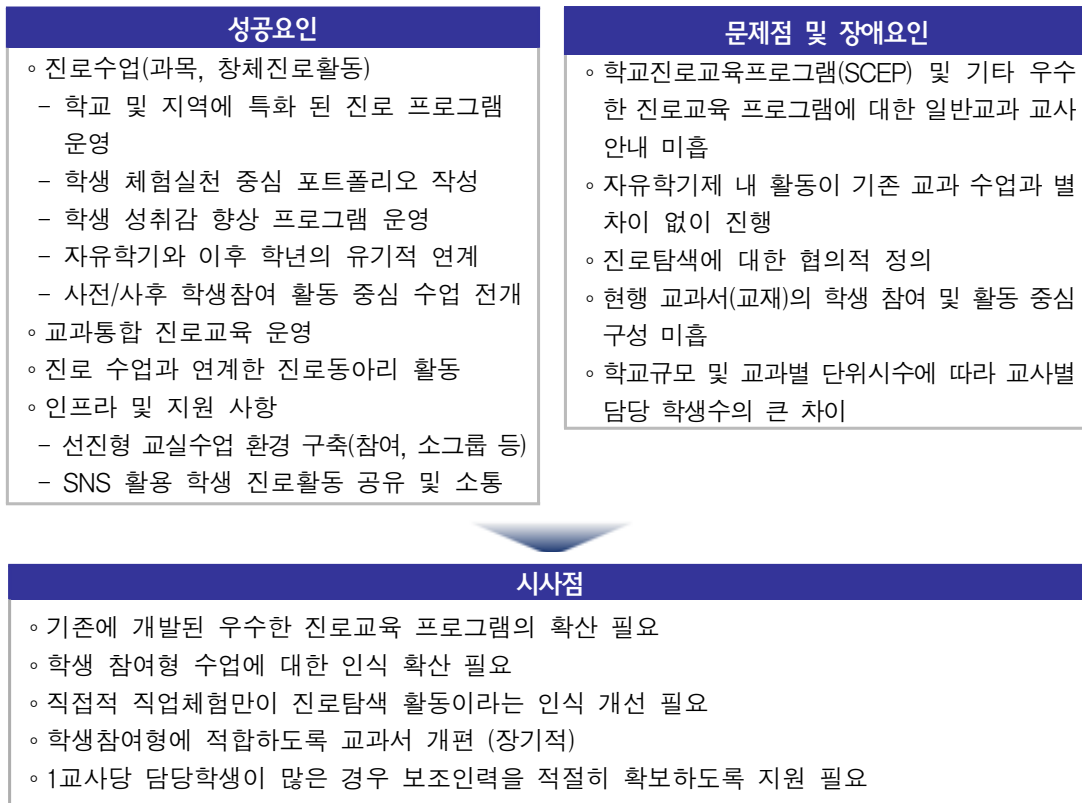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교육과정 편성·운영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2. 수업(교수·학습) 영역

수업(교수·학습)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2] 수업(교수·학습)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3. 평가 및 환류 영역

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진로탐색 평가·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성취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취감 고취 ◦ 학교 자체 자유학기제 운영 진단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활동의 체계적 기록 지침 및 담당자 역할 분배 모호 ◦ 자유학기 학년과 상급 학년의 평가 연계 부족

- 교과별로 지나치게 잦은 형성평가 시행 문제
- 자유학기제 운영 자체 평가 시 설문지 활용 조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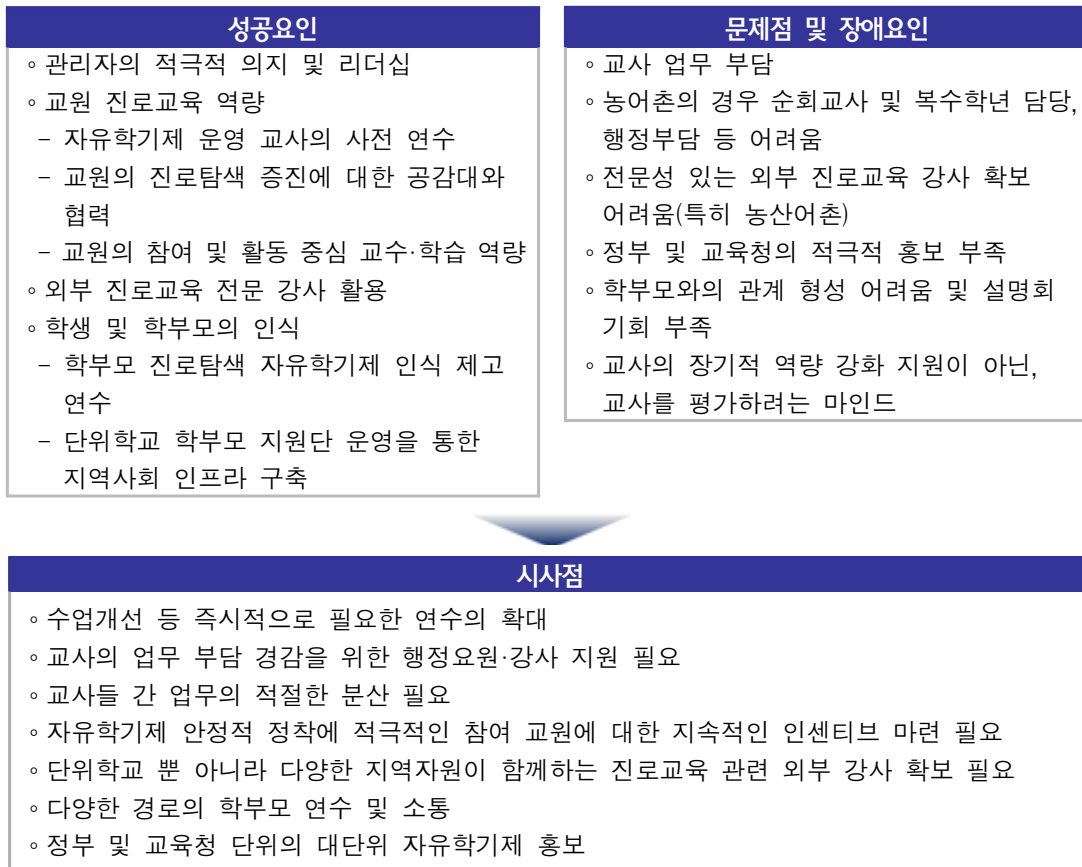
시사점

- 진로탐색 활동의 기록 및 담당자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 필요
- 자유학기제에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급학년과의 평가체계 연계 필요
- 교과별 잦은 형성평가 지양
- 설문지 평가의 평면적 해석 지양 및 다양한 평가도구 개발·활용

[그림 III-3] 평가 및 환류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4. 인적자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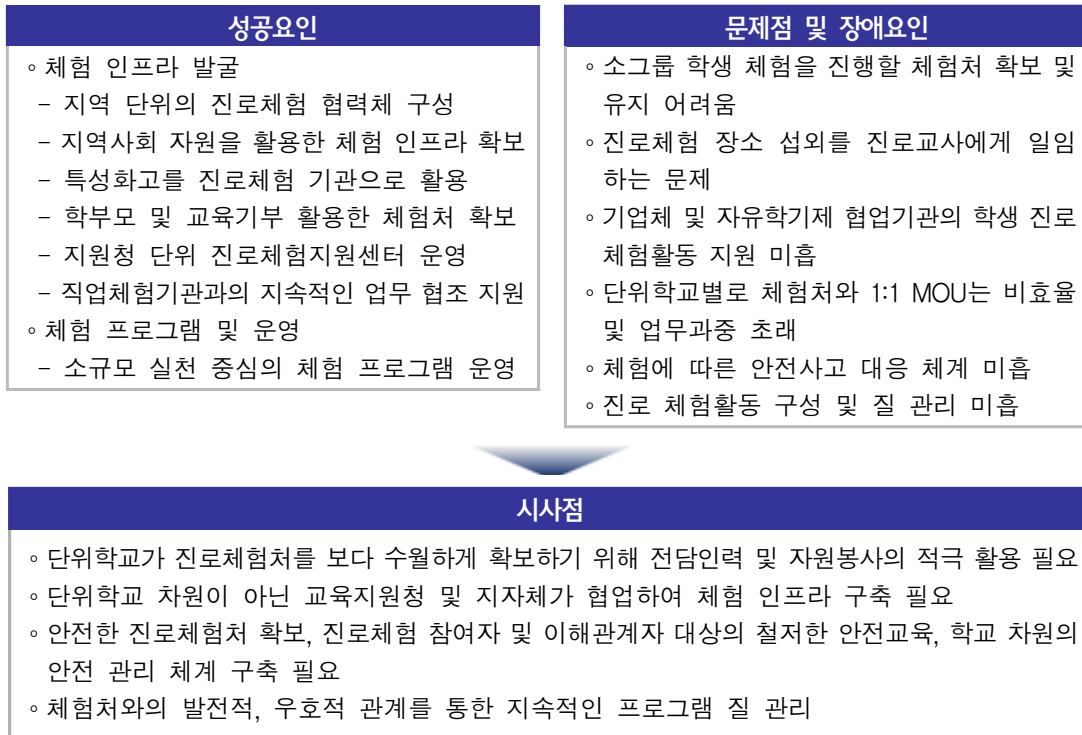
인적자원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4] 인적자원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5. 체험 인프라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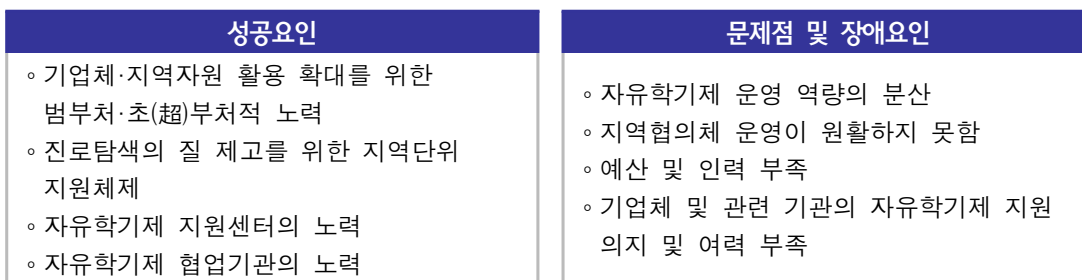
체험 인프라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5] 체험 인프라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6. 지원 체제 및 환경 영역

지원 체제 및 환경 측면에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사점

- 자유학기제 운영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요소를 파악,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 지역협의체 구축 추진에 대한 지침을 보급·확산
-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현실화
- 기업 및 관련 기관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학교와 윈윈하는 방안 모색

[그림 III-6] 지원 체제 및 환경 영역의 성공요인, 장애요인 및 시사점

IV.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학생의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단위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장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①교육과정 편성·운영, ②수업(교수·학습), ③평가 및 환류, ④인적자원(교육공동체), ⑤체험 인프라, ⑥진로탐색 지원 체제 및 환경의 여섯 가지 영역의 세부 질문들이다.

델파이 조사의 응답자 전문가 패널은 25인의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문헌고찰과 FGI 등을 통하여 구성된 방안으로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제1차와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어 조사를 완료하였다. 제1차 조사에서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 및 비구조화된 질문을 함께 사용하였고, 제2차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에 중요도와 시급도를 함께 체크하도록 하여 보다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최종적인 델파이 조사 결과(제2차 결과)에 대하여 각 질문 영역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문가 패널의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를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 영역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문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모든 문항의 CVR 값이 0.68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를 특정 학기로 통일(문항 11번)하는 것은 내용 일치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중요도 값은 모두 3.8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1)학교급 및 학년별 학생 진로탐색 로드맵 수립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7)교과별 시수 비중을 고려한 고른 기본교과 시수 감축, (10)학생중심의 진로탐색 및 체험 동아리 활성화 지원, (9)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증대, (2)자유학기는 진로탐색에 집중하는 학기로 정체성 확립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3.4점 이상으로 2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1)학교급 및 학년별 학생 진로탐색 로드맵 수립이었으며, 다음으로는 (7)교과별 시수 비중을 고려한 고른 기본교과 시수 감축, (10)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및 체험 동아리 활성화 지원, (9)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증대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시급도가 높아 1-2년 이내에 지원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이다.

<표 IV-1> 교육과정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학교급 및 학년별 학생 진로탐색 로드맵 수립	4.7	1	1.00	4.4	1
2	자유학기는 진로탐색에 집중하는 학기로 정체성 확립	4.2	4	0.92	4.0	5
3	진로탐색을 위한 블록타임 교육과정 활성화	3.7	11	0.92	3.4	10
4	방과 후 활동을 흥미·적성 과정으로 운영	3.9	7	0.84	3.6	8
5	토요일은 학교 자율에 따라 심화된 학생 자기주도 활동	3.8	9	0.76	3.4	10
6	'(가칭) 진로체험 집중 주간' 편성·운영 활성화	3.9	7	0.92	3.6	8
7	교과별 시수 비중을 고려한 고른 기본교과 시수 감축	4.5	2	1.00	4.3	2
8	'자율과정'에 대한 최소 이수시간 설정	4.0	6	1.00	4.0	5
9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증대	4.2	4	1.00	4.1	4
10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및 체험 동아리 활성화 지원	4.4	3	0.92	4.2	3
11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를 특정 학기로 통일	3.8	9	0.68	3.7	7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2. 수업(교수·학습) 영역

학생 진로탐색 수업(교수·학습)에 관한 문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모든 문항의 CVR 값이 0.84점 이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중요도 값은 모두 4.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6)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 (7)생활 및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수업방법 변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국가-교육청-단위학교별 역할분담으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활성화, (5)기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강화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3.8점 이상으로 대체로 1-2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5)기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강화이었다. 다음으로는 (6)일반교과 내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 (1)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단계별 워크북으로 심화 개발, (2)국가-교육청-단위학교 역할분담으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활성화, (3)중앙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우수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유, (7)교실 밖 지역현장으로 확장되는 수업 방법의 대대적 변화 추구 등의 순이었다.

<표 IV-2> 수업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진로와 직업』 교과서 연계 워크북 개발(심화 수준 3단계)	4.0	7	0.92	4.2	3
2	중앙-교육청-단위학교 역할 분담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4.5	3	1.00	4.2	3
3	중앙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콘텐츠 공유 및 확산	4.4	5	1.00	4.2	3
4	우수 사례 발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사 연구회 및 연구대회	4.0	7	0.92	3.8	8
5	기 개발된 프로그램, 교재, 매뉴얼 등의 보급 및 관련 연수 강화	4.5	3	1.00	4.5	1
6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	4.6	1	1.00	4.3	2
7	교실 밖 지역현장으로 확장되는 수업 방법의 대대적 변화 추구	4.6	1	0.84	4.2	3
8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4.3	6	1.00	4.0	7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3. 평가 및 환류 영역

진로탐색 중심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모든 문항의 CVR 값이 0.76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중요도 값은 모두 3.8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1)학생이 직접 진로탐색 활동 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4)학생 진로지도에 자유학기 내 진로탐색 활동 기록 활용 지원, (7)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방법 개발 및 관련 내용 교원 연수이었으며, 다음으로는 (2)일반교과 관련 진로탐색 활동의 NEIS 작성 매뉴얼 개발·안내, (3)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작성 주체(역할)의 명확화(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부 기록 혼란 방지 차원)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3.6점 이상으로 대체로 2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3)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작성 주체(역할)의 명확화(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부 기록 혼란 방지 차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7)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방법 개발 및 관련 내용 교원 연수, (1)학생이 직접 진로탐색 활동 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시급도가 높아 대체로 1-2년 이내에 지원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이다.

<표 IV-3> 평가 및 환류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학생이 직접 진로탐색 활동 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4.2	1	1.00	4.0	3
2	일반교과 관련 진로탐색 활동의 NEIS 작성 매뉴얼 개발·안내	4.1	4	0.84	3.8	4
3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작성 주체(역할)의 명확화 -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부 기록 혼란 방지 차원	4.1	4	1.00	4.4	1
4	학생 진로지도에 자유학기 내 진로탐색 활동 기록 활용 지원	4.2	1	0.92	3.8	4
5	에듀팍을 활용한 학생의 자율적인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작성·관리	3.8	7	0.76	3.6	7
6	교육청 단위의 자유학기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4.0	6	1.00	3.7	6
7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방법 개발 및 관련 내용 교원 연수	4.2	1	0.92	4.2	2

-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4. 인적자원 영역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 관련 문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모든 문항의 CVR 값이 0.92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중요도 값은 모두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1)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 대상 진로탐색 역량강화 연수, 다음으로는 (2)인식 제고를 위한 모든 중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제공, (3)예비교원들의 학생 진로탐색 지도 역량 강화, (5)교원 간의 고른 역할 분담으로 특정 교사 편중 방지, (7)교육지원청 단위로 진로탐색 지원 인력자원 확보·관리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3.8점 이상으로 대체로 1-2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2)인식 제고를 위한 모든 중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제공이었으며, 다음으로는 (1)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 대상 진로탐색 역량강화 연수, (5)교원 간의 고른 역할 분담으로 특정 교사 편중 방지, (6)중학교 전체 교원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 제공, (7)교육지원청 단위로 진로탐색 지원 인력자원 확보·관리 등의 순이었다.

<표 IV-4> 인적자원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 대상 진로탐색 역량강화 연수	4.7	1	1.00	4.5	2
2	인식 제고를 위한 모든 중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제공	4.6	2	1.00	4.6	1
3	예비교원들의 학생 진로탐색 지도 역량 강화	4.4	3	1.00	3.8	10
4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 강화	4.3	6	0.92	4.2	6
5	교원 간의 고른 역할 분담으로 특정 교사 편중 방지	4.4	3	1.00	4.4	3
6	중학교 전체 교원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 제공	4.2	7	0.92	4.3	4
7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로탐색 지원 인력자원 확보·관리	4.4	3	1.00	4.3	4
8	예비교원 및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 봉사활동 제도화	4.1	10	0.92	3.8	10
9	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 활용비 및 관리 강화	4.0	11	0.92	4.2	6
10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및 활용 강화 (교육청·학교 단위)	4.2	7	1.00	4.0	9
11	학생의 진로탐색 성과에 대한 공모전 및 대회 활성화	4.2	7	0.92	4.2	6

-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5. 체험 인프라 영역

진로탐색 중심의 체험 인프라 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항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문항의 CVR 값이 0.92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점 지역단위로 모의 진로체험 시설을 설립(문항 8번)하는 것은 내용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중요도 값은 모두 3.6점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11)안전한 진로 체험을 위해 사전에 정기·상시적인 안전교육 강화, (12)자유학기 진로체험 ‘사전-본-사후 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다음으로는 (2)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협약을 통한 체험 인프라 지원 강화, (4)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 (5)기업, 단체, 소상공인 등의 진로체험 공급·지원 확대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대체적으로 2.9점 이상으로 2-3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12)자유학기 진로체험 ‘사전-본-사후 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이었다. 다음으로는 (11)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해 사전에 정기·상시적인 안전교육 강화, (4)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 (2)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협약을 통한 체험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시급도가 높아 1-2년 이내에 지원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이다.

<표 IV-5> 체험 인프라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진로체험 인프라 확보 관련 중앙-지역-학교간 역할 구명 필요	4.3	10	0.92	4.2	9
2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협약을 통한 체험 인프라 지원 강화	4.6	3	1.00	4.4	4
3	교육지원청 단위‘진로체험지원센터(가칭)’ 설치, 혹은 최소 담당인력·예산으로 체험처 발굴·매칭 지원 강화	4.4	8	1.00	4.2	9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	4.6	3	1.00	4.6	3
5	기업, 단체, 소상공인 등의 진로체험 공급·지원 확대	4.6	3	1.00	4.3	5
6	지역단위 학생 진로체험 지원‘사회적 기업’육성·활용 강화	4.3	10	1.00	3.7	17
7	간접·모의 진로체험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4.3	10	1.00	4.2	9
8	거점 지역단위로 모의 진로체험 시설 설립·운영	3.6	19	0.60	2.9	19
9	진로체험 매칭 사이트를 윈스톱으로 통합	4.4	8	1.00	4.3	5
10	단위 학교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인력 활용 강화	4.3	10	1.00	4.3	5
11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해 사전에 정기·상시적인 안전교육 강화	4.7	1	1.00	4.7	2
12	자유학기 진로체험 ‘사전-본-사후 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4.7	1	1.00	4.8	1
13	진로교육전문기관의 자유학기제 체험 기관 및 기업 지원 - 진로체험 관련 연수,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지원	4.5	6	1.00	4.3	5
14	농산어촌 소규모 인접 학교 간 진로체험 공동 운영 활성화	4.2	14	0.92	4.1	14
15	학교-체험기관 간의 내실있는 협약을 위한 MOU 체계화 지침·방안 마련	4.2	14	1.00	4.1	14
16	가정 내 진로체험 출석 및 활동 인정 제도화 -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체험 활동 기간에 한정	3.8	18	1.00	3.6	18
17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 및 지급 방법 개선	4.2	14	1.00	4.2	9
18	학교 단체행사(소풍, 수련회 등)를 학생 진로체험으로 연계 운영	4.0	17	1.00	3.9	16
19	체험 인프라 부족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성화	4.5	6	1.00	4.2	9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6. 지원 체제 및 환경 영역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원 체제 및 환경 구축 방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최종 결과는 모든 문항의 CVR 값이 0.76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 있어 매우 지원이 필요한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중요도 값은 모두 4.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3)기업의 교육 파트너십 문화 조성·확산(기업의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호혜성 홍보), 다음으로는 (2)대국민 홍보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체험지원 사회·기부문화 조성, (1)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단계적인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홍보, (10)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환경여건 구축 등의 순이었다.

시급도 값은 대체적으로 3.2점 이상으로 2년 이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었다. 가장 시급도가 높은 항목은 (1)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단계적인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홍보이었다. 다음으로는 (2)대국민 홍보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체험지원 사회·기부문화 조성, (3)기업의 교육 파트너십 문화 조성·확산(기업의 학교(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호혜성 홍보), (5)초등·고등학교 교원 대상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활동 안내 확대, (7)자유학기제 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8)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여건 및 지원 강화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시급도가 높아 1-2년 이내에 지원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이다.

〈표 IV-6〉 지원 체제 및 환경 영역의 활성화 방안 평정결과(중요도, 시급도)

	활성화 방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순위	CVR	평균	순위
1	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단계적인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홍보	4.5	3	1.00	4.5	1
2	대국민 홍보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체험지원 사회·기부문화 조성	4.6	2	1.00	4.4	2
3	기업의 교육 파트너십 문화 조성·확산 - 기업의 학교(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호혜성 홍보	4.8	1	1.00	4.3	3
4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에 '교육지원' 추가, 혹은 사회공헌활동 지표 활용 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장려	4.1	9	0.92	4.1	7
5	초등·고등학교 교원 대상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활동 안내 확대	4.2	7	0.92	4.2	4
6	중앙부처·교육청의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지원 조직(인력) 통합	4.1	9	1.00	3.9	8
7	자유학기제 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4.3	6	1.00	4.2	4
8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여건 및 지원 강화	4.2	7	0.92	4.2	4
9	수능성적위주의 입시제도 개편	4.0	11	0.76	3.2	11
10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여건 구축	4.5	3	1.00	3.6	10
11	지역사회 진로탐색·학습공동체 구축 강화	4.4	5	1.00	3.8	9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최종 결과임

2) 활성화 방안은 질문지의 내용을 압축하여 제시(원래 질문지는 부록3 참조)

3) CVR 값은 조사결과의 내용타당도 확인 기준 값임(0.37이상은 양호로 판단 가능)

V.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성에 따라 구안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은 거쳐 제시되었다.

- 첫째,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견인
-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학교교육 실현
- 셋째, 관계자와 기관(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학기제 지원
- 넷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 다섯째, 학교에서 바라본 자유학기제 운영 장면에 따른 방안 제시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영역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탐색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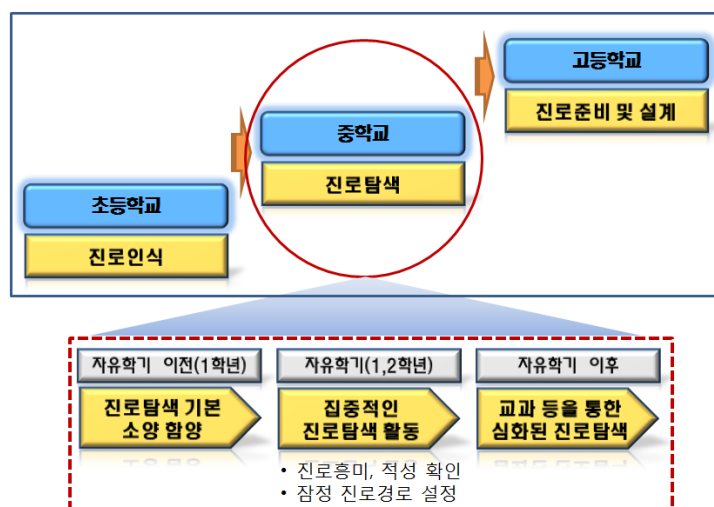
‘진로탐색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은, 1)학교급 및 학년별 진로탐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유학기는 진로탐색에 집중하도록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2)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서 블록 타임제, (가칭)진로체험 집중주간 등 새로운 방식을 개발 및 도입하며, 3)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동아리, 방과후활동, 토요 심화과정 등을 지원하며, 4)학교에서는 모든 교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과정 시수 조정, 5)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에 단위학교 재량권을 증배하고, 자율 과정의 최소이수 시간을 명시하는 등 개편이 요구된다.

가. 진로탐색 로드맵 기반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정체성 확립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탐색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및 초·중등 교육과정 내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갖는 진로탐색 관점의 정체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는 전혀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있어서도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탐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별 및 중학교의 1~3학년에 대한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국가 및 학교 단위로 수립하고, 자유학기가 학생 진로탐색에서 갖는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진로인식 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 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 및 설계 단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학교 내에서도 1학년은 진로탐색을 위한 기본적인 진로교육 소양을

함양하는 단계, 자유학기 혹은 2학년은 집중적인 진로탐색의 단계, 그리고 3학년은 잠정적인 진로경로에 대하여 관련 교과나 활동들을 통해 보다 심화된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림 V-1] 학교급별 및 자유학기 시기의 진로탐색 로드맵 예시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진로교육 목표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독려하고, 학교급별 혹은 학생 발달 단계별로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진로탐색 활동에 대해서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도 중학교 입학 초기 단계에 기본적인 진로소양을 함양하고, 자유학기 동안에는 보다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사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자기이해에 기반한 진로탐색 기초 학기로 운영
- 2학기는 자유학기로서 진로탐색 집중 학기로 운영
- 중학교 1학년 시기 및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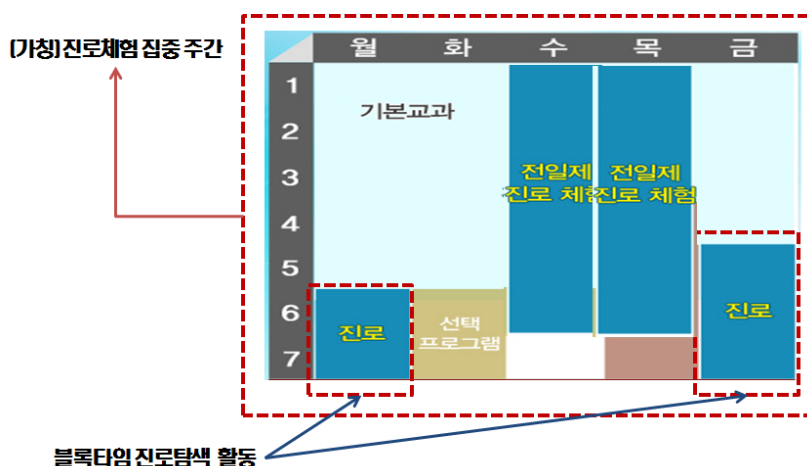
아울러 자유학기에 이루어진 집중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원하는 진로가 잠정적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보다 심화하여 확인해 보고, 관련된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생의 교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선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율과정의 진로탐색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활용 강화

진로탐색 활동의 특성상 학생의 활동중심 수업, 진로활동실 및 외부로의 이동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각종 활동 중심의 수업이 학생 진로탐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의 1차시 45분 단위의 수업으로는 효과적인 진로탐색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수업 내용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는 진로수업 뿐 아니라 예술, 체육 및 각종 선택 특기·적성 활동 또한 2~3차시의 연속형 수업이나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방법의 개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에 학생 진로탐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진로탐색 수업을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편성·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시범 학교 운영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아왔고 앞으로 전면 시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블록타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2) (가칭)진로체험 집중 주간 편성·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V-2] (가칭)진로체험집중주간 및 블록타임 진로활동 모식도(예시)

(1)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블록타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블록타임제(Block time)란 기존의 중학교 45분 단위수업을 2~3시간 연속 혹은 교과내용과 수업방법에 따라 70분, 90분 등으로 편성함으로써 수업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근 들어 다양한 활동중심의 교과나 창의적인 수업 방식으로서 그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 진로탐색 활동 수업의 경우에도 학생의 활동, 토론,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학급 교실에서 뿐 아니라 진로활동실이나 외부 등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타임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다. 실제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의 경험을 볼 때 여러 학교에서 블록타임제로 진로탐색 활동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한 예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인 00중학교의 경우에도 블록타임 진로탐색 수업 운영으로 효과적인 학생 진로탐색 증진이 가능하였다.

다만,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담당교사 수 자체가 부족하고, 순회교사를 운영하거나, 일부 교사는 몇 개 학년의 수업을 맡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블록타임제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블록타임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운영 여건이 적합한 학교에 적용하거나, 혹은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가칭) 진로체험 집중 주간 편성·운영

“(가칭)진로체험 집중 주간”이란 단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 동안에 특정 주간을 선정하여 하루 전일제 혹은 2~5일, 혹은 필요에 따라서 2~3주 동안의 집중적인 진로체험 활동을 시행하는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을 의미한다. 학생 진로탐색 활동 가운데 직업 현장이나 자신의 관심 진로 분야 학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거나, 각종 모의 직업체험 기관을 방문하여 직업체험 활동을 하거나, 혹은 교내에서 담당교사 혹은 외부 강사가 와서 각종 진로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주간을 교육과정상에 편성하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자유학기 시범학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동안 시행하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폐지되면서 이 기간을 집중적인 전일제 혹은 체험 주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물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자 입장에서는 쉽게 도입 가능한 방안이겠지만, 중학교 모든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학교별 진로체험 기간의 중복으로 인한 체험처 확보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이 특정한 시기에 몰려서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쉽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이러한 “(가칭) 진로체험 집중 주간”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조율을 통해 관내 학교별 집중 체험 기간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기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진로체험 집중 주간”은 단위학교에서 학생 체험활동의 운영 효과성이나 편의성의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에 시행할 진로탐색 활동 전체를 특정 기간에만 몰아서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과거의 방식대로 교과 수업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과정 운영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 교육과정 운영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해진 정규 수업 시간에만 국한된 활동이 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즉, 정규 진로탐색 수업 외에도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진로탐색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규 수업이 아니라 오히려 번외의 시간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되고 보다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학생 중심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은 정규 진로탐색 수업 외에도 학교 교육과정 내의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시간으로서 현행 교육과정 편제에서 학교 내 활동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1)학생 중심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 2)방과 후 활동을

자율과정과 연관된 흥미·적성 과정으로 운영, 3)토요 활동을 자기주도적인 학생 진로탐색 심화 과정으로 운영 등이 가능하다.



[그림 V-3]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 교육과정 운영(예시)

(1)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체험 동아리 활성화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및 체험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탐색 및 체험 활동에 초점을 두는 동아리를 활성화 하자는 의미이다. 학생의 진로경로 수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진로탐색 및 체험 동아리를 만들고, 이러한 동아리 단위로 보다 실질적이고 학생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비용 지원, 담당 교사를 통한 코칭, 외부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원은 단위학교 자체적인 지원도 필요할 수 있지만, 동아리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자신들이 관심 있는 직업인도 직접 섭외하고 진행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담당교사는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초기 단계에는 바람직한 사전, 본, 사후 단계의 교육이나 코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학생 자율적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역량 개발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2) 방과 후 활동을 학생 흥미·적성 과정으로 운영

방과 후 활동은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만약 학교 내에서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학생의 자율과정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연관된 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과정과 연관된 심화과정이나 특별과정 형태로 운영된다면 자유학기가 일정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이 아니라 온전히 한 학기 동안 보다 집중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한 시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요일은 학생 자기주도활동이 장려된 심화과정으로 운영

토요일은 학교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토요일 등교가 시행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심화과정 형태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토요일이나 주말이 학생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보다 집중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의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소그룹 일터체험 활동 등 각종 심화된 진로탐색 과정으로 운영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 운영의 경우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가급적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나 교사들을 위한 운영 요령이나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 모든 교원의 공감대에 기반 한 교육과정 시수 조정

자유학기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 동안 오전의 기본교과(공통과정)와 오후의 자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교과 시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시수의 조정은 교원의 담당과목 시수 증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원의 문제로 치부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그 동안 자유학기 운영 학교에서의 시수감축 경향을 보면, 특정 과목(도덕, 한문, 기술·가정, 음악·미술 등)의 시수가 감축 혹은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으며, 이러한 교과의 교사는 자율과정에서 해당 시수 만큼의 비전공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이는 해당 교과 교사의 불만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전체 운영에 있어 불합리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원의 공감대와 이해에 기반 한 시수조정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시수감축에 있어서는 기본교과 중에서 시수단위가 보다 많이 배정된 과목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과목까지를 시수단위 크기를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어, 수학, 영어 등 배정된 시수 자체가 많은 과목들이 보다 더 많은 시수가 감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교원 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덜하고, 자율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먼저, 자유학기가 이루어지는 학기의 학년 교사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과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교과별 시수 비중을 고려한 고른 시수 감축이 요구됨을 알릴 필요가 있다. 혹은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성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 과정은 매우 민주적이고 소수의 의견도 고려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위 시수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들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학생들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특정 과목을 단순히 자율과정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식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예술·체육 중점 모형의 경우 대체로 음악·미술 및 체육 과목을 공통과정에서 제외하고 이를 그대로 자율과정 쪽으로 옮겨 편성하는 정도로 손쉽게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히 경계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순히 기본과목에서 자율과정으로 과목을 옮기는 것 정도로 제대로 된 자유학기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교육의 개선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 국가 수준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현재 국가수준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교육과정 지침으로서 현재의 틀을 가지고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어 활발히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즉, 교육과정상에 자유학기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자유학기에 기본교과의 시수는 감축하고 자율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전체 학기 동안의 진로 탐색 활동 강조와 모든 수업에 있어서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업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를 반영하여 국가 수준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기본교과의 시수 감축이나 자율과정 편성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이 증대되거나, 혹은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이수 시간에 대한 하향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단위 학교별로 매우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자유학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최소 규제로서 최소 이수시간 등에 대한 명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자체의 일부 변화만을 통해서도 반영 가능한 부분은 1)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 증대, 2)자율과정에 대한 최소 이수시간 명시 등이 가능할 것이다.

(1)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증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1안) 단위학교의 교과(군)별 증감운영 이수시간 비율을 상향조정(현행 20% → 30%)’하는 방안과 ‘(2안) 자유학기 공통과정(기본교과)에 대한 이수 최소시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여도 되고 혹은 하나만 적용 하더라도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단위학교의 제약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번외의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1안)과 같이 단위학교의 교과군별 증감 가능 이수시간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응답자 25명 중 19명 선택으로 76.0% 찬성). 특히, 현행 20%로 규정된 것은 자유학기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반드시 개정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V-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증대 방안

문항(대안)	빈도	비율(%)
①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의 공통과정(기본교과) 이수를 위한 최소시수 감축	6	24.0
② 교육과정 총론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을 확대(예: 20% → 30%)	19	76.0
③ 기타	0	0.0
계	25	100.0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변외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추가 의견: 단, 기준수업시수 감축 운영이 안 되는 체육과 예술 교과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자유학기에 허용할 필요, 교육과정 중 국·영·수의 비중 줄일 필요, 교육부에서는 기준선만 제시하고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확대비율 30% 이상), 자유학기제 수업시수를 주간 20시간으로 감축(1일 4교시 5일) 등

(2) 자유학기 ‘자율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명시

자유학기의 자율과정 운영이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이고 특색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정하여 그 이상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재 자율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수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단위학교에서 혼란이 있고 학교별 운영 시간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율과정에 대한 최소 이수시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에 대한 명시를 포함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자율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설정 명시에 대하여 중요도 4.0점, 시급도 4.0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이수시간을 단순한 산술로 헤아려 보면 하루에 오후 시간 2시간을 주당 5일 한다고 가정하고, 한 학기 17주 동안을 구성하면(2시간 * 5일 * 17주 = 170시간), 약 170시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연구와 단위학교에서의 실제 시수구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자유학기 운영 학기의 일원화

향후 자유학기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학교별로 자유학기 운영 시기가 다를 경우 전입·출생 간의 학습 내용 이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 및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상위 기관에서 단위학교의 관리 등에 있어 수월한 점이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있어서 자유학기를 특정 학기로 일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 운영이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두 가지 학기 중에 선정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델파이 조사의 추가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대체로 1학년 2학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0.0%로 가장 높았다. 어느 학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단위학교에 부담이 가장 덜 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학기로 일원화 할 경우 체험 인프라의 활용 시기가 물리게 되는 점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표 V-2〉 자유학기 운영 학기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

문항(대안)	빈도	비율(%)
① 1학년 2학기	15	60.0
② 2학년 1학기	8	32.0
③ 기타	2	8.0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변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기타 의견: 자유학기 운영 시기는 단위학교의 선택에 맡길 필요. 단, 중학교를 학기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군으로 통으로 교육 과정을 연구하여 진출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역별로 운영 시기를 차별화 하는 것이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유익, 중학교 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 시행할 필요 등

2. 진로탐색 수업(교수·학습) 활성화 방안

‘진로탐색 수업 활성화’ 방안은, 1)정규 진로탐색 수업을 위해 ‘진로와 직업’을 단계별 워크북으로 개발하고, 기존에 이미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잘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2)지역 및 학교별 우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중앙단위 사이트 활용 및 연구회 지원, 3)일반교과 내의 진로탐색을 강조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

가. 정규 진로탐색 수업에 대한 자료 개발 및 활용 내실화

정규 진로탐색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을 위한 교재는 지금 까지 상당 수 개발이 되어 왔으며, 이 가운데 자유학기에 활용 가능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들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로 수업을 대표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중학교 전 과정에 1권만이 개발되어 있고, 어느 시기에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나머지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안내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진로교육 전문기관들을 통해 생산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이 상당 수 있으나 자유학기를 위해 특화된 형태의 것들은 부족하며,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들에게 제대로 안내 및 보급되지도 않았다. 현재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정도만이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중점 모형의 학교들을 위해 배포된 정도이다. 아울러 학생 진로탐색 수업의 운영 방법 자체도 자유학기제 도입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획기적이고 사회로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의 정규 진로탐색 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료 개발과 기 개발된 우수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및 안내 등이 요구될 것이며, 나아가서 진로탐색

수업 자체의 운영 방법도 보다 학생 중심으로 생활 현장이나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진로와 직업' 교재를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워크북 형태로라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2) 기 개발된 우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이 자유학기에 잘 활용되도록 맞춤형으로 수정되거나 보급 및 안내(연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3) 진로탐색 수업 방법도 단순히 교실 상황만을 상정하기 보다는 학생의 생활 장면이나 지역 사회 현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진로와 직업' 교재를 워크북 형태로 세분화

현행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1년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나름대로 학생 활동이 다수 수록된 교재로 개발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학교 3년 동안 1개의 교과서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교과서를 한 학기 분량의 진로수업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단계라던지 혹은 중학교 3년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집중적인 진로탐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유학기 이전 및 이후에서의 진로탐색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교과서 자체의 내용을 세분화 시켜서 몇 개의 교과서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담는 정도 선에서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 및 진로와 직업 교과과의 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3가지 버전의 활동지 워크북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동일하더라도 학생의 활동을 그 심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활용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보급 및 연수 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해 이미 개발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활동지, 매뉴얼, 콘텐츠 등이 있다. 만약 현장 교사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전문가 수준이라면 나름대로 현행 자료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단위 학교에 맞는 형태의 자료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미 개발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최근의 수요자 트렌드에 맞고 현재 자유학기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재구성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교원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안내되며,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연수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은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지도 못하였거나와 이에 대한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고 활용 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이 재구성되고 보급 및 안내가 철저히 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생활과 지역현장으로 확장되는 진로탐색 수업 방법의 개선

진로탐색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은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주변이나 지역사회의 현장으로까지 확장된 곳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진로 수업 방법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유학기를 통해 보다 생활 현장이나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이들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의 수업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진로탐색 수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수업 자체가 생활주변, 직업 현장,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장면으로 확장되도록 수업 방법의 대대적인 변화 추구가 불가피하다.

나. 지역 및 학교별 우수 진로탐색 수업의 개발 및 공유 활성화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부터 단위학교까지 이어지는 상명하달식의 정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시범학교,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등의 운영 경험을 통해서 지역 및 학교별로 특성화된 우수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특정한 유사 여건의 학교나 지역에는 유사하게 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고, 일부는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도 있을 것이다. 즉, 이미 현장의 시범적 운영에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업(교수·학습) 사례나 자료들은 단위학교나 지역별 우수 사례의 공유 가치는 충분히 높다. 현장에서 우수한 특화 사례들이 개발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잘 공유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나 환경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및 학교별로 특화된 우수 진로탐색 수업을 개발하고 이를 잘 공유할 수 있는 유통구조 및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진로탐색 수업 개발을 위하여 중앙(교육부)-지역(시도, 지역)-단위학교 등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2)중앙단위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 우수 진로탐색 수업 사례의 공유 채널 및 구조를 마련하며, 3)지역단위로 교사 연구회나 연구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우수 사례 개발 및 공유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진로탐색 수업을 위한 중앙-지역-학교의 체계적 역할 분담

단위 학교마다 저마다의 특색 있는 우수 진로탐색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교육부), 지역(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 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전반적인 방향 설정, 정책 계획 수립, 표준화된 모델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앙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해당 시·도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학교들에게 적합한 지역 특화된 수업 운영 모델이나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사들을 연수하고, 지원하는 실무적 역할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개발된 지역 특화된 자료들을 단위학교에 맞도록 취사선택 및 재구성하여 학교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수행되어야 할 지역에 특화된 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나 자료의 개발 부분과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에 맞는 자료의 재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증진 부분이다. 이와 같이 주체별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되고 이행되었을 때 단위학교에서 훌륭한 우수 진로탐색 수업 사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앙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강화

단위학교에서 운영된 우수 진로탐색 수업 사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이러한 사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자유학기제 온라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자료공간’에 ‘운영학교자료’ 공간을 마련하여 교육과정개편자료, 수업 및 평가방법개선자료, 자율과정 운영자료 등을 구분하여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마련은 되었지만, 2014년 9월 현재까지 이용 현황이 전무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다.

자료가 효율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기 보다는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공되고, 그 우수성이나 인기도 등에 대한 정보 등 수요자인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검색 및 안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호텔을 예약할 때 흔히 사용하는 사이트나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어떤 호텔이 좋은 호텔인지 급에 따라서 별점이 부여되고, 인기도 순에 따른 별점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평가 의견들이 공개된다. 가격이나 인기도, 최신성 등의 순에 따라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는 등 검색 기능이 탁월하다.



[그림 V-4]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제시 방식(예시)

자료: 호텔스닷컴(2014). <http://kr.hotels.com/>

물론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수업 자료의 검색 및 안내를 이와 같이 시장수요 중심으로 만들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활용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텔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위학교의 우수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기준으로는 ‘학생 중심의 사유를 통한 꿈과 끼를 발현 가능한 프로젝트식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8.0%(25명 중 22명 선택)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의 활용 편리성과 인기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이미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기준들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 가운데 직접적으로 평정 가능한 기준들을 반영한다면, 중앙 단위의 공유 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단위 교사 연구회 및 연구대회 지원 강화

앞서 제시한 방안이 온라인을 통한 유통 구조를 말한다면, 다른 대안은 오프라인을 통한 진로탐색 수업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지역의 시·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교사 연구회 및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나친 과열이나 인센티브 및 연구점수 등의 외재적인 유인가에 치우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우수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구회 및 연구대회가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일반교과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에 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진로탐색과 학교 수업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교과 내에서 연관된 진로나 직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교과 교사들의 경우 진로교육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부 관심있는 교사의 경우에도 교과통합 진로교육 자료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학교들에서도 진로탐색 모형을 선택한 학교는 대부분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한다고 명시해 놓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이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단순히 일반교과 교사들에게 교과 시간에 관련된 직업들이 있으면 소개해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더욱 미지수인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 및 수업에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교과 교사들이 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교육이 진로진학상담교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알고 지원해 주어야 할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교과 교사들에게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수과정도 개설하여 원하는 교사는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연구, 교육과정 분석 및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그리고 2014년 들어서는 일반교과 교원을 위한 ‘교과통합 진로 교육 원격연수 과정’이 몇 가지 교과에 대해 15차시 분량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 일반교과 교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직접 혹은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아울러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급 및 안내될 필요가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서도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3.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및 환류 방안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및 환류’ 방안은, 1)진로탐색 활동 내역에 대한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작성·통지방법 개발 및 진로 포트폴리오 활용을 증진하며, 2)진로탐색 활동 기록의 진로지도 활용성을 제고하며, 3)진로탐색 활동의 평가방법 개발 및 연수가 필요하며, 4)교육청 단위로 자유학기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가. 진로탐색 활동 내역 작성·기록 방법 개선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 진로탐색 활동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학생 성적평가 방식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활동들을 성취지표에 기반 하여 측정하고 작성 및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다. 특히, 학생의 진로탐색 수업이나 일반교과 내에서 이루어진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작성과 통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나 실질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의 각종 진로탐색 활동에 대하여 NEIS 기록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 내역을 작성 및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확하게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1)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주체와 그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침으로 마련하고, 2)학생의 각종 진로탐색 활동을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며, 3)중장기적으로는 에듀팍에 학생 자율적으로 진로탐색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교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1)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주체(역할)의 명확화

자유학기 동안 자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업에서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은 해당 수업 담당 교사가 1차로 기록·정리하고, 이를 담임교사가 인수인계 받아 NEIS에 기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진로탐색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은 우선적으로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진로탐색 활동이라는 이유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학생부 기록·관리는 담임교사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수업활동 내용도 잘 모르는데 작성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어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해당 수업의 담당교사가 진로탐색 활동을 진단하고,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수업 과정을 여러 명의 교사가 분담하여 담당한다면, 이들의 작성 방식이 일관적일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 가능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담임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로탐색 활동 NEIS 작성을 담임교사의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 진로탐색 활동 수업을 담임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학생 진로탐색 활동과 함께 상담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델파이 조사의 추가문항으로 진로탐색 활동의 NEIS 작성 주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담임교사 혹은 수업교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 V-3>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NEIS 작성 주체

문항(대안)	빈도	비율(%)
① 해당 수업의 담당교사가 작성	10	40.0
② 담임교사가 작성(수업별 담당 교사로부터 1차 자료 받음)	13	52.0
③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작성	1	4.0
④ 기타	1	4.0
계	25	100.0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번외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추가 의견: 수업시간 내의 진로탐색활동은 담당교과 교사가, 그 외 진로탐색활동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자료 정리하여 담임교사가 작성 글자수 범위 내에서 NEIS 기록 필요., 해당 수업의 담당을 가능한 담임교사가 맡도록 구성하여 진로탐색활동과 상담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진로탐색활동 시간을 교사의 시수로 인정 필요.

(2) 진로탐색 활동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방법 개발·안내

그 동안 진로탐색 활동이 이루어져 왔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기록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현장의 불만과 개선 요구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자유학기에 중간, 기말고사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고, 자유학기의 운영 결과나 성과를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유학기의 각종 학생 진로탐색 활동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의 각종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별 기록과 이의 NEIS 입력 방법을 개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양식이나 방법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3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및 특성 기록과 초·중등 연계 활용방안 연구(이종범 외, 2013)를 통해 진로활동의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방안과 초·중·고 간의 진로활동 기록을 서로 열람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3.10.25, 학교정책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진로교육 활동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학기에 따른 보다 강화된 진로탐색 활동, 진로교육 수업 외의 일반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진로활동 기록, 학생부 작성 및 학부모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연구에 기반 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 개발과 교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연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교과 교사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3) 에듀팟을 활용한 자율적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작성·관리 촉진

에듀팟은 중·고등학생들의 자율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된 ‘창의적체험활동’을 학생 개인이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이다. 에듀팟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교생활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 의해 작성된 기록이 입시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보니 유명무실화 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에듀팟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이 작성한 에듀팟을 승인하거나 보다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이스에 포함된 에듀팟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인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작성’을 생활화 하도록 독려하여 학생의 스스로의 진로탐색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이스에 교사들이 입력하는 학교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기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에듀팟 기록 시스템이 보다 활용의 편의성은 증대하면서도,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작성을 독려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교사의 번외 업무가 심하게 가중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진로탐색 활동 기록의 진로지도에 활용성 제고

자유학기에서 진로탐색 활동 및 이의 평가·기록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 활동 기록이 학생 진로지도에 활발히 활용 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학생의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기록은 초·중등학교 간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학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학생중심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및 교과 내의 진로탐색 활동 등 모든 것들이 학교급간 연계 및 열람되지 못하고 있다. 즉, 학생 진로지도에 있어 활용 가능한 자료들이 상당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에 이루어진 모든 진로탐색 활동, 즉 진로교육 활동 뿐 아니라 자율과정이나 공통과정에서 모두 이루어진 교과 내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 등 각종 진로탐색 관련 활동들에 대하여 상급학년 및 상급학교에서 열람하여 학생 진로지도에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는 비단 자유학기에 국한하기 보다는 보다 확장되어서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모든 진로탐색 및 지도 활동에 대한 기록들도 연계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하면, 학생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다보면 자칫하여 어릴 때의 과오가 계속적인 낙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고, 학생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인하여 또 다른 부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탐색 정보의 공개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며,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 진로탐색 활동의 평가 방법 개발 및 연수 강화

앞서 제시된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진단 및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들에 대한 자료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자유학기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회 및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점수나 순위가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진로탐색을 통해 증진하고자 하는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식의 절대기준평가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진로탐색 활동의 장면이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인지적, 정의적 및 심체적인 것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진로개발 역량의 개념이나 진로교육목표체계 등을 토대로 하되 보다 단위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매뉴얼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일반교과 교사들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육청 단위의 자유학기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자유학기제가 2013년 시범 도입되고 2016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정도의 역사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한 번에 완벽한 현장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얼마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상적인 모습에 보다 근접해 갈 수 있는냐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위학교별로 이러한 성과평가 및 환류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겠지만, 현 단계에서 단위학교의 운영 자체가 안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평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의 성과평가는 감시하고 평가하여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요인이나 애로점을 수렴하며, 운영상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정책적인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성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계획-실행-결과의 단계별로는 명시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하여 준비기간을 통해 다음 학기에 반영하는 환류 체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적자원 역량 및 인식 제고 방안

‘인적자원 역량 및 인식 제고’ 방안은, 1)자유학기제에 대한 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자, 중학교 전체 교원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학생 진로탐색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를 증진하며, 2)담당 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의 역량제고 연수, 교사 연구회 활성화 지원, 교사의 고른 역할분담 등이 필요하고, 3)학교 규모에 따라 적정 수의 진로교사 배치를 증원하고, 4)외부강사 비용 지원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5)학부모 진로코치 및 대학생, 예비교원 봉사제도를 강화하며, 6)예비 교원의 진로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과목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계자 인식 제고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학교 구성원부터 학생 및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자유학기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선 학교교육의 가장 선봉에는 단위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이 있으나, 자유학기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관리자들은 자유학기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자유학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유학기가 운영되는 1학년 혹은 2학년 교원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 외에 학년 교사들은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들은 자유학기로 인해 학생의 성적하락 등 각종 의혹과 오해가 많은데, 단위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접촉 기회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 뿐 아니라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취지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1) 중학교 관리자에 대한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연수가 필요하며, 2)자유학기 담당 교원 뿐 아니라 모든 중학교 교원 전체에 대한 자유학기제 연수가 필요하며, 3)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를 위해 학생의 자유학기 진로탐색 성과를 활용한 공모전이나 대회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1) 관리자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학교 운영의 헤드를 담당하는 학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참여할 예정인 학교장(감) 모두에게 교육지원청의 주도로 1박 2일의 연수과정이나 최소한 하루의 설명회를 제공하여 자유학기제와 학생의 진로탐색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장(감) 자격연수 과정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주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자에 대한 연수 제공은 자유학기가 직접적으로 운영될 중학교의 관리자 뿐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관리자들도 인식을 제고하도록 설명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자유학기를 맞을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오고, 자유학기를 거쳐 졸업한 중학생은 고등학교로 가서 보다 심화된 진로경로와 관련된 진로탐색 및 설계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중학교 전체 교원에게 자유학기제 연수 제공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지원에 대한 인식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뿐 아니라 중학교 전체 교원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모든 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할 시 특정 시기에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만을 위한 별도의 연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여타의 다양한 연수 기회가 있고, 이를 통합하거나 혹은 기존의 계획된 연수과정에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중학교 교원 외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들에게도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기 보다는 각 학교급 교사에 맞는 연수 과정을 운영할 때, 최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학교 교사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진로탐색 성과를 활용한 공모전 및 대회 활성화

자유학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학생의 자유학기 동안 성취에 대해서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의 자유학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진로탐색 활동이나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인데, 이를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각종 체험지원 기관 관계자 등에게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진로탐색 성과를 내보이는 공모전이나 대회 혹은 축제 등의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의 유용성이나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도 가능할 것이다.

나. 자유학기 진로탐색 담당 교사의 역량 제고 및 역할 분담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의 자율 과정을 담당하는 진로탐색 활동 담당 교사의 역량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기본교과의 시수가 줄어든 교과교사가 자율과정의 진로탐색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들의 학생 진로탐색 지원에 대한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시범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주로 담당하는 몇몇 교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진로탐색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진로교육 수업에서부터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활동 등을 모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진로교사나 혹은 특정한 교사에게 과업이 편중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에 진로탐색 관련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특정 교사에게 과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자율과정의 진로탐색 수업을 담당하는 일반교과 교원의 진로탐색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며, 2)진로탐색 증진과 관련된 주제로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를 활성화 하여 교원 자체적으로 학습공동체를 통한 진로교육 역량 함양을 기대하고, 3)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가 편성되어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학기 참여 교원 간 고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1) 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의 진로탐색 역량 제고 연수

먼저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일정 이상의 연수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경우 그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수확보를 위해 자율과정의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시범학교 단계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향후 전면 시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다수 투입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면시행 이전에 자율과정의 진로탐색 과정을 담당하게 될 일반교과 교원들의 학생 진로탐색 지원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진로탐색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안내 자료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택과목이나 여타의 전공 외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사설 교육이나 자격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거나 혹은 보다 확대하여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 활동에 관한 교사 연구회 혹은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나 동아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활동에

대한 목적과 산출물이 명확히 제시되고, 이를 통해 개발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연구회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공식적인 연구회나 동아리 활동 외에도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혹은 인접 학교들 간의 교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연구회 및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창구도 마련되면 좋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학습공동체 혹은 실행공동체로서 일정한 프로세스에 걸쳐 활동을 하고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원 간의 고른 역할분담을 통한 특정교사 편중 방지

자유학기에 진로탐색 활동이 강조되다보니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 수업에서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종 진로활동, 외부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나치게 1명의 진로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쉽게 소진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사업들과는 다르게 2-3명의 담당 교사만이 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운영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자유학기가 위치한 학년의 모든 교사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동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특정 교사에게 체험처 발굴의 업무를 일임하기 보다는 각 교과별 교사들로부터 관련된 체험처를 분담하여 발굴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자유학기에 진로탐색 수업이 원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진로소양에 대해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수업 시간이 10시간 이내 이다보니 다수의 학생이 있는 학교의 경우 진로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학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립 중등학교에 1교 1인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100%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는 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 진로교사가 부족하고, 농어촌은 학교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순회교사로서 2-3개 학교를 담당해하는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의 학생수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진로수업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즉, 현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1교에 1명씩 모두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2명 혹은 3명도 배치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핀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적정 수의 진로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국외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2010.10)**

[핀란드] 1970년부터 진로정보 제공

- 초·중등학교 1개교 당 1~3명 배치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진로교육 정책 마련 및 지원

- 고교생 400~600명 당 1인의 진로교사 배치

기본적인 진로수업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두 할 수 있기 위한 중학교의 적정 진로교사 수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계량하여 볼 수 있다. 먼저 2015년까지 3,173개의 모든 중학교(2013년 기준)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될 것이며, 이 외에도 정책 지원을 통해 학교규모가 30학급이 넘는 학교(약 508개교)에 1명의 추가적인 진로교사가 배치되도록 한다면 총 3,681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필요하다. 이는 기초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없어서 전혀 다른 전공의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원 수급이나, 학교 및 학생 수의 지속적인 변화 전망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진로탐색 지원 외부강사 활용 지원 및 관리 강화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유학기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를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만, 전면 시행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지원은 보장 받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외부의 진로탐색 전문 강사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외부 전문강사에 대해서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능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증받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이나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원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강사 활용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풀(Pool)을 지속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1)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에 대한 활용비 지원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2)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단위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탐색 강사의 풀(pool) 및 정보 관리가 강될 필요가 있다.

(1) 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 활용비 지원 및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의 활용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충족하는 선에서 전문강사 활용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위학교 교사들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이는 2016년 전면 시행 때 까지 교원들의 능력 신장만으로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로탐색 강사 정보 관리 강화

학교에 학생들을 만나 각종 진로탐색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하는 외부 강사나 직업인 멘토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정보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인력 풀(pool)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이들이 학생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사전에 문제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신상정보 조회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점검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마. 학부모 및 기타 진로탐색 지원 인력자원 확보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의 교사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도와서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체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 및 예비교원 등 학교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1)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진로코치’의 양성 및 활용을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2)예비교원이나 대학생들을 학생 진로탐색에 대한 지원 인력이나 멘토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학교 봉사활동점수로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및 활용 강화

현재 시·도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하고 있으며, 일부 자유학기제 학교의 경우에는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예비교원 및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에 대한 봉사활동 제도화

사범대학생과 같은 예비 중학교 교원들이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생 및 예비교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졸업 요건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우 졸업을 위해 교생실습을 나가는데, 이의 일환으로 혹은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학교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바. 예비 교원의 학생 진로탐색 지도 역량 강화

앞으로 교원들에게 학생 진로지도에 대한 역량 함양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학생 진로지도

역량은 진로진학상담교사만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 보다는 모든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은 역량이다. 특히, 자유학기제 등이 도입되면서 중등학교에 근무할 미래의 교사들에게 학생 진로탐색을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탐색 지도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생 및 각종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학생 진로탐색 활동 지도를 위한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사대의 교육과정이나 교직이수 교육과정에 ‘진로교육 과목’을 포함하는 방법, 혹은 교원 임용시험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를 자연스럽게 내용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별도의 ‘진로교육 전공’을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델파이 전문가 패널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교·사대 교육과정에 별도의 과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교원 임용시험에 진로지도 관련 내용을 출제하자는 의견이 3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인증시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수하고 성적을 받으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표 V-4> 예비교원 진로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 과정 반영 방법

문항(대안)	빈도	비율
① 기존 과목에 일부 장(챕터) 정도의 내용만 반영	3	12
② 별도 과목(예: 진로지도)으로 반영	14	56
③ 별도 전공(복수전공)으로 개설	5	20
④ 교원 임용시험에 진로지도 관련 내용 출제	8	32
⑤ 기타	4	16
계	34	100.0

-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변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비율은 전체 25명 대비 응답 비율을 제시한 것이며, 중복응답 가능하도록 설계함
 3) 추가 의견: 대학생 진로 멘토링 역할 및 자유학기제 업무 관련 봉사활동 도입, 진로지도소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인증하여 자격 부여하는 방안 필요, 대학원과정에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과 할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임용 전 신규교사 연수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소개 및 담당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및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 사례 등 소개 필요

5.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방안은, 1)중앙-지역-학교의 명확한 역할 구명으로 체험 인프라 확충을 체계화 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연계가 필요하며, 2)지역 단위로 (가칭) 진로체험지원센터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체험처 발굴을 지원하고, 체험 매칭 사이트를 윈스톱으로 운영하여 매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3)간접·모의 체험, 지역 유관기관, 기업, 단체, 소상공인 등으로 단계적 진로체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되며, 4)단위학교 진로체험 활동 안전을

위한 사전-본-사후교육 및 비용 지원이 요구되며, 5)체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체험 기관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자원봉사 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고, 6)진로체험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 소규모 학교 간 공동 운영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가.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체계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위학교에서는 진로체험처 확보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지연(2014)의 연구에서 자유학기 담당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가장 중점 추진 영역으로 체험활동을 2순위로 인식하였다. 그만큼 체험활동이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체험처와 접촉하여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체험 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협약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접근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이나 방법도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1)진로체험 인프라 확보에 대한 중앙, 지역, 단위학교의 명확한 역할이 구명되고, 학교와 기관(기업) 간의 MOU 체결이 단순히 MOU 개수 늘리기에 치우치지 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2)우선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진로체험 인프라 확보에 대한 중앙-지역-학교의 분담 및 MOU 효율화

진로체험 인프라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교육부), 지역(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및 학교 내 조직 간에 명확한 역할을 구명하고, 서로 관련된 실무조직들 간에 연계·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우선 체험처 확보에 있어서는 교육부는 중앙의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의 체험지원 협약 협조를 통해 중앙 단위의 대단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체험처 확보 계획과 제도적인 조율 역할도 요구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의 체험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중심기관이 있는 유관부처 지사들과 연계하고, 해당 지역 전체적인 체험 지원이 가능한 기관(기업)과 협약을 통한 체험 지원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이미 교육부 및 교육청 수준에서 협약한 기관과의 MOU 체결에 힘을 쓰기 보다는 학교 관내의 소규모 체험장이나 학교 주변의 일터, 학부모들의 일터 등에 한정된 체험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지원청이 해당 지역의 진로체험처 확보에 있어 중심 기능을 담당하되, 직접 이를 지원할 인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을 마련하거나 필요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체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청과 지자체, 상공회의소의 실질적인 연계·협약 강화

자유학기를 위한 체험 인프라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 도시나 농산어촌 모두 기본적인 지자체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일차적인 체험 인프라 확보는 가능하다. 지자체는 행정조직의 경우 각종 부처별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인력들이 있고, 각 지자체 산하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광역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시·군의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연간,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관내의 기관장들이 협력을 위해 논의하는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정례적인 모임 이전 및 이후 실무진들 간의 접촉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의 기관장들 간에 협력이 약속되고 적극성만 발휘가 된다면 그 하단의 실무적인 지원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실질적인 투입은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일차적인 진로체험 인프라가 확보되었다면,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내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교육지원청 간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지역 내 상공회의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나. 진로체험 인프라 발굴 및 매칭 지원 강화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와 실질적 연계 협력이 가능한 적절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적절하게 원하는 학교와 매칭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의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하다. 이를 감당할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진로체험 인프라의 확보에 주력할 인력이나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1)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가칭)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혹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2)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준공공 성격의 민간 업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단위학교에서 진로체험처를 쉽게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매칭 사이트를 윈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교육지원청 단위 (가칭)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지원

시, 군, 구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가칭)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면 해당 지역의 단위학교에 진로체험처 발굴 및

매칭 지원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교육지원청의 하부에 설치할 수도 있고, 지자체나 지역의 청소년수련기관에 설치할 수도 있다. 혹은 산하 조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별도의 외부 아웃소싱 업체로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의 인력을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등 기존 기관의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공동 편당으로 가능할 것이며, 1명의 인력을 월 200만원씩 12개월 채용한다면 240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 인력이나 조직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꿈길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여 줌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 및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국가에서 마련하고, 이를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2) 지역단위 학생 진로체험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앞서 제시한 지역단위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기 보다는 지역 내 ‘진로탐색 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진로지도 분야와 연관된 주체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연수 운영, 단위학교 진로체험 강의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활용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접근해 볼만하다. 이미 교육계에 종사하다가 은퇴 이후에 열정이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고용률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진로체험 매칭 사이트의 원스톱 통합 지원 강화

현재 교육부에서는 ‘꿈길’이라는 진로체험 매칭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진로체험 사이트 외에도 교육기부 사이트,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진로체험에 대한 기관 및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이러한 각 사이트에 대하여 서로 따로 제공하기 보다는 연계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 링크를 마련하거나,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이 한 번에 해결되도록 원스톱 사이트를 원한다. 따라서 공공 측면에서 마련된 각종 진로체험 관련 매칭 사이트들이 원스톱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 링크 기능이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 진로체험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진로체험이 강조되지만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현장으로, 일터로 학생들을 내보낼 수는 없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진로체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체험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파악된

것이 없다. 또한, 기업이나 주변의 일터에서 학생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고, 학교에서도 준비되지 않아 갑작스런 체험 인프라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로체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는 1)지역사회 내의 공공 측면의 유관기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1차적인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을 강화하고, 2)다음 단계로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등 지역 내의 각종 일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며, 3)부족할 수 있는 현장 일터체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간접·모의 진로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4)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진로체험도 일정 기간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1)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 강화

먼저 자유학기 동안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진로체험의 모습을 그려보면, 전일제 진로체험 약 3회(직업체험 2회, 대학체험 1회), 소규모 진로체험 약 3회(일터체험 2회, 학과(전공)체험 1회) 정도가 될 수 있다. 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10개의 중학교가 있다고 가정하면, 전교생의 전일제 직업체험 20회(10교 * 교당 2회), 소규모 일터체험 600회(10교 * 교당 30그룹 * 그룹당 2회)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잘 참여시킬 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 군, 구와 같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자체 산하의 각종 공공 사업장이 상당 수 있다.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이 있으며, 청소년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및 각종 수련시설 등이 있다. 각종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들도 시, 군, 구에 지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조성될 필요가 있다.

(2) 기업, 단체, 소상공인 활용 진로체험 공급·지원 확대

자유학기의 학생 진로체험의 운영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일터체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 측면의 유관기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각종 기업체,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서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에 포진하고 있는 생활 주변의 일터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체험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

(3) 간접·모의 진로체험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진로체험 기관이나 시설 등의 인프라가 단시간에 확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소 간접적일 수 있지만 간접 혹은 모의 진로체험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교내에서의 진로체험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적극적인 진로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적이고 기초적인 진로체험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단위학교 진로체험 활동의 안전 및 내실화

자유학기의 진로체험이 강조되면서 교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과거 우리 교육의 정책 가운데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수련회, 소풍 등 다양한 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음을 느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진로체험에 있어 안전하고 보다 내실화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하여 사전에 정기 및 상시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2)질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진로체험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3)학교 단체행사(소풍, 수련회 등)를 진로체험과 연계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1)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사전 정기·상시 안전교육 강화

진로체험을 안전하기 다녀오기 위해서는 일터나 체험 장소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나, 교통이동이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동하는 경우의 주의점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및 중학교에서도 학년별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 준비과정, 체험을 위한 이동 바로 직전, 체험 과정 중, 그리고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 프로그램 자체에 안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체계화 하는 것도 방안이다.

(2)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 및 지원 방법 개선

단위학교의 진로체험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건 마련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체험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학생의 안전관리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도 마련될 수 있다. 전교생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한 비용 지원,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비 구축,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 아울러 학생의 체험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재료비 제공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일부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단체행사(소풍, 수련회 등)를 진로체험으로 연계 운영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화합의 장이나 단합 등의 이유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단체행사(소풍, 수련회 등)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 자체도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소풍이나 수련회 등의 활동이 보다 의미를 갖도록 학생의 진로체험으로 연계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자유학기의 진로체험이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고 미래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및 체험기관 모두의 체험 운영 역량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곧바로 활용 가능한 교사나 학생용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다. 진로체험 기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성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진로체험을 제대로 운영하고 인솔하기 위한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위학교 및 체험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1)진로체험의 사전활동, 본활동 및 사후활동 단계별로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제시된 매뉴얼이 보급되어야 하며, 2)진로체험 기관(기업)들이 쉽게 적용 가능한 진로체험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연수 및 컨설팅해줄 필요가 있고, 3)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진로체험 활동의 사전-본-사후 활동 운영 매뉴얼 보급 강화

현장 교사들은 진로체험 활동의 적절한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교과 교사의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체험 활동 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전활동이나 이후의 사후활동도 함께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의미있는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험을 통해 학습할 내용, 준비 사항, 임해야 하는 자세, 주의할 안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또한, 운영 중에 담당 교사로서 임해야 할 자세나 요령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체험학습 이후에는 다시 학교에 와서 느낀점을 공유하고 이를 학생 자신에게 내면화 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진로체험 기관(기업)에 대한 운영 방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단위학교 뿐 아니라 진로 체험을 실제 운영하거나 제공하여 주는 진로체험 기관, 기업 및 직업인에 대해서 올바른 운영 방법이 안내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각 기관의 체험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사항 등을 설명회나 연수 등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 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체험 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표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다.

(3) 단위학교 진로체험 지원 자원봉사 인력 활용 강화

진로체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담당 교사 외에도 진로체험을 인솔하거나 안전요원, 운영 지원 등의 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들을 채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심하고,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일용직 형태의 인력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 가능하다. 이들은 학교 학부모 가운데 진로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자격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진로체험 지원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섭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인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들이 자원봉사 인력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의 활동 비용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식사비, 교통비 등이 기본적으로 지원 된다면,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신원조사 등이 이루어져 학생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정 시간의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바. 진로체험 인프라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벽지와 같은 곳은 진로체험을 위한 기관(기업) 인프라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진로체험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한 대안은 1)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벽지의 학교 학생을 위해 ‘(가칭)찾아가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 2)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진로체험을 공동으로 연계하며, 3)제한적이지만 거점 지역 단위로 모의 진로체험 시설의 설립·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성화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의 학교 및 학생들은 주변의 체험 인프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직업인들이나 기업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인 진로특강에서부터 멘토링, 교내 진로체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버스에 이동식 체험 시스템을 갖추어 활동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진로체험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체험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동 버스, 장비, 멘토 등을 섭외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진로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2) 농산어촌 소규모 인접 학교 간의 진로체험 공동 운영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큰 규모의 기업체나 대학 등을 체험할 때 인원이 너무 과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화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인접한 학교 들이라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 에서 이루어져 왔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인접 학교끼리 체험 가능한 과목을 교차로 개설함으로써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다양할 수 있는 요구를 반영하여 서로 필요한 인접 학교로 가서 함께 체험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학교 간의 공동 운영은 학생의 이동이나 운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잘 계획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담당 교사나 구성원들 간의 사전 협력도 필요하며, 학생들 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거점 지역단위로 모의 진로체험 시설 설립 · 운영 지원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등 시·도보다 큰 개념의 권역별로 거점 지역에 현재의 ‘잡월드’와 같은 모의 진로체험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체험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학교 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접근성이 있는 지역에 모의 체험시설을 설립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립 적합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요 조사와 설립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이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개 권역의 모의 진로체험 시설이 제대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원 체제 및 환경 구축 방안

‘지원체제 및 환경 구축’ 방안은, 1)지속가능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체제로서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 지원 부서의 연계·통합 운영과 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분담, 협업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며, 2)전 국민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홍보 및 모든 교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3)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를 개편하고

교육과정 및 환경을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맞도록 조성하며, 4)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사회·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단위 진로탐색 및 학습공동체 구축, 관계부처 협조,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기업의 교육지원 파트너십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가. 지속가능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체제 구축

자유학기제가 단기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의 긍정적 선도와 개선의 중심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구성되어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협업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자유학기제 지원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인력) 간의 통합 또는 밀접히 연계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고, 2)현재 세 개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 간의 기관별 특성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3)협업기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기관 내 조직,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지원 조직 간의 통합·연계 운영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모두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조직(인력)’과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담당 조직(인력) 간에 통합 혹은 유기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으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유학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델파이 조사의 추가문항을 통한 조사 결과에서도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조직(인력)을 통합 하자는 의견이 52%(25명 중 13명), 현재와 같이 별도 조직으로 하되 역할분담으로 협동하자는 의견이 44%(25명 중 11명) 등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V-5>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지원 조직(인력) 간의 통합에 대한 의견

항목(대안)	빈도	비율
① 현재와 같이 별도로 하되 역할 분담으로 협동	11	44.0
②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조직(인력)을 통합 추진	13	52.0
③ 기타	1	4.0
계	25	100.0

주 1)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의 변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기타의견: 창체, 봉사, 마을공동체, 자유학기, 진로, 직업체험이 모두 함께 통합되어 학교 밖 자원으로 관리 운영될 필요. 자유학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착 후에는 진로교육 조직과 통합 추진 될 수도 있음

(1) 자유학기제지원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국가수준에서 부처의 실무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추가적으로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총 세 개의 센터가 있다. 우선이 세 가지 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담당하다보면 명확히 분업체계가 이루어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총괄로서 학교운영 컨설팅, 교원연수,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진로탐색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진로탐색 프로그램, 콘텐츠 및 관련 연수과정 등을 담당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육기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위학교에 기업 및 직업인을 연계하여 주는 역할 등 보다 명료한 역할 분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진로탐색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위학교의 진로탐색 증진 활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협업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기관 내 여건 조성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은 현재 총 14개 기관(지원센터 설치된 3기관 제외)이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공공기관으로서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구, 체험지원 등에 관련된 기관들이다. 이 조직들은 저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예산 지원 등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협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무 담당자만 지정이 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내에서 인정되고 있지 못하며,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별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실무 조직이나 센터 등 명시적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 담당자가 지정되어 역할부여 및 타 업무 감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속성상 해당 명목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유인가, 혹은 참여 담당자에 대한 유인가로서 유·무형의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나. 전 국민의 자유학기제 인식 제고

자유학기제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다가가고, 생활이나 직업현장으로 확장되는 교육의 대 변화이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교육 내에서 중학교에 국한된 하나의 활동 정도로만 인식되어 대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학교 외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 국민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정부-교육청-학교 간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원들에게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1) 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 및 단계적 홍보 강화

자유학기제가 보다 탄력을 받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청 및 학교 등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협조, 주요 방송사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자체적인 지역방송사, 일간지, 잡지 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들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지역 내 우수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도 필요하다.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내 각종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까지 개방하는 학교 내 행사, 그리고 학부모들을 별도로 모아서 이루어지는 설명회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이 때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홍보용 시청각 자료(동영상, PPT, 유인물 등)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지역 및 단위학교는 해당 지역의 특화된 것을 더하여 홍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 모든 교원에게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안내

자유학기를 보내는 학생은 초등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이며, 이들이 자유학기 이후에는 중학교 상급학년을 거쳐 고등학교에 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지는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학생의 진로지도나 교육내용의 반영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각종 연수과정에 내용을 포함하거나, 혹은 안내자료 보급 등이 필요하다. 별도의 과정을 만들기 보다는 이미 계획된 과정에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학교 진로탐색 증진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타 학교급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탐색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의 수능성적 중심의 입시제도는 자유학기제 기본 취지나 방향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이후에 나름대로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한 학생들을 위하여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대응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진로탐색 중심의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1)수능성적 위주의 입시제도는 개편이 요구되며, 2)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능력이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수능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편

자유학기 동안 및 중·고등학교 동안의 각종 진로탐색 및 활동의 성과가 고입, 대입 및 전공 선택과 연계될 수 있는 입시풍도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고3의 수능시험을 통해 나타난 점수만으로 선택하는 현재의 입시제도는 문제가 있다. 대입 전형을 다양화 하고, 특정 분야에 흥미, 소질 및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입학 경로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2)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여건 구축

단순히 지능이나 학연, 지연 등의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성공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 이후에 학생들이 나름대로 찾은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이를 학교교육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생의 소질에 따른 선택이 보다 증진된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보다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사회·기업 문화 조성

자유학기 동안 학생 진로탐색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변화만으로 한계가 있다. 학교 외부의 지역사회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나 협력이 여전히 미진하고,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반 및 기업체의 문화 자체가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의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지역사회 진로탐색 및 학습공동체 구축 강화, 2)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한 학생 체험지원을 위한 기관 및 기업의 참여 강화, 3)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교육지원’ 활동 포함, 4)기업의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1) 지역사회 진로탐색 및 학습공동체 구축 강화

학생의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체가 진로탐색 및 학습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학습공동체, 학습생태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 있지만, 의미하는 바는 “학생의 진로탐색과 학습을 위하여 단위학교 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업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 간에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호혜성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자라나서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관계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학생 체험지원 기관 및 기업 참여 강화

이상적인 모델로서 지역사회 진로탐색 및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체험지원 기관 및 기업들이 다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홍보를 통해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유관기관이나 기업들과 관계된 주무 정부부처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러한 부처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 요청을 통해 각 부처의 하부 체험 기관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학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3)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지원' 활동 포함

학생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교육지원'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관기관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저마다의 설립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사회공헌활동' 지표가 있어 이를 근거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지원활동'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이나 여타의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지원에 협조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문화 조성

학생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교육기부 등을 참여해 주고 있지만, 국외 나라들과 같이 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학교교육 지원이 자신들에게도 상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학교교육 및 진로 체험 지원 활동에 대하여 중요성과 호혜성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교육 지원이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기어 혹은 직업인의 교육 지원에 대하여 감사나 인정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내재적인 보상이 강화된다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도 기업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VI. 제 언

1.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관한 제언

가. 국가단위 추진 사항

국가단위에서 교육부 및 유관 정부부처, 중앙 수준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중앙 수준의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등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사항과 중장기적인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과제들은 지역단위 체제 및 단위학교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협력도 요구될 것이다.

<표 VI-1>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가단위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탐색 로드맵 기반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정체성 확립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증대	○	
	자유학기 ‘자율과정’의 최소 이수시간 명시	○	
	자유학기 운영 학기의 일원화	○	
수업 운영	‘진로와 직업’ 교재를 워크북 형태로 세분화	○	
	기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보급 및 연수 강화	○	
	진로탐색 수업을 위한 중앙-지역-학교의 체계적 역할 분담	○	
	중앙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강화	○	
	지역단위 교사 연구회 및 연구대회 지원 강화	○	
평가 및 환류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학생부 작성 주체(역할)의 명확화	○	
	진로탐색 활동내역 작성 및 학부모 통지 방법 개발·안내	○	
	에듀팟을 활용한 자율적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작성·관리 촉진		○
	진로탐색 활동 기록의 진로지도에 활용성 제고		○
인적자원	진로탐색 활동의 평가 방법 개발 및 연수 강화	○	
	관리자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중학교 전체 교원에게 자유학기제 연수 제공	○	
	학생의 진로탐색 성과를 활용한 공모전 및 대회 활성화	○	
	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의 진로탐색 역량 제고 연수	○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수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
	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 활용비 지원 및 기준 마련	○	
	예비교원 및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에 대한 봉사활동 제도화	○	
예비 교원의 학생 진로탐색 지도 역량 강화		○	
체험 인프라	체험 인프라에 대한 중앙-지역-학교의 분담 및 MOU 효율	○	
	지역단위 학생 진로체험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진로체험 매칭 사이트의 윈스톱 통합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 강화	○	
	기업, 단체, 소상공인 활용 진로체험 공급·지원 확대		○
	간접·모의 진로체험을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	
	가정 내 진로체험을 자유학기 체험활동으로 인정	○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 및 지원 방법 개선	○	
	진로체험 활동의 사전-본-사후 활동 운영 매뉴얼 보급 강화	○	
	진로체험 기관(기업)에 대한 운영 방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성화	○	
	거점 지역단위로 모의 진로체험 시설 설립·운영 지원		○
지원체제 및 환경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지원 조직 간의 통합·연계 운영	○	
	자유학기제지원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	
	협업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기관 내 여건 조성	○	
	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 및 단계적 홍보 강화	○	
	모든 교원에게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안내	○	
	수능성적 위주의 입시제도 개편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및 환경여건 구축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학생 체험지원 기관 및 기업 참여 강화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교육지원' 활동 포함		○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문화 조성		○

주 1) 단기는 1-2년 이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장기는 3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

나. 지역단위 추진 사항

지역단위의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교육청 산하의 자유학기제 지원 조직, 지역의 진로진학지원센터 등에서 추진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인 사항과 중장기적인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과제들은 국가단위 체제 및 단위학교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협력도 요구될 것이다.

<표 VI-2>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역단위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칭) 진로체험 집중 주간 편성·운영	○	
	자유학기 운영 학기의 일원화	○	
수업 운영	진로탐색 수업을 위한 중앙-지역-학교의 체계적 역할 분담	○	
	지역단위 교사 연구회 및 연구대회 지원 강화	○	
평가 및 환류	교육청 단위의 자유학기 운영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인적자원	관리자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중학교 전체 교원에게 자유학기제 연수 제공	○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학생의 진로탐색 성과를 활용한 공모전 및 대회 활성화	○	
	자율과정 담당 일반교과 교원의 진로탐색 역량 제고 연수	○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	
	외부 진로탐색 전문 강사 활용비 지원 및 기준 마련	○	
	교육지원청 단위로 진로탐색 강사 정보 관리 강화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및 활용 강화	○	
체험 인프라	교육청과 지자체, 상공회의소의 실질적인 연계·협약 강화	○	
	교육지원청 단위 (가칭)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지원	○	
	지역단위 학생 진로체험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비용 지원 확대 및 지원 방법 개선	○	
	진로체험 기관(기업)에 대한 운영 방법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체험 활성화	○	
지원체제 및 환경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지원 조직 간의 통합·연계 운영	○	
	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 및 단계적 홍보 강화	○	
	모든 교원에게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안내	○	

주 1) 단기는 1-2년 이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장기는 3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

다. 학교단위 추진 사항

학교단위에서 추진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과제들은 국가단위 체제 및 지역학교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협력도 요구될 것이다.

<표 VI-3>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학교단위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진로탐색 활동을 블록타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	
	(가칭) 진로체험 집중 주간 편성·운영	○	
	학생 중심의 진로탐색·체험 동아리 활성화	○	
	방과 후 활동을 학생 흥미·적성 과정으로 운영	○	
	토요일은 학생 자기주도활동이 장려된 심화과정으로 운영	○	
수업 운영	생활과 지역현장으로 확장되는 진로탐색 수업 방법의 개선	○	
	일반교과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강화	○	
평가 및 환류	에듀팟을 활용한 자율적 진로탐색 포트폴리오 작성·관리 촉진	○	
	진로탐색 활동 기록의 진로지도에 활용성 제고	○	
인적자원	교원 간의 고른 역할분담을 통한 특정교사 편중 방지	○	
체험 인프라	가정 내 진로체험을 자유학기 체험활동으로 인정	○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사전 정기·상시 안전교육 강화	○	
	학교 단체행사(소풍, 수련회 등)를 진로체험으로 연계 운영	○	

구분	활성화 및 지원 과제	단기	중장기
	단위학교 진로체험 지원 자원봉사 인력 활용 강화	○	
	농산어촌 소규모 인접 학교 간의 진로체험 공동 운영	○	
지원체제 및 환경	정부-교육청-학교의 체계적 및 단계적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진로탐색 및 학습공동체 구축 강화		○

주 1) 단기는 1-2년 이내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장기는 3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

2. 후속 연구 · 사업 과제 추진에 관한 제언

이 연구를 통하여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관점에서 검토 및 연구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및 사업 과제로는 다음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학교급별 및 학년별 학생 진로탐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유학기의 진로탐색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미 개발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자유학기에 보다 특화되도록 재개발 및 보급 ·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진로탐색 활동의 평가 방법, 학생부 작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운영 방법과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자유학기의 진로탐색 활동 및 여타의 진로탐색 활동이 향후 상급 학년 및 상급 학교에서 진로지도 등에 활용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산정 및 배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예비 교원의 진로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단위로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여덟째, 진로체험을 매칭 할 수 있는 윈스톱 통합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실현 사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진로체험활동 운영 매뉴얼 및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교육부(2013).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 _____ (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 _____ (2014).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교육부 업무보고.
- _____ (2014).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 결과』. 보도자료.
- _____ (2014).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교장 연수 자료집』.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2nd 진로교육 국제포럼 -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곽병선(2013).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포럼.
- 김나라(2012).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외(2014).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진 외(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 김진숙(2011). 『아일랜드 연계학년제(YT)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6호. 163~179쪽.
- 김현철(2013).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현안 보고서 2013년 1호. 23~25쪽.
- 성은모(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 교육연구, 제26권 4호. 60~61쪽.
- _____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6쪽.
- 손유미·진미석·서유정(2011). 『창의적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 이지연(2009). 『과도한 대학진학 억제와 직업기술교육 확대를 위한 진로교육 혁신방안 : 교과통합 진로교육』. BH 보고자료.
- _____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2013년 제1회 진로교육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3~49쪽.
- _____ (2013). 『진로 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1~22쪽.
- 정윤경(2009).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진미석·손유미·김도협(201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상덕(2013).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제10권 제1호, 5~82쪽.
- 한국교육개발원(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자료집』.
- _____ (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년 제1회 진로교육포럼 -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 한국진로교육학회(2013).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제36차 한국진로교육 학회 춘계학술대회』.
- Jeffers, G. (2008). *Innovation and resistance in Irish schooling: The case of transition year*. University of Limerick.
- _____. (2010).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30(5), 469-486.
- _____. (2012). “Work experience programmes in schools: stretching horizons”. *Presentation at Educational Studies Association of Ireland Annual Conference*, Cork, 30 March 2012.
- _____. (2013). Ireland’s Transition Year: Insights and Challenges. 2nd KRIVET International Career Education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for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13th June 2013.
- Jones, A. (2013). Reflecting on the UK Gap Year : Insights for South Korean’s ‘Free Learning Semester’. 2nd KRIVET International Career Education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for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13th June 2013.
- Katznelson, N.(2013). Denmark and the Gap Years. 2nd KRIVET International Career Education Forum, New Educational Policy 『Free Learning Semester』: Toward Revitalization for Career Exploration Oriented Approach. 13th June 2013.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서 우 석 (한국진로교육학회장)

I. 들어가며

먼저,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좋은 연구와 발표를 해 주신 장현진 박사님과 동료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 원고는 진로탐색 영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성공요인과 및 장애요인을 확인한 후에 성공요인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문헌연구와 시범학교 운영보고서의 내용분석, 그리고 관계자 FGI, 그리고 현장방문과 인터뷰 등 매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진로탐색 영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어떤 요인에 의해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과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2) 수업운영, (3) 평가 및 환류, (4) 인적 자원, (5) 체험 인프라, (6) 지원체제 및 환경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장현진 박사님이 제시한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과 활성화 방안들이 추후 2016년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현진 박사님이 발표한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의 성공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개하며

1.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교육분야 공약으로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공약으로 (1)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2) 교육복지 확충, (3)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고, 학교교육정상화 추진의 한 과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제시하였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 발표된 교육공약을 38개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였는데, 그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과제라는 것이다(곽병선, 2013). 이제 자유학기제는 공약을 넘어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2013년 시범학교 운영, 2014년 희망학교 운영 확대로 이어졌고, 2015 운영모델 확립, 2016년 전면 도입으로 전개될 예정이다(교육부, 2013).

그러나 아직도 자유학기제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장현진 박사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라는 용어에서도 물어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진로탐색 중심의 유형 또는 모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유학기제를 (1) 인성교육, (2) 수업개선, (3) 진로교육의 세 축으로 개념화하였으며(곽병선, 2013), 최상덕(2013)은 자유학기제를 (1) 진로탐색 중심 모형, (2) 선택프로그램 중심 모형, (3) 동아리 중심 모형, (4) 예체능 중심 모형, 그리고 (5) 혼합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또는 진로교육 중심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 진로탐색 이외의 다양한 교육적 내용 또는 가치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황규호(20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성격을 학교교육을 치유하기 위한 ‘특효약’(진로탐색활동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만병통치약’(공교육 정상화 또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든 정책)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발표자는 이 중에서 어렵게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자유학기제의 총체적인 운영 모형 또는 접근 모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제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직업체험방안, 체험 인프라 구축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부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유학기 전 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진로탐색 영역에 국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부터 시작하여 교수 학습방법, 평가, 체험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까지 전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우수사례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한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안내해 주고 있어, 추후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른 모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또한 다른 모형과 혼합모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2. 자유학기제 성공요인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및 장애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자유학기제 시범운영보고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성공요인을 추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고려되는 요인이나 준거가 무엇인지, 또한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나 제도, 그리고 정책적인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도출에 있어서 단서가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장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수업(교수·학습), 평가 및 환류, 인적자원, 체험 인프라, 그리고 지원 체제 및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성공 및 장애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제시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에서도 기대를 넘어서는 성공요인들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많았지만,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가 힘을 모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수업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새로운 평가 방법을 구안하고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 자원개발에 힘쓰고, 체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성공요인이나 촉진요인보다도 장애요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를 운영과정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래도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풀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는데, 문제는 학교 밖과 연계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체험인프라 확충 문제다. 특히, 진로탐색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체험인프라 구축이다. 이 발표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체험 인프라 발굴을 위해 (1) 지역 단위의 진로체험 협력체(예, 지원청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성하고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인프라 확보하며, (3) 특성화고를 진로체험 기관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4) 학부모 및 교육기부 활용한 체험처 확보하고, (5) 직업체험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지원하고, (6) 소규모 실천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성공 요인들이다. 그러나 (1) 소그룹 학생 체험을 진행할 체험처 확보와 유지가 어렵고, (2) 진로체험 장소 섭외를 진로교사에게 일임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3) 기업체 및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미흡

하며, (4) 단위학교별로 체험처와 1:1 MOU는 비효율 및 업무과중 초래하고, (5) 체험에 따른 안전 사고 대응 체계 미흡, (6) 진로 체험활동 구성 및 질 관리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학교 밖과 연계하는 일은 낯선 일이다. 무엇보다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아일랜드나 일본, 덴마크 등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직업체험활동을 이어온 나라들과는 달리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지 않고 지역사회 분위기도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기봉 외(2011)가 지적하듯이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녀가 성공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장을 연결해 주고,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에 대하여 우호적일 때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가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성공요인으로 학부모 및 교육기부를 활용한 체험처 확보를 들고 있어-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후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부모의 관심 제고와 더불어 사회의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성공요인들의 사례를 어느 학교에서 언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각 영역별로 사례를 모아 제시해 준다면 추후 단위학교에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발표자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학생의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단위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운영 장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앞서 성공요인을 확대하고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추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요인과 마찬가지로 6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모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종합적 방안들이라고 판단된다.

가능하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각 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과다로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나가며

다시 한 번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정현진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정의지나 철학,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운영 예산 문제이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도 학생 자부담이나 기부금도 받아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영 학교와 참여 학생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시범학교 운영 때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이외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나아가 자유학기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다른 학기,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학년과 학교급에도 연계시키는 micro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의 자유학기제 관련 제도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지역사회는 교육 선진국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지역의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인적 물적 자원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학교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활동에 대하여 중요성과 호혜성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 기업의 교육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교육 지원이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기어 혹은 직업인의 교육 지원에 대하여 감사나 인정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내재적인 보상이 강화된다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도 기업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발표와 관련하여,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의 모형을 넘어 선택프로그램 중심 모형, 동아리 중심 모형, 예체능 중심 모형, 그리고 혼합모형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요구한다. 6가지 영역별로 기존의 우수 사례를 모으고, 또한 새로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은 물론 재원의 아낌없는 투자 등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일로 교육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모으고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재고

배 경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최근 3년만 한정하더라도,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교과교실제, 성취평가제,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에서는 진로집중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가 전국 50%이상 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는 현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대개의 정책들이 그러하듯, ‘개념’만 있고 ‘세부’가 없을 때는 각자의 자유로운 해석들이 난무하게 마련이다. 특히 입시 지배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학교 현실에서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파격적인 시도는 교육계의 분분한 이견과 학부모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작년 한해는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추진 방향이 정립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었다. 그 동안 개념의 모호, 초점의 변화, 추진 과제의 상투적 이해 등으로 업무의 지연과 혼선,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2013. 3월에 자유학기제의 개념 모색을 시작으로 그 해 6월이 되어서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기본방향을 두어 추진됨으로써 ‘학교 밖’ 진로 및 체험 활동이 주로 강조된 데다, 마침 연구학교들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던 시기에 진행된 워크숍과 제공된 소개자료 등이 주로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업무담당자들이 자유학기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었다. 2학기에 시범학교 운영이 되면서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정립되고, 추진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수차례 의견 수렴과정에서 기본 운영계획 안내와 연구학교 발대식이 지연되고, 발대식 이후에도 방향성의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학교 한 학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이나 ‘체험활동’에 국한되거나 ‘시험도 안 보고’ ‘한 학기’ 적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교육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이 명확해지고, 어느 정도 모양이 거의 만들어진 단계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용에 따라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가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먼저 실천한 학교의 사례가 곧 우수사례가 되어 많은 학교들이 모방하고 있다. 현재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고민을 입을 겨를이 없이 겉 모양만 따라 하는 모양새다.

이제 자유학기제가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찾았고 많은 학교가 자유학기제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유학기제에 대한 ‘총론’ 연수를 확대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정작 학생들의 역량을 찾고 길러주기 위해 교과교육과정을 자유학과 일반학을 구분하여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 효과적인 수업방법은 무엇이며, 수업 속에서 찾은 학생 역량을 어떻게 지도하고 평가할 것인가? 자유학과 일반학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과 방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등 교육과정 편성에서 수업, 평가, 창의적체험활동, 자율과정 등 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예시자료 등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차제에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자유학기제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본 세미나는 가뭄에 단비이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원해 주어야 할 요소를 함께 고민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유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은 물론 학생의 역량을 찾아 조장해주는 수업과 평가 방법의 구현은 교원 전체의 이해와 협력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진로교육은 학교와 사회전문가, 그리고 각 기관과 기업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며,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2년차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더욱 더 의미하는 바가 크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1.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 확대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취지를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 확대에 두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표현이다. 자유학기제는 ‘진로 수업’과 ‘진로활동’의 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요한 지적이다. 작년도 상반기,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모호할 때는 자유학기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뉘’으로 눈길이 쏠리어 진로 체험이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를 주목했고, 그것을 자유학기제의 모델로 간주했다. 그래서 일부 운영교에서는 당장 ‘체험활동비’ 부족을 고충으로 토로했다. 또한 많은 학교가 ‘진로탐색 중심의 교육’을 ‘진로’교육으로 좁게 해석하여 진로관련

수업시간의 증배에만 관심을 두거나, 공통과정의 기본교과 수업방법과 자율과정 편성이 기존의 일반학과와 진배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미래를 전제로, 학교 교육의 지향과 방법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성찰하고,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운영, 수업 방법에서 평가 방법까지 학생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조장해주는 것으로의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매우 값진 시간’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나 제언하자면,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으로 성격을 제시한다면 이미 역량중심의 창의인성수업과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학교현장에 오해는 줄어들 것이리라 생각한다.

자유학기제의 본령이 단순히 ‘진로 수업’의 확대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와 선택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유연화, 학생들의 역량을 찾아주고 발휘할 기회를 확대해 주는 학생 참여 중심수업을 위한 교실의 혁신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로탐색활동을 촉진하는 수업 영역에서 ‘교과통합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 조사지 또는 응답자들이 아직도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교육관련 수업을 일반교과수업과 이원화하여 보고 있으며, 진로 탐색의 중심축을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했듯이 자유학기제에서는 일반교과의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수업 방법까지 교과관련 핵심역량 중 어떤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구비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수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과시간에 알게 된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해 보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로탐색활동을 촉진하는 수업 방법으로 ‘전교과수업의 학생참여중심 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항목으로 고려되었어야 하리라.

3. 진로 탐색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방안

진로관련 수업과 창의적체험활동은 전 학교급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학교급별로 진로 인식(초등학교) → 진로탐색(중학교) → 진로준비 및 설계(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강조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 내용과 방법을 보면 별 차별성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진로체험지로

초등학교 때 다녀온 곳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겹치는 것은 물론 체험 후의 특별한 환류 내용 없이 체험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별 다를 바 없다. 진로체험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기본 취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진로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상세한 도움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학기와는 달리 자유학기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의 취지와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소상하게 안내 지원해 줄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교육과정 내 자유학기의 진로탐색 관점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방안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단, 자유학기에는 진로탐색활동을 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학기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이해도 돕고, 자유학기에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담아가는 과정 중심의 진로탐색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 본다.

둘째, 학생 진로 탐색활동을 블록타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역량 중심 교육이며, 이것은 학생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므로 1시간 수업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배경에서 블록타임제 만이 아니라 집중이수제를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탐구 시간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지원해 주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진로탐색활동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 담아주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희망하거나 소질에 부합하는 진로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영역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어야 학생중심의 자율과정 개설 취지에 맞는 것일 것이며, 또한 교육환경이나 시설이 각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구비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은 배가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각 중학교에 구축된 교과교실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설계하자니, 일반교실보다 교과교실이 필요하다. 혹여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교과교실제 등을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수업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살펴볼 일이다. 몸(수업)에다 옷을 맞춰야 하는데 옷에다 몸을 맞추려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 관련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나 자율선택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설이 없어 편성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련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에 큰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교구나 학습자료를 구축해 있다면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학생이 희망하고 선택하는 자율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재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급수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강좌를 개설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향후 자유학기제 정책에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탄력적인 활동 방법에 대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재량권 증대에 대한 의견이다. 자유학기를 처음 도입한 연구학교들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하는

지, 또 ‘시험도 안 본다는데’ 교실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등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의 맨 마지막 항목인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를 제시하며 운영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상관없이 마음껏 해도 좋다고 했으나, 그런 상황이 학교로서는 더 막연하고 답답한 지경이었다.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에 기본수업 시수가 제시되어 있지만, 자유학기에 수업시수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교과별 수업시수가 총론에서 제시한 증감 가능한 수업시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과들도 있어 해당 학교들은 ‘지침위반’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또한 필수이수과목과 시간들을 자유학기에서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물론 신뢰성있는 유권해석도 없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냥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으니 자율 그대로 하라고 해도, 자율은 주어진 지침 범위내에서의 자유 아니던가? 무율로 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지침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4.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및 환류 방안

진로탐색 활동 평가 및 환류 방안에서 진로탐색 활동 내역에 대한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을 근거로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13조 제④항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또한 관련 해설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에듀팍 등)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란에 학급담임교사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당교사에 대해 이미 안내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담당자가 명확하게 상호 이해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제안을 하고 이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전제요건을 제시한다. 인력 추가지원 및 배치, 예산 증액, 활용 시간 확보 등은 공통분모이자 단골로 제시되는 전제 요건들이다.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인 좋은 교육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심도 깊은 고민과 지원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해 본다.

자유학기제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중심교육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취지보다는 정책의 세부에 함몰되어 방향(길)을 잃어버리는 오류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자유학기제를 학생의 다양성을 찾고 담아내는 유연한 그릇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과정의 관점을 학생의 다양한 관심, 흥미, 적성에 초점을 두면서 학생의 역량을 찾아내는 수업과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고정된 틀에다 학생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게 학교의 교육활동을 적용시켜야 한다. 황규호¹⁾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의문들을 거론하면서, ‘학생의 변화’(진로교육)와 ‘학교의 변화’(교육과정) 중 시급한 것은 후자이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교원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게 아니나 충분히 보람 있는 과제이다. ‘준비하는데 힘들었지만 막상 시작되고 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는 운영교 교사들의 말대로, 처음에는 염려가 많았는데, 오히려 교사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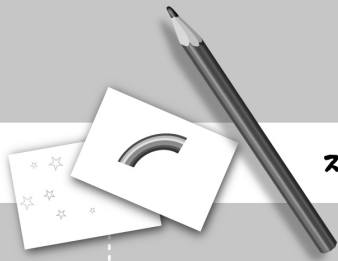
정광순²⁾은 자유학기제의 개념이 결국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수업 변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교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존중(고려)하는 가운데, 교과서를 축약 확대 재구성하는 역량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수업의 변화는 교사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재구성해서 확보한 여유 차이나 시간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진로 탐색이든 자기 탐색이든 모종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만약 축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도 나가는 수업’에 고정된 경우라면, 단원 내 차시 간 경중을 구분하는 역량이라든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분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단원의 학습 초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니,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교육과정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교육과정 전문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이외에는 교육과정에 무관심하다. 자유학기제는 ‘작년 그대로’할 수도 없고, ‘옆 학교를 따라할 수도 없다.’ 전체 교사가 함께 지혜를 짜내며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과정에 둔감하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없고, 설령 운영한다 하더라도, 흉내만 내는 격이니 학교교육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는 그 시행에 걸맞은 분위기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를 강조한다면, 생각이 먼저 자유로워야 할 것인데, 운영교 담당자들은 오히려 속박감을 호소한다. 일을 위한 일도 만만찮다. 창의적 수업은 기계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학교마다 특색 있는 무수한 자율과정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교사가 신이 나와만 가능한 일이다. 학생의 ‘행복’을 위해 교사가 도구적으로 소모되는 느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학생을 위해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시적인 ‘무엇’을 ‘빨리’ 요구하는 정책적 조급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1)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제1차 세미나(2013.9.5) 자료집 pp.39-47.

2) 2013 자유학기제 정책과정 집중연수(2013.8.6~8.7). pp.47-7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발표 3]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실태와 과제

❖ 발표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김정숙(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토론 5] 지속가능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한 과제
박찬열(홍은동청소년문화의집)

[토론 6] 삶속에 스며드는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과제
이승순(부평동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실태와 과제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김정숙(서울교육연구정보원)

I. 서론

2013년 5월부터 시범 시행된 자유학기제¹⁾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그동안 청소년기관²⁾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나,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은 1990년대부터 봉사활동, 특별활동, 주5일제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로 매 시점과 이슈를 달리해서 시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 연구로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형과 방안(임지연, 김정주, 2007; 안선영, 최창욱, 2011;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김현철, 윤혜순, 2013; 성은모, 정효정, 2013; 김기현, 2013; 임지연, 김영석, 2013)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연계·협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실태와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거시적인 논리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공감하는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청소년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청소년활동과 건전한 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임지연, 송병국, 이교봉, 김영석, 2010; 김형주, 임지연 외, 2011).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학교입장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연계 체험활동의 교육적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실질적인

1)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하여 2016년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학생 참여 형태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교육부, 2013).

2)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 및 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소년수련관)나 읍·면·동(문화의집)에 설립하여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설치와 운영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계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기관 입장에서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학교연계 체험활동, 공공기관 사업을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체험활동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지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진정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각 사례에서 성공요인을 찾고 실태를 조사해서 현장에 근거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연계 체험활동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내용으로 실무적 요구가 많은 내용들이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역연계, 체험활동은 실천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는 면담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실태와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우선 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슈들은 조사 결과분석에서 제시된 이동수단, 안전대책, 프로그램, 현장 교육멘토, 체험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다양한 체험방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 학교-지역 연계·협력을 위한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방안과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연결하여 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탐색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과의 연계·협력은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도 되어온 과제이다. 1991년 12월 31일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3년부터 시행된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의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정책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1995년 발표한 5.31 신교육개혁안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의 강화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착되면서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접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학생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정책분야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및 지도자를 연계함으로써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정책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천정웅·김정주(1999)의 연구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포괄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이광호·이태재·윤철경(1999)의 연구는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의 연계, 김정배·추성수·남미애·우정자(2001)의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이민희·주동범·김홍주·임지연(2005)의 연구는 학교교육활동과 청소년활동의 포괄적인 연계, 최창욱·송병국·김혁진·남화성·이영민(2009)의 연구는 교육정책의 전반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의 연계, 김현철·최창욱·민경석(2010)의 연구는 창의적체험활동과의 연계, 김기현·맹영임(2011)의 연구는 진로체험과의 연계, 성은모(2013)의 연구는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연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해당 연구가 수행된 시점에서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주요 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연계·협력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연계·협력의 변화과정과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 또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것을 파악하였다. 그 방안들에는 공통적으로 연계·협력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 모두의 인식의 변화,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의 확충과 개선,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정책과 재원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에 대한 논의와 사업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현장의 학교연계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실행은 부족하다. 둘째,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연계·협력의 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다양한 연계·협력 모형이 제시되었다. 넷째,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허브로서의 청소년활동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위상정립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여섯째,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일곱째,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에서 청소년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시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해 보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운영 모델 확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도 제고로 전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국 시범사업에 이르는 3년간의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분야에서는 아쉽게도 2014년도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3년간 개발 적용되어 온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이 아직 전국적으로 안정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생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분명 여러 운영사례를 통해 현장의 변화와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및 학교정책과 협력 증진, 시설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김주희, 2014).

그동안 청소년활동분야에서 여러 차례 학교교육과의 연계방안을 탐색하였고 현장에서 학교연계가 시도되고 있지만 일선 청소년기관 및 학교 단위의 현장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연계가 정책적으로 운영된 사례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중앙 및 16개 시·도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쳤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서울시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2013년에 42개 수련시설과 191개 학교에서 운영된 이후에 정책지원이 중단되었다. 이처럼 학교교육과 청소년활동의 연계·협력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있는 몇몇 사업에서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일상적인 연계·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균 10.98개의 학교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체결하였고, 연계·협력 사업수도 평균 49.25개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연계·협력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있어 교과 수업과 더불어 직·간접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학생 체험활동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 방안을 모색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013)를 보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수업 방식을 가장 선호하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선택프로

그럼과 다양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도 42개교 중 15개교만이 청소년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2013년 현재 42개교 수준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준비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 활동 유관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대화와 소통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활동 기관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홍보,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 활동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황은희, 2014).

Ⅲ. 조사개요

1. 면담조사 목적 및 조사대상

면담조사의 목적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담당자가 인식하는 자유학기제의 실태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맥락적 상황들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조사의 주요내용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활동,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지역 기관들과의 연계과정, 성공적 운영의 요인 등이다.

면담조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사회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과정을 통해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방법과 비체계적 질적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하였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근거이론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학자에 의해 4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Glaser, B., & Strauss, A. (1967)을 이병식 외 공역,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연구 상황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Strauss & Corbin (1998)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80개) 교사, 자유학기제와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지도사, 지역사회기관 현장교육담당자(공공기관,대기업,개인사업장,민간단체)이다. 면담자의 특성은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지역체험활동을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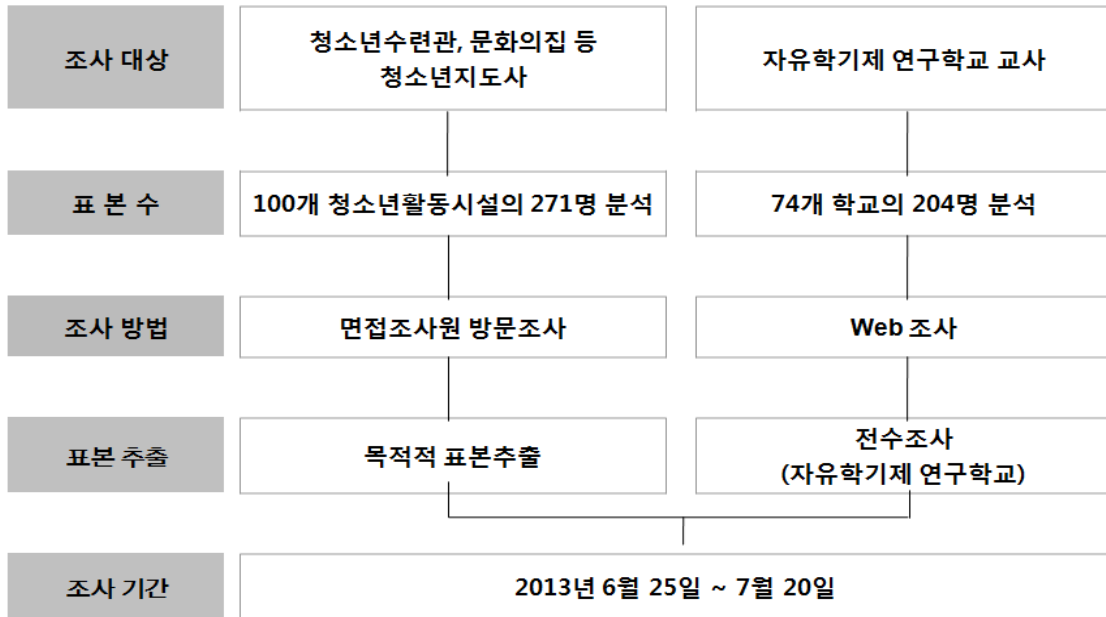
<표 III-1> 면담조사 소개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관련 사례조사 및 전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활용 (경험, 유형, 소재지, 지역특성 순으로 고려)
면담참여자 수	(개별면담)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체험기관 별로 1인 내외 21명 (FGI면담) 학생과 학부모 21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자유학기제를 통한 체험활동 경험자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담당자)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연구자가 직접 방문조사 (개별 및 FGI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기간	2014년 4월-6월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정도 2회 내외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음 후 전사, 기록
면담자	연구자

2. 설문조사 목적 및 조사대상

설문조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³⁾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설문문항의 형식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실천도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은 문헌연구, 현장워크숍, 현장관찰, 면접조사 결과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초안을 작성한 후 설문개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첫째,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전수조사로 현재 80개 학교당 4명의 담당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중심) 청소년지도사 24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였다. 이후 80개 학교의 204명의 교사, 100개 청소년활동시설의 271명 청소년지도사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3)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부터 시범운영되기 시작하여 2016년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2013).



[그림 III-1] 설문 조사 개요

3. 설문지 개발과정

설문 조사영역은 ① 전문인력(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② 프로그램(개발, 운영, 평가) ③ 연계협력(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④ 기반구축(제도마련) ⑤ 인적사항/배경변인 이다. 4개의 영역, 8개의 소영역 별로 세부 문항은 33문항이며, 배경변인은 7문항이다. 전문인력은 7문항, 프로그램은 14문항, 연계협력은 6문항, 기반구축은 9문항, 배경변인은 청소년지도사/교사 각 7문항이다.

설문지 개발과정은 문헌고찰과 워크숍,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 초안을 만들고 청소년 지도사용, 담당 교사용으로 2가지 종류로 개발하였다. 이후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회의와 설문지 개발 워크숍,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III-2>. 영역구분은 정책제언에 필요한 영역으로 문헌과 연구진 협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표 III-2> 설문지 영역별 문항 (청소년지도사/교사)

영역	소영역	세부항목
전문인력	전문성 확보	1)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장(기관장) 연수 2) 학교(지역)연계 전담 인력의 채용 3) 학교(지역)연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4) 학교(지역)연계 해당 학교(기관)의 업무내용 및 방향의 지속성

영역	소영역	세부항목
	실무역량 육성	15) 행정기관에서 학교(지역)체험활동 운영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육성 16) 자유학기제에 관한 실무자 연수 실시 17) 지역체험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 33)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
프로그램 (운영, 개발, 평가)	프로그램 개발	9) 청소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12) 지역체험 활동 시 참가 청소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30)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7) 청소년 지역체험 인솔도우미 봉사단 운영 8) 청소년 지역체험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11) 지역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14) 지역체험활동 결과에 대한 전시회나 발표회 운영 18)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역할에 대한 사전 협의 25)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26)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프로그램 평가	10) 학교(기관) 평가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반영 강화 13) 지역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평가실시(예, 평가회의, 만족도 등) 29)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프로그램 공동 평가 실시
연계협력	체험기관 인센티브	5) 참여한 청소년지역체험기관에 대한 표창, 명단공개, 감사패, 감사편지 등 인센티브 부여 6) 청소년 지역체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21)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협력체계	19)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사업 MOU 협정 20) 행정 권역별 학교/청소년체험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기반구축	제도마련	22)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23)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24) 지역체험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7)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 확대 28)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32) 체험활동 안전대책마련
배경 변인 (청소년지도사)		1)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2) 응답자 직위(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기타) 3)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4) 학교연계 인식정도 5) 학교연계 어려운 이유 6) 기관 지역규모(16개 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기관주소) 7) 기관규모(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등 대·중·소규모)
배경 변인 (교사)		1)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수업방법개선, 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교내), 진로 활동(교내), 지역체험활동(진로·직업·동아리활동·선택프로그램), 기타)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경험 유무 3) 지역체험활동 인식정도 4)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인식정도 5)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6) 학교 지역규모 (16개 광역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학교주소) 7) 학교규모 (자유학기제 해당학년 학급수, 학급별 인원수 등 대·중·소규모)

IV. 조사 결과

1. 면담조사 결과분석⁴⁾

가. 자료분석 결과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 (1998)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수집된 자료 속에 존재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생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개방코딩을 실시한다. 개방코딩을 통해 수집된 코드들을 반복적 비교함으로써 일정한 범주들(categories)을 구성한다. 둘째, 축코딩을 위해 앞단계에서 추출된 범주를 제안된 패러다임에 따라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로 구분한다. 셋째, 선택코딩을 위해 다양한 범주들이 통합의 기준이 되는 핵심(중심)범주를 선정하고, 이야기 윤곽(story line)과 그림 그리기를 통해 범주들의 통합을 시도한다.

(1) 개방코딩(open co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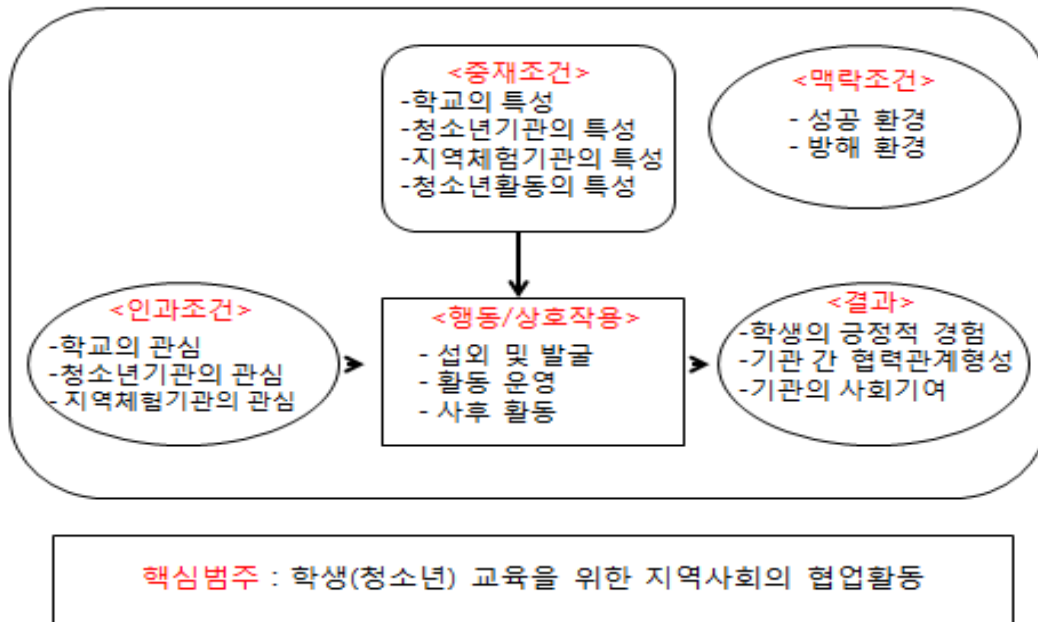
개방코딩은 수집된 자료 안에 존재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의 과정은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 Strauss, 1967)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수집된 인터뷰 및 관찰 자료를 단어/어구/문장 수준에서 꼼꼼히 세분화 한 후 각 단어/어구/문장에 존재하는 주요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각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사건, 의미, 활동 등)을 개념의 공통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범주’(category)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범주들을 서로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범주의 특성에 따라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구분한다.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의 목적은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연구현상의 구조(‘왜’에 대한 설명)와 과정(‘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Strauss & Corbin(1998)은 축코딩 과정 중에 연구현상의 분석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적 구조 즉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축코딩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4) 면담조사 결과는 김영석(동의대학교 교수)가 근거이론으로 자료분석하였다.



[그림 IV-1] 축 코딩 결과(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가) 인과조건

자유학기제 속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학교의 관심’과 ‘청소년기관의 관심’ ‘기타 지역기관’으로 도출되었다. 학교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또는 희망학교를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의 경우 기존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계된 학교의 요청을 받거나 이들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사명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타 지역기관의 관심은 사회적 책임추구, 기관 홍보 추구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나) 중재조건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특성’, ‘청소년기관의 특성’, ‘지역기관의 특성’, ‘청소년활동의 특성’이 중재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동일한 연구 또는 희망학교라 할지라도 개별 교사가 얼마나 자발적 노력을 보이는 지,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를 위한 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얼마나 협조적인지가 이들의 자유학기제 활동의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기관의 경우 연계된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소규모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인적구성원의 열정이 있을수록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특성은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도,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정도가 청소년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경우는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함께 지원하고 행정협조를 해주는지가 중재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 홍보, 공문 등의 행정지원 등 다각적 협력체계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맥락조건

자유학기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조건은 ‘성공환경’과 ‘방해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공환경으로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으로 학교-청소년기관-지역사회기관 간에 형성된 협력적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국가 및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 기존 정책의 일관성 없는 진행, 학교가 청소년기관에 갖고 있는 폐쇄적 태도, 교사들의 도전정신 결여, 학교와 학생의 사전준비 부족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행동/상호작용

자유학기제 활동의 주체인 학교, 청소년기관, 관련 지역기관이 보이는 활동 및 상호작용은 크게 ‘섭외 및 발굴’, ‘활동 운영’, ‘사후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섭외 및 발굴 단계에서는 학교가 먼저 청소년기관과 지역기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제안하는 경우와 청소년기관이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학교에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활동 운영과정은 학교와 청소년기관 간의 방문 및 협의회 활동, 서로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활동,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활동으로 구분된다. 셋째, 활동 운영을 마친 이후에는 학교 측에서 직업 체험 및 지역 체험 기회를 제공한 지역기관에 감사 인사를 하는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들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활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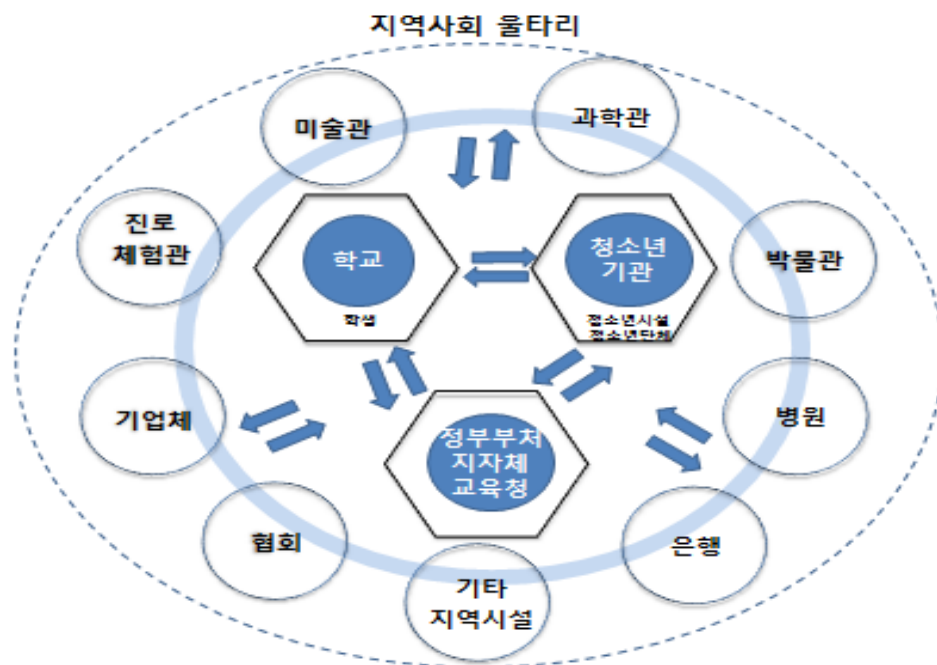
(마) 결과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는 ‘학생의 긍정적 경험’과 ‘기관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이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및 교실 안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적성개발, 직업적 흥미 발생, 공동체 의식 함양, 자존감 향상 등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연계된 학교, 청소년기관, 기타 지역체험기관 간에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도 증진 등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축코딩 속에 존재하는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함으로써 연구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다. 선택코딩의 핵심적 과정은 ‘핵심 범주 선정’과 ‘그림/표로 표현하기’이다. 연구현상의 다양한 범주를 통합할 수 있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활동)’이 선정되었다. 핵심범주와 관련된 활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학생(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활동

먼저,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사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교 교사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관과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 교사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직업 및 사회를 체험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청소년기관은 자유학기제의 특성 상 보다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달리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와 연계됨으로서 학교의 교무 및 연구 활동 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안에 위치하는 학교, 청소년기관, 진로체험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병원, 은행, 협회, 기업체, 기타 지역시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교육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은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인 청소년들을 보다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갖게 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과 자유학기제의 협업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다각적 협력체제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예산, 전담조직 인력, 홍보, 공문 등 행정협조 등을 다각적으로 함께 지원할 때에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협업 활동이 신뢰롭게 잘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지도사(100개 청소년기관, 271명)와 교사(자유학기제 연구학교 80개중 74개 학교, 204명)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 응답자의 특성은 청소년기관의 규모, 지역규모, 청소년기관의 유형, 응답자의 직위,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 응답자의 특성은 학교규모, 지역규모,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표 IV-1>.

<표 IV-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지도사, 교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청소년지도사 (100개기관)	청소년지도사 인원수 (청소년기관 규모)	5명 미만	53	20.9
		5-9명	86	34.0
		10-19명	81	32.0
		20명 이상	33	13.0
		합 계	253	100.0
	지역규모 ⁵⁾	대도시	108	47.4
		중소도시	77	33.8
		읍면지역	43	18.9
		합 계	228	100.0
	현재 근무 중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	청소년수련관	141	52.6
		청소년문화의집	63	23.5
		청소년수련원	26	9.7
		기타(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등) ⁶⁾	38	14.2
		합 계	268	100.0
	응답자의 직위	기관장	4	1.5
		중간관리자(청소년지도사)	81	30.3
		실무자(청소년지도사)	171	64.0
		기타	11	4.1
		합 계	267	100.0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	경험이 있다	224	83.6
경험이 없다		44	16.4	
합 계		268	100.0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46	54.7	
	중요하다	112	41.9	
	중요하지않다	9	3.4	
	합 계	267	100.0	
교사 (74개 학교)	학교규모 ⁷⁾	대규모	55	27.2
		중규모	101	50.0
		소규모	46	22.8
		합 계	202	100.0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97	48.0
		중소도시	43	21.3
		읍면지역	62	30.7
		합 계	202	100.0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	없음	2	1.0
		학기당 1-2회	34	16.7
		학기당 3-5회	86	42.2
		학기당 6-10회	38	18.6
		월2회 이상	16	7.8
		주1회 이상	18	8.8
		주2회 이상	10	4.9
		합 계	204	100.0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매우 중요하다	117	57.4
		중요하다	84	41.2
		중요하지않다	3	1.5
		합 계	204	100.0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	이름만 들어봤다	32	15.7
		처음 듣는다	2	1.0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47	72.1
		자주 이용한다	23	11.3
합 계		204	100.0	

(1) 응답자의 특성 분석(청소년지도사)

100개의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27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지도사 인원수(청소년기관의 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5-9명(34.0%), 10-19명(32.0%), 5명 미만(20.9%), 20명 이상(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있음(83.6%) 학교연계는 중요함(96.6%)

- 5) 청소년기관의 규모는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5명 미만, 5-9명, 10-19명,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함. 청소년기관이 위치한 **지역규모**는 근무지역의 주소를 기입한 내용을 데이터클리닝을 한 후 자료를 가공하여 recode 하였음. 지역규모의 기준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로 제시된 기준을 사용하였음.
- 6) 기타는 청소년단체,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자유센터 등으로 나타났음.
- 7) **학교규모**는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이상),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학급),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을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규모**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의 지역규모 제시된 내용을 사용하였음. 기준에 대한 출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2) 응답자의 특성 분석(교사)

8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규모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규모(한 학년 평균 4-7 학급)가 50.0%, 대규모(한 학년이 평균 8학급 이상)가 27.2%, 소규모(한 학년이 평균 1-3학급)가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사: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지역연계는 중요함(98.6%) 교사를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시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학기당 1-2회(16.7%), 주1회 이상(8.8%), 월2회(7.8%), 주2회 이상(4.9%), 없음(1.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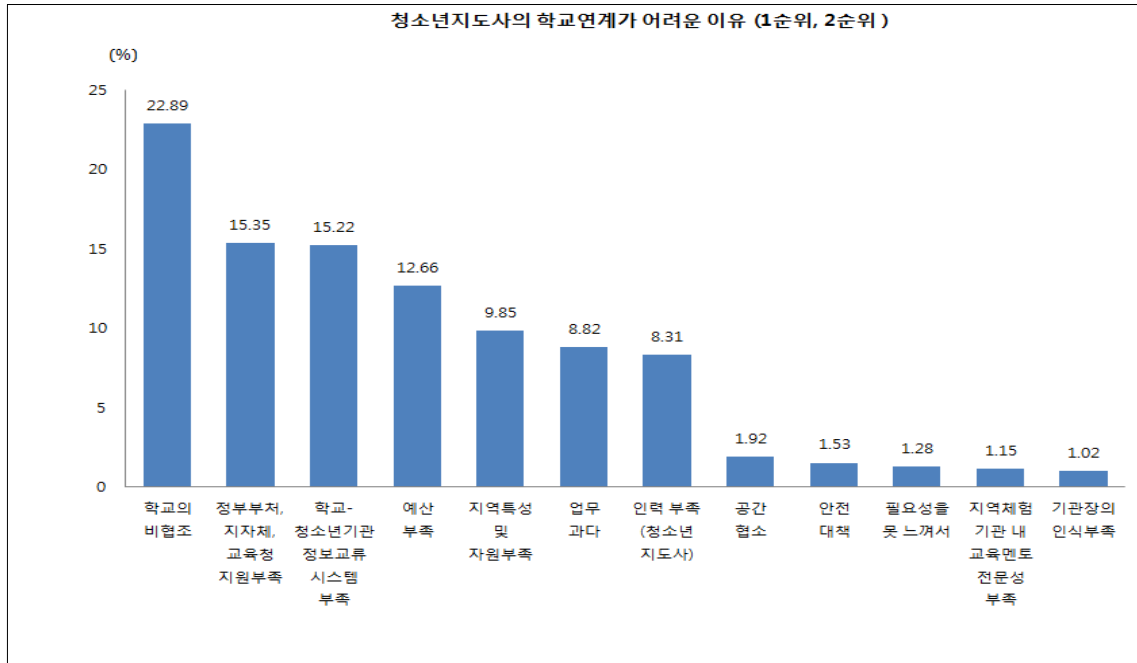
(3) 설문 응답자의 기관 및 지역 분포 (청소년지도사, 교사)

- 청소년지도사(100개 기관의 271명)의 지역분포는 16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7.4%), 중소도시(33.8%), 읍면지역(18.9%)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
- 교사(74개 학교의 204명)의 지역분포는 17개 광역·자치도시의 시군구에서 대도시(48.0%), 중소도시(21.3%), 읍면지역(30.7%)으로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넓게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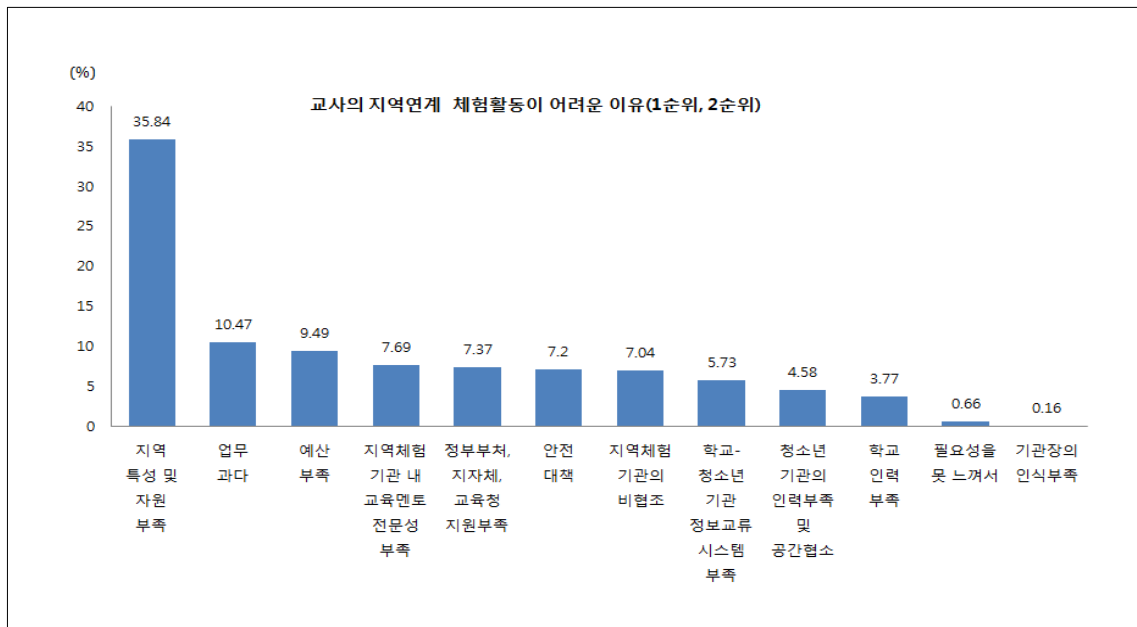
나.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분석)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2순위)와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 2순위)의 조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순위와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순위별로 가중치를 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22.89%)가 가장 높았으며,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15.22%), 예산부족(12.66%),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9.85%), 업무과다(8.82%), 인력부족청소년지도사의 인력부족(8.31%), 공간협소(1.92%), 안전대책(1.53%), 필요성을 못 느껴서(1.28%), 지역체험기관 내 교육멘토 전문성부족(1.15%), 기관장의 인식부족(1.0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 예산부족(9.49%), 지역체험기관의 교육멘토 전문성부족(7.69%),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지원부족(7.37%), 안전대책(7.2%),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7.04%), 학교-청소년기관 정보교류 시스템 부족(5.73%),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4.58%), 학교 인력부족(3.77%), 필요성을 못 느껴서(0.66%), 기관장의 인식부족(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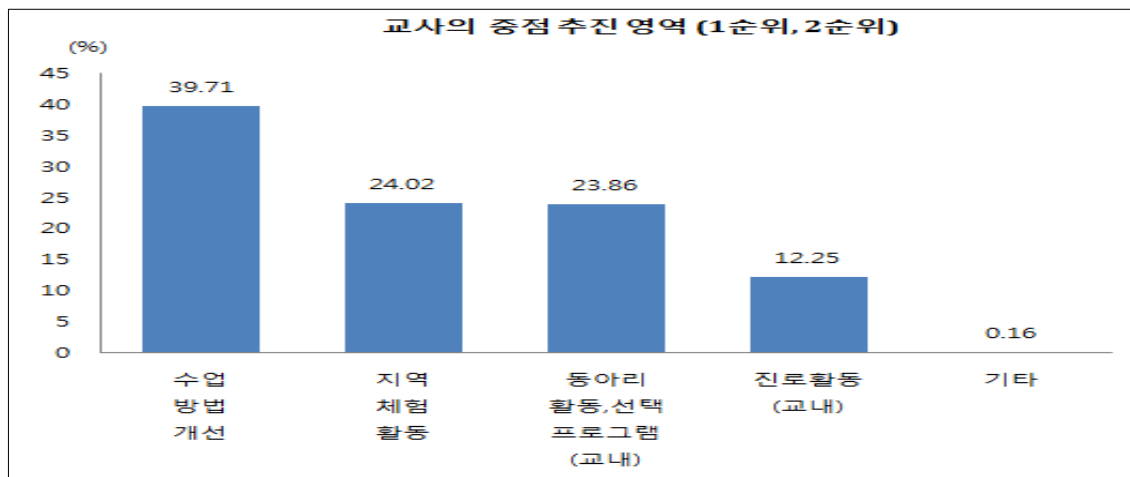
[그림 IV-3] 청소년지도사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그림 IV-4] 교사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교사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1순위, 2순위)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보면,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 진로활동(교내)(12.25%), 기타(0.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방법 개선이 가장 많았지만 약 40%에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으며, 지역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도 약 25% 정도로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동안 편의상 학교는 수업개선 영역에서만 대부분 활동할 것이라고 예측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5] 교사의 자유학기제 중점 추진영역(다중응답분석)

다.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 차이검증 (학교, 청소년기관)

기관 규모와 지역 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5미만의 기대빈도가 20% 미만으로 유의도를 신뢰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한해서 χ^2 검증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응답의 차이, 둘째,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셋째,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응답의 차이, 넷째,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 다섯째,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⁸⁾.

교사를 조사한 결과, **학교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른 차이**는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기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음.

=>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가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규모(42.4%), 소규모(32.9%), 대규모(24.7%) 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음.

학교의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영역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음.

=>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중점추진영역에서 수업방법개선은 대도시(49.1%), 중소도시(30.2%), 읍면지역(20.8%)로 순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체험활동은 대도시(47.4%), 읍면지역(36.8%), 중소도시(15.8%) 순으로 추진하고 있음.

8) 이 글에서는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에 따른** 차이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학교연계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청소년지도사 인원수가 2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학교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학교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의 규모(청소년지도사 인원수)는 5-9명(36.1%), 5명 미만(28.7%), 10-19명(28.7%), 20명이상(6.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는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청소년기관의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는 대도시(41.9%), 중소도시(37.1%), 읍면지역(21.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청소년기관 정보 교류 시스템부족은 대도시(60.7%), 중소도시(32.1%), 읍면지역(7.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및 자원부족은 읍면지역(50%), 대도시(30%), 중소도시(2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규모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은 대도시(52.3%)에 많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중소도시(41.8%)에 위치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읍면지역(52.9%)에 주로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지도사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관의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기타)에 따른** 차이는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유무에서 나타났다.

=> 학교연계 프로그램 경험있다는 응답은 청소년수련관(54.0%), 청소년문화의집(25.9%), 청소년수련원(7.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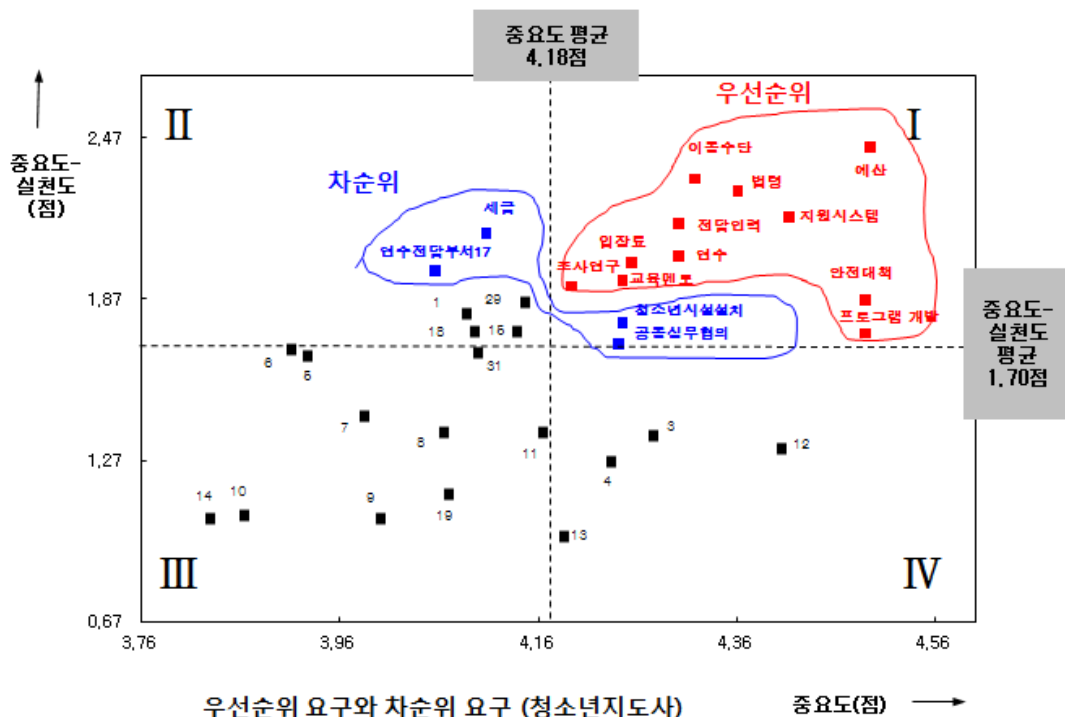
라.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

설문지 문항은 8개의 소영역으로 33문항이다. 8개의 영역은 전문성확보, 실무역량육성,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평가, 체험기관 인센티브, 협력체계, 제도마련이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실시하고 Borich 산출공식을 통한 가중치를 고려한 후 Locus for Focus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종합하여 중요도와 실천도 분석(IPA)으로 8영역의 33항목에 대한 최종 우선순위 요구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적 우선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 IPA 기법 등을 활용한 기존 방식(성열관 외, 2013)에 가중치를 고려한 중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요구의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의 내용과 개수를 제시하는 기준을 제공함(교육부, 2013; 김수자·우명숙, 2013)으로써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이나 모색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의 분석(IPA)을 위한 좌표평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와 우선순위를 나타

내기 위하여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또는 그래프, 표로 제시하였다. IPA를 통하여 2차원 도표 4분면 위에 X축(중요도), Y축(현재 실천도) 위에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한 좌표값을 표시함으로써 우선순위결정에 도움을 받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지도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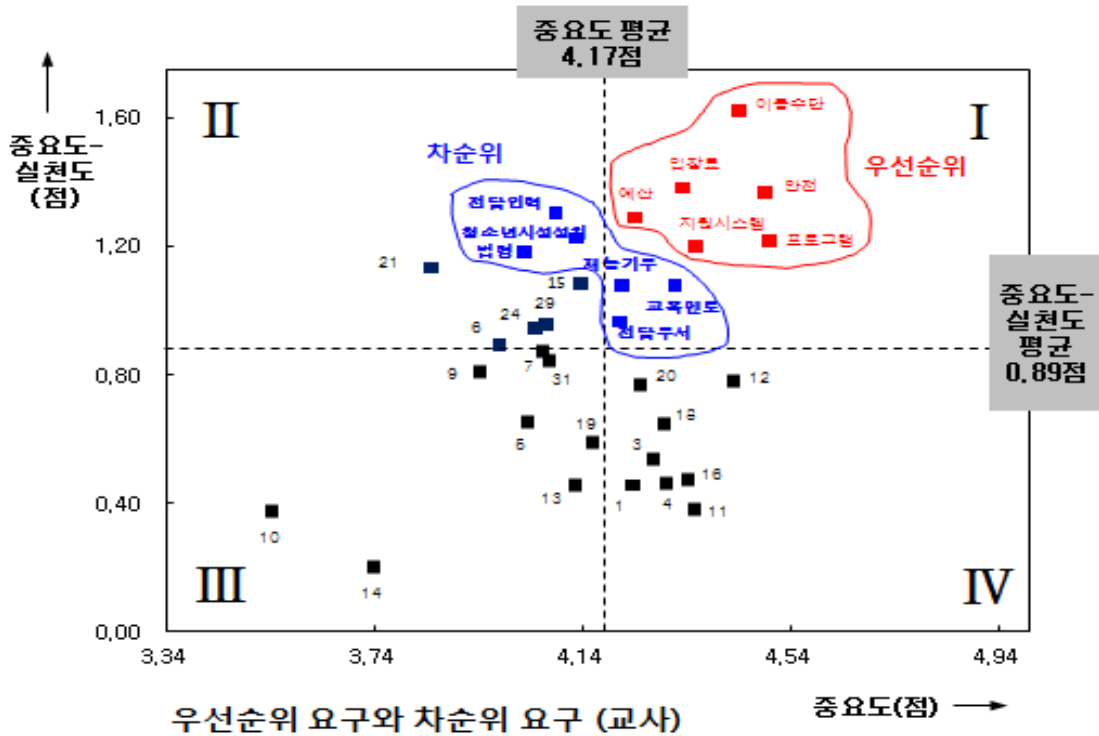
Locus for Focus 모델과 Borich 요구도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를 [그림 IV-6]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의 필요수준 평균과 불일치 수준의 평균을 축으로 하여 좌표평면으로 구분한 결과 I 사분면에 포함되는 역량은 총 13개였다.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구이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는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시설 설치, 20)공동실무협회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11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우선 요구사항과 차순위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지원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에 근거한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과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V-6] 청소년지도사의 최우선 순위와 차순위 요구

(2) 교사의 요구 우선순위 분석(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그림 IV-7]와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 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으로 6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 개정·제정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러한 4개 항목은 앞서 도출된 6개 최우선 요구 항목에 이어서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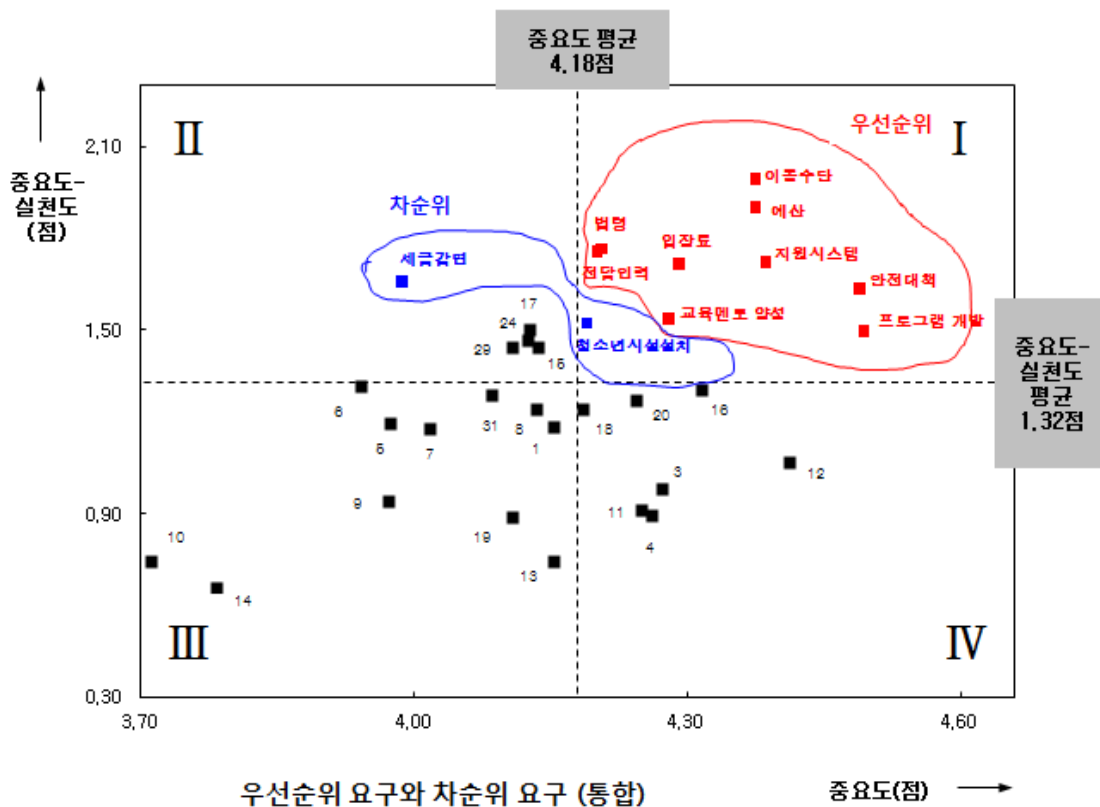
[그림 IV-7] 최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교사)

(3)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요구 우선순위 분석(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사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요구 우선순위 결과는 아래 <표 IV-2>와 같다. 먼저 요구분석의 전체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Borich 요구도 결과값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총 33개 항목 가운데 t 검정에서 바람직한 수준(중요도)과 현재수준(실천도)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은 총 33 개의 항목 모두였다. 이들은 모두 t 값이 12.31 이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정 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낮게 나타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총33개의 항목들은 모두 t 값이 12.31***에서

29.26***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전담인력, 24)조사연구 항목의 Borich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5위, 13위로 나타났지만, t 값은 12위, 10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t 검정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Borich 요구도 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도 발견되었다.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조사 분석결과, [그림 IV-8]과 같이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모델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 배정, 23)지원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이었다. 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구로 볼 수 있다. 또한 21)참여기관 세금감면은 Borich 요구도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27)청소년활동 시설 추가설치는 Locus for Focus 모델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았다. 즉 이러한 2개 항목은 차순위 요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8] 우선순위 요구와 차순위 요구(청소년지도사와 교사 통합)

<표 IV-2> 통합(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t 검정과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영역	내 용 세부항목	현재수준		필요수준		차이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 값		
전문성 확보	1) 학교장(기관장) 연수	2.87	1.31	4.13	0.93	1.26	1.46	18.84*	4.92	22
	2) 전담 인력	2.41	1.31	4.16	1.05	1.75	1.59	23.97*	7.37	5
	3) 업무 전문성	3.20	1.15	4.23	0.90	1.02	1.27	17.58*	4.20	26
	4) 업무 지속성	3.26	1.23	4.24	0.88	0.97	1.33	15.94*	3.81	28
실무 역량 육성	15) 컨설팅 전문가육성	2.64	1.16	4.11	0.92	1.47	1.40	22.93*	5.96	14
	16) 실무자 연수	2.87	1.33	4.27	0.88	1.40	1.47	20.76*	5.63	16
	17) 연수 전담부서	2.51	1.23	4.07	0.95	1.56	1.43	23.78*	6.21	12
	33) 교육멘토 양성	2.65	1.17	4.24	0.93	1.59	1.38	25.13*	6.58	10
프로 그램 개발	9) 프로그램 공모사업	2.98	1.14	3.95	0.95	0.97	1.22	17.28*	3.74	29
	12) 프로그램 운영	3.26	1.14	4.37	0.81	1.11	1.21	20.06*	4.71	25
	30) 프로그램 개발	2.92	1.10	4.45	0.86	1.52	1.29	25.76*	6.73	8
프로 그램 운영	7) 인솔도우미 봉사단	2.76	1.97	3.98	0.94	1.21	1.29	20.45*	4.73	24
	8) 재능기부 봉사단	2.82	1.13	4.10	0.89	1.28	1.29	21.56*	5.13	21
	11) 청소년 사전교육	3.25	1.25	4.21	0.85	0.95	1.26	16.49*	3.88	27
	14) 결과에 대한 발표회	3.05	1.18	3.76	1.01	0.71	1.26	12.31*	2.49	33
	18) 교육멘토 사전 협의	2.82	1.24	4.13	0.85	1.30	1.32	21.57*	5.18	20
	25) 이동수단	2.31	1.20	4.31	0.96	2.00	1.49	29.26*	8.72	1
	26) 입장료	2.48	1.16	4.26	0.94	1.77	1.38	27.92*	7.35	6
프로 그램 평가	10) 체험활동 평가반영	2.91	1.08	3.68	1.07	0.76	1.31	12.72*	2.77	32
	13) 지역체험활동 효과 평가	3.34	1.14	4.13	0.86	0.78	1.24	13.75*	3.08	31
	29) 평가방법 개발	2.59	1.10	4.08	0.95	1.49	1.34	24.20*	5.92	15
	31) 학교-체험활동기관과 공동평가	2.72	1.14	4.07	0.96	1.35	1.35	21.77*	5.27	18
체험 기관 인센 티브	5) 체험기관 인센티브	2.69	1.25	3.93	1.01	1.24	1.41	19.22*	4.74	23
	6) 인증마크	2.54	1.19	3.92	0.99	1.37	1.39	21.48*	5.19	19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2.27	1.14	3.99	0.99	1.71	1.48	25.22*	6.60	9
협력 체계	19) 사업 MOU 협정	3.10	1.25	4.06	0.98	0.96	1.29	16.23*	3.65	30
	20) 공동실무협의회	2.85	1.26	4.18	0.93	1.33	1.37	21.17*	5.38	17
제도 마련	22) 법령 개정·제정	2.39	1.14	4.20	0.90	1.81	1.45	27.10*	7.42	4
	23) 지원 시스템	2.61	1.20	4.36	0.86	1.75	1.42	26.78*	7.55	3
	24) 조사연구	2.59	1.09	4.09	0.91	1.50	1.34	24.36*	6.04	13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59	1.12	4.16	1.03	1.57	1.44	23.76*	6.38	11
	28) 예산 추가	2.39	1.15	4.36	0.92	1.97	1.51	28.41*	8.32	2
	32) 안전대책마련	2.80	1.26	4.47	0.87	1.66	1.45	25.00*	7.34	7

* p < .001

V.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조사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실태를 질적 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면담조사의 분석대상은 전국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학부모/학생, 자유학기제와 학교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지역사회기관 현장교육담당자(공공기관, 대기업, 개인사업장, 민간단체) 총 42명이다. 면담조사의 결과분석방법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근거이론의 주된 목적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질적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련자로서 교사/학부모/학생, 청소년지도사, 지역체험기관 현장멘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의 분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의 청소년기관(100개)의 청소년지도사(271명), 전국 17개 광역 자치도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74개)의 교사(204명)이다. 조사방법은 청소년지도사는 조사원에 의한 자기기입식조사이며, 교사는 서울시교육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web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7월이다. 면담조사 결과 파악된 내용으로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분석 내용은 첫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청소년지도사, 교사), 둘째,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 셋째, 기관규모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검증(청소년지도사, 교사), 넷째,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분석결과(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기관의 96.6%가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학교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학교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
-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22.89%),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

- 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은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 활동(24.02%)
-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우선 지원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개발, 교육멘토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활동시설 설립 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2. 시사점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정책과제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질적·양적 실태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와 우선순위 요구결정을 위한 분석결과(중요도와 실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첫째,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96.6%와 학교(교사)의 98.6% 모두 지역-학교연계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기관에서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므로 학교의 일과 시간 중 비어있는 청소년기관의 가용성을 높이고,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인 협업 활동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육이 학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자유학기제에서 현재 중점 추진영역은 수업방법개선(39.71%), 지역체험활동(24.02%),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교내)(23.86%)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 수업방법개선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지역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도 각 25% 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셋째, 학교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실시횟수는 학기당 3-5회(42.2%), 학기당 6-10회(18.6%)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35.84%), 업무과다(10.47%)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의 의미는 인프라 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체험기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홍보지원 시스템의 부족 등을 수반한다고 생각된다. 실제 면담조사 결과, 자연권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외에 학교 근처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자주 이용하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는 드물었다. 학교가 다양한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양 기관이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할 때 지역연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22.89%),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부족(15.35%),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 시스템부족(15.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 부족보다도 당장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면담조사 결과,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통과 이해, 정보시스템의 문제로서 일선학교에서는 청소년기관과 영리기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협조적이거나 방어적 태도 등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이해와 홍보, 신뢰구축을 통한 행정협조, 정보교류, 신뢰구축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단·중기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라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이 3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나. 우선순위 요구사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33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천도를 질문하였을 때, 청소년기관과 학교교사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여 두 가지 방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항목은 최우선순위로 제시하고, 한쪽 방식에서만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차순위 요구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사, 교사, 통합적 입장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고려사항은 <표 V-1>와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8)예산배정, 22)법령개정·제정, 23)지원시스템, 25)버스 등 이동수단, 26)입장료 할인, 16)실무자 연수, 24)조사연구, 33)교육멘토 양성, 2)전담인력, 30)프로그램 개발, 32)안전대책으로 1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차순위 고려 항목은 21)참여기관 세금감면, 17)연수 전담부서, 20)공동실무협의, 27)청소년 활동시설 설치로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교사)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버스 등 이동수단, 32)안전대책, 26)입장료 할인, 30)프로그램개발, 28)예산배정, 23)지원 시스템으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요구분석 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전담인력,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22)법령 개정·제정, 33)교육멘토 양성, 8)재능기부, 17)컨설팅·연수 전담부서로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25)이동수단, 28)예산배정, 23)지원시스템, 22)법령 개정·제정, 2)전담인력, 26)입장료 할인, 32)안전대책 마련, 30)프로그램개발, 33)교육멘토 양성으로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V-1> 우선순위와 차순위 고려사항 (Borich의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결과)

구분	최우선순위	차순위	특징 (차별적으로 나타난 항목)
청소년 지도사	28) 예산배정 (1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5) 이동수단 (4순위) 26) 입장료 (5순위) 16) 실무자 연수 (6순위) 24) 조사연구 (7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8순위) 2) 전담 인력 (9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10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11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2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3순위) 20) 공동실무협의회 (14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5순위)	◇ 교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16) 실무자 연수 24) 실태 조사연구 20) 공동실무협의회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32) 안전대책 (2순위) 26) 입장료 할인 (3순위) 30) 프로그램개발 (4순위) 28) 예산배정 (5순위) 23) 지원시스템 (6순위)	2) 전담인력 (7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8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9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10순위) 8) 재능기부 (11순위) 17) 컨설팅·연수 전담부서 (12순위)	◇ 청소년지도사/통합과 차별된 항목 8) 재능기부
통합 (지도사와 교사)	25) 이동수단 (1순위) 28) 예산배정 (2순위) 23) 지원 시스템 (3순위) 22) 법령 개정·제정 (4순위) 2) 전담인력 (5순위) 26) 입장료 할인 (6순위) 32) 안전대책 마련 (7순위) 30) 프로그램 개발 (8순위) 33) 교육멘토 양성 (9순위)	21) 체험기관 세금감면 (10순위) 27)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 (11순위)	◇ 통합 우선순위 11개 항목은 학교와 지역청소년 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와 각 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공통으로 특히 연계하여 노력해야할 고려사항임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조사 분석결과, 차순위 고려 항목은 21)참여기관 세금감면, 27)청소년 활동시설 추가설치로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경우 학교(교사)와 다른 항목은 최우선순위에 16)실무자연수, 24)실태 조사연구가 나타났으며, 차순위로 20)학교/청소년기관/교육청의 공동실무협의회가 제시된 점이다.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5개), 실무역량육성(2개), 프로그램운영(1개), 프로그램개발(1개), 전문성 확보(1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자유학기제 등 학교연계 실무자연수 등의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 입장에서 세금감면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동실무협의회 등 학교와의 소통과 협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라는 학교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배정, 법령, 지원시스템에 대한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사)의 경우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와 다른 항목은 25)이동수단과 32)안전대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점이다. 교사의 경우 최우선순위로 나타난 영역은 제도마련(3개), 프로그램운영(2개), 프로그램개발(1개)로 나타났다. 또한 27)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와 33)교육멘토 양성에 대한 항목이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멘토의 의미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진로교육담당자, 청소년지도사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이는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근처의 지역자원 인프라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교육활동을 할 때 양질의 교육내용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교육멘토의 자질이 필수조건임을 교사들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입장에서의 지역체험기관은 청소년기관 뿐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기업체 등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체험기관의 입장에서 학교연계를 할 때는 지역체험기관의 설립목적과 자원 등의 특성 등에 따라서 학교연계 활동에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체험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지역연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활동시설과의 학교연계 활동은 일회적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활동시설이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과 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과 공간 등의 인프라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관과 지역사회 체험기관들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현재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하고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실정이지만 점차 지역사회공동체에 속해있는 지역체험기관의 특성별 연계협력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계협력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우선순위와 차순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와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함께 연계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공통된 것은 함께 추진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은 세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경우는 실무자 연수, 조사연구 등이 최우선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상황과 현장을 파악하여 학교연계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 실무연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어온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재 실천도와 중요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집단간 차이와 우선순위 결정, 공통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위함이다. 대상과 행정추진기관이 다르기에 학교가 우선순위로 할 일, 청소년기관이 우선순위로 할 일, 공동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청소년기관과 학교, 정책추진 주체 등 이해관련자들의 공통의 이해와 논의가 의미있다고 본다.

VI. 정책방안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선순위 요구 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 271명)과 학교(교사 204명)를 통합하여 Borich 가중치와 Locus for Focus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지원이 필요한 1순위 요구는 이동수단으로 나타났다. 1-11순위까지의 요구사항은 이동수단,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전담인력, 입장료 할인, 안전대책, 프로그램개발, 교육멘토 양성, 체험기관 세금감면, 청소년 활동시설 설립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우선순위와 차순위 영역별로 구분해 보면 프로그램운영(2개), 프로그램개발(1개), 전문성확보(1개), 실무역량육성(1개), 체험기관 인센티브(1개), 제도마련(5개)으로 제시되었다. 제도마련(예산, 법, 시스템) 뿐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들인 프로그램, 실무역량 등에 관한 내용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에 대한 조사결과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통합(청소년기관과 학교) 분석결과, 우선순위로 제시된 11개 항목은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현장, 교육청과 지자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각자하면서 공통으로 노력해야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11개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제시된 이동수단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11개 우선순위 고려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라는 이슈에 맞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것이며, 다른 영역이나 항목들도 각 시기와 이슈에 맞게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1. 프로그램운영 영역

(1순위) 지역체험 단체활동 시 버스 등 이동수단 지원

이동수단이 학교(교사)와 청소년기관(청소년지도사)의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는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이 1순위, 청소년기관은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가 1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수단이 1순위 요구사항이라는 조사결과 의미는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 시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했을 때 1순위로 지원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학기제 등으로 이미 현장에서 지역-학교연계 체험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면서도 실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이동수단이 1순위로 제시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수학여행을 포함한 수련활동 등 뿐아니라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체험활동 등에 대한 “이동수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교와 청소년기관의 인식이 96.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는 연결된다. 학교에서도 기관에서도 지역으로 나가고 싶는데 현실적으로 이동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수단의 의미는 교통안전 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교통비용, 계약 및 답사 등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업무량 증가 및 심리적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해야 할 때 원거리는 버스 임차, 소규모로 근거리 이동을 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셔틀버스 등이 있으면 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교육이 용이하고 이동시 안전사고 부담이 경감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에서 셔틀 버스를 운영하여 근처 학교나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제기된다. 실제 현장 실무자(교사, 청소년지도사 등)들은 예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험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교육의 방향이라면 근거리이든 장거리이든,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이동수단이 필수적이다. 이동에 대한 교사와 현장 지도자의 행정적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6순위)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

지역체험 시 입장료 지원 또는 할인이 6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부를 통해 무료 체험학습에만 치중하다보면 유료 체험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나 지도자 입장에서는 실제 입장료나 참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별로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참여의사 등을 거쳐 수행해야하므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다.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시행되면 입장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입장료 지원 및 할인은 학교와 지역체험 기관, 각 정부부처가 소통하면서 함께 지원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개발 영역

(8순위)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 영역에서는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8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생요구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조사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체험활동의 동기, 흥미도, 교육적 효과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학생이 요구한 프로그램에 인원이 마감이면 다른 차순위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신이 요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왜 이런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1:1로 개발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생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요구 조사를 통해 표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한대로 다수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학생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성확보 영역

(5순위)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

전문성확보 영역에서는 학교-지역연계 전담인력의 채용이 5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에서는 전담인력, 학교연계 활동자체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담인력의 채용은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연계가 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 있는 전문성가진 전담인력을 두어 1년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실무역량을 육성하고 학교-지역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전담인력은 지역연계 체험활동 관련 행정실무사 등 채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험활동 시 다양한 행정처리, 기관연계 등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된다.

4. 실무역량 육성 영역

(9순위)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현장교육담당자) 양성·운영 시스템 마련

실무역량 육성 영역에서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양성 및 운영 시스템 마련이 9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지역체험활동에서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역체험기관 내의 교육멘토(진로교육담당자, 현장 교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멘토의 종류는 체험기관 수만큼 다양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도 그중 한명으로 볼 수 있다. 교육멘토 양성은 청소년 지역체험기관 실무자들도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어 역량자체를 강화해야한다.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정책 흐름을 교사만

알아서 안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한다면 청소년지도사, 체험기관 진로교육 담당자 등이 교육역량이 강화되도록 교육멘토로 양성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험활동 마치고 피드백과정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피드백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교사도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용하기(예, 청소년수련관 등) 위한 연수 양성 교육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학교에서 지역사회 체험기관을 방문하면 일정 교육적 역할을 교육멘토가 수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질적 양적으로 교육멘토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

(10순위)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체험기관 인센티브 영역에서는 청소년 지역체험 참여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이 10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체험기관이나 지역 사업장, 기업체에서는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한 인력, 자원, 시간, 공간, 영업 등을 투입하여 지역체험장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는 실질적 지원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금감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도 청소년 학교연계 체험활동 많이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인력, 시간, 장소 모두 투입해야 함으로 사실 지역사회 강좌 등 수익사업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난이 예상된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도 청소년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당하는데,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절반도 훨씬 못 미치게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을 자립적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연계 청소년 지역체험활동을 일정 기간에 몇 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관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제도마련 영역

제도마련 영역에서는 예산배정, 지원시스템, 법령 개정·제정, 안전대책 마련,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로 5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28)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23)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22)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32)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 27)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이다.

(2순위)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

청소년 지역체험활동 예산 추가 배정이 2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모두 학생,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 학부모 동의서 등 여러 행정절차와 업무량 증가가 온다.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교통비, 입장료, 강사료 등) 예산이 먼저 필요하다.

(3순위)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이 3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관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의 지원 부족, 학교-청소년기관의 정보교류시스템 부족이 나타난 점과 같은 맥락으로 소통과 홍보, 신뢰 구축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연계 지역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지역별로 있는 교육청이나 자치구청에서 연계해서 정보지원하거나 전담인력을 두어서 인프라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체험기관 정보를 홍보, 안내 등을 하는 것은 신뢰구축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에듀팟 등 체험활동 기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체험활동 소감 등을 학생들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체험활동 결과를 축적하여 체험활동 정보 생산 등과 연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4순위)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

청소년(학생)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제정이 4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 관련 교육부 지침이나 체험활동 관련 학생안전관련법령을 제정할 때는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공통적인 사항임으로 각 관련자, 정부부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며 관련 법령 개정·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학교 체험활동 관련 조례 등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순위)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

체험활동 안전대책 마련이 7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사, 청소년지도사 모두 단체 체험활동 시 고충을 덜어줄 방안으로 복잡한 버스, 숙소계약 및 답사, 단체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책임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체험활동 전에 학생과 인솔 지도자의 장소, 교통수단, 건강관리, 비상대책 등 안전 지침과 교육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지역체험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지도자, 여행사, 운전기사, 보험회사, 숙박시설 업자 등 관련자들의

인식 혁신과 계약과 추진 지원 시스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11순위)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 설립확대

행정 권역별로 청소년접근이 용이하도록 수련관, 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 설립확대가 11순위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시·군·구 227개⁹⁾에서 청소년수련관은 181개(공공 177, 민간 4)로 아직도 20.26%의 시·군·구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 읍·면·동 3488개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219개(공공 216, 민간 4)로 아직도 93.73%의 읍·면·동에서 설치·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설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향후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마다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설립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VI-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간	268	4	4	132	18	111	0

* 자료: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청소년백서. p.403.

<표 VI-2> 행정구역별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설치 비율

구분	시·군·구	수련관	시·군·구 수련관 설치비율	읍·면·동	문화의집	읍·면·동 문화의집설치 비율
계	227	181	79.74%	3488	219	6.27%

* 참고: 여성가족부(2012.12.31. 기준), 안전행정부(2014.1.1 기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은 98~99% 공공 시설로서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 조직적인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기관 임으로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적

9) 전국 행정구역(시군구, 읍면동)은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백서. p. 990(2014.1.1.기준)에서 참고함.

증가와 질적 증가는 함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교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
- 김기현(2013).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방향성 모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3-S05):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47-66.
- 김기현, 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11-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자, 우명숙(2011).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지방정부연구, 16(3), 165-189.
- 김정배, 추성수, 남미애, 우정자(2001).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협력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 자원봉사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주희(2014).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14-S14).
- 김현철, 윤혜순(2013).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5-33.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한도희, 김영애, 김혁진, 김인규(2011). 청소년활동시설의 평가모형 연구II: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열관, 김성기, 백병부, 황여정, 배희철, 이형빈(2013). 강원교육 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 강원도교육청·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성은모, 정효정(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 안선영, 최창욱(2011).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자원연계 코디네이팅 연수 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2).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이광호, 이태재, 윤철경(1999).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주동범, 김홍주, 임지연(2005).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협력 방안 연구: 청소년 활동의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지연, 김영석(2013). 청소년활동시설의 논리주도 평가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2), 177-204.
- 임지연, 김정주(2007).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15(1), 143-170.
- 임지연, 송병국, 이교봉, 김영석(2010).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 김정주(1999). 청소년육성과 교육분야의 연계협력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 1-118.
- 최창욱, 송병국, 김혁진, 남성화, 이영민(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CRM 2013-85).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컨설팅결과보고서.
- 황은희(2014). 학교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 자료집(14-S14).
- Glaser, B., & Strauss, A. (1967). 이병식 외 공역 (2011). 근거이론의 이해. 학지사. [원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지속가능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을 위한 과제

박 찬 열 (흥은동청소년문화의집)

자유학기제의 전면실시와 관련해 연구학교, 희망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시행 및 학술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현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해서 진로교육을 주제로 학교와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22개소 중 상당수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에서 진로를 주제로 한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실태 및 과제라는 주제로 실시된 연구는 청소년현장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특히 금번 연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도시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점과 지역-학교연계협력 체험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발제문 검토 후 청소년현장에서 학교연계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의 96.6%가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사도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해 98.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호간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실제로 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매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지역연계협력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학교와의 연계수준에 대해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시설과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기초는 갖춰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현장과 학교가 연계의 과정, 내용,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소년활동현장에서 학교와의 연계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토론을 이어나가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인지,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낀다.

실제 활동현장에서 상호간의 이해에 대한 부족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다. 학교에서는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청소년시설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계할 경우에 교육기부방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접근하고 있고, 청소년시설들은 학교가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예산도 함께 투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연계 및 협력은 하겠으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시설에서도 대부분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계에 대한 접근방식에서도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의 98%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전년도 8월말에 차기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예산안이 마련되고 연말에 확정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므로 사업에 대한 연계를 위해서는 사전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정에 대한 추진계획에서도 학교의 학사일정이 전년도 말에 계획되고 연초에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현장에서는 학사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의 연계를 시도하려는 접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실천적으로도 실무자에 대한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수준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접근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의 실행과정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연계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추진체이기도 하다. 연계를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러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들어 교육부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구축 추진지침(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2024. 2014.6.12.)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을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의 실무센터로 활용하도록 한 점이나, 교육부에서 주최한 지역연계협력체계 중점교육지원청 워크숍(2014.5.22.)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개요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현장직업체험이 교육부에서 마련한 진로체험 유형에서 제외되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나 두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1877, 2014.5.27.)에서 직업실무체험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실제 학교 및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앞으로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연계를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은 추진근거를 마련하게 하고 실질적인 연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가 학교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부족을 들었는데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될 만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청소년수련시설통계편람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법적 기준 227개(시, 군, 구) 대비 181개로 약80%의 설치가 이루어진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 기준 3,488개(읍, 면, 동) 대비 218개로 약6%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10,500여개인 점에 비하면 25개의 학교당 1개의 청소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제시되듯이 청소년수련관은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읍, 면, 동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교사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분석)로 응답한 지역특성 및 자원부족, 청소년기관의 인력부족 및 공간협소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설치기준	행정구역 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법적기준
청소년수련관	시, 군, 구	227개	181개	79.7%
청소년문화의집	읍, 면, 동	3,488개	218개	6.3%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도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지도사와 교사를 통합한 요구도 분석결과 최우선순위로 제시한 이동수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며 청소년시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측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맺으며

청소년현장과 학교는 그간 다양한 제도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왔고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방식과 형태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계와 학교가 연계하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연계를 뛰어 넘어 서로가 서로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와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이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삶속에 스며드는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과제

이 승 순 (부평동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실태 및 과제」라는 주제 발표는 자유학기제 연구 학교의 교사와 청소년 활동 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체험 기관 담당자 등 지역연계 활동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연계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 현장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고 심도 깊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학교 안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있다. 그 이외의 학교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육 과정은 사실 국가차원이나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미 큰 프레임이 짜여져 있고 교사는 그 안에서 단위학교에 맞게 잘 엮고 짜는 것이지 교사 개인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수정하기에는 학교나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학생, 학부모 이외의 지역사회나 학교 밖 세상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소통할 기회를 갖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를 다소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공간으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지만 지역사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스스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계기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상의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간에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 학생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과 더불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 즉 사회와의 인프라 구성이나 사회적 분위기, 여건 조성이 미비된 상황에서 2016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나 이를 넘어선 걱정과 저항감이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놓치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로 학교 안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머물러 학생을 교육해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다양한 삶의 양상 속에서 상황 주도력을 지니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기 어렵다.

2013년에 이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연구학교 2년차를 운영하면서 얻은 시행착오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체험 기관과 연계 협력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과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준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관은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동일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은 동일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학교와 청소년 기관은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별개의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담을 쌓고 살아왔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생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지 않은 것이다.

즉,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이전까지는 청소년 기관들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해 몇몇 체험 활동에 학생을 참여시키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에 교육멘토나 공간을 지원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대부분은 우연히 공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받은 관심 있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향하고 바라보는 교육의 방향이 같으나 '소통'의 부재에서 각자의 일을 독자적으로 할 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학교에서도 청소년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러한 물이해가 학교-청소년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의 어려운 이유로 서로간의 비협조 즉, 학교에서는 지역체험기관의 비협조, 지역체험기관에서는 학교의 비협조(이해부족)라는 설문 응답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 실무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

학교와 청소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교보다 훨씬 선진화된 물적 자원, 전용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연계 협력은 학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학교는 학교 입장에서 청소년 기관들은 청소년 기관들의 입장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학생 진로 직업 체험을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학생 진로 체험 전담 부스나 전담인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학교와 청소년 단체의 연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기관에게는 예산지원, 인력 보강 등 우선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평동중은 전국의 80여개의 연구학교 중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업 개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한 오후 자율과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운영되고 질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학교이다. 이러한 성공의 견인은 부평동중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청소년 기관을 면밀히 살피고 MOU체결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청소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전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보다는 교과 선택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다른 학교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평동중을 넘어서 일선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학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기관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역 사회 청소년 기관에 대한 관심과 학생 교육에 있어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학교 밖 인증제 등의 실질적인 방안 연구로 학교 밖의 질 좋은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활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력체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실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직업체험 기관을 하나 하나 섭외하고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청소년 수련관 등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과 네트워크 조성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사는 사실 '가르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이러한 교사의 업무 곤란은 자유학기제 성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적 가교 역할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역 교육청을 허브로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 등의 업무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단일 창구화 하여 지역을 묶고 연결하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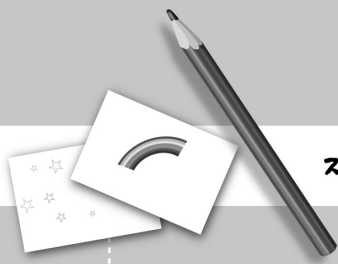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은 일부 방과 후 동아리 중심의 활동이나 이벤트 성 활동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 지도자 및 교육 멘토를 교육 관리하고 학교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이동시키는데 가장 크게 우려하고 망설이는 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무리 학교 밖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안심하고 학생을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인솔 담당자가 없다면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청소년 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을 때 국가의 예산 지원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하여 교사

들의 전공 교과 이외의 교사 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교사들의 제 2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교육기관으로 장소를 제공해주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넷째, 국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 간의 실무적 정보교류시스템 확보, 인력 보충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확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었을 때도 지역사회가 학교나 학생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관들의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청소년 기관 연계 체험 활동 시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접근성’이다. 이는 학생 이동시의 안전문제, 일과 시간 교육 과정 운영 상의 문제와 맞물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해도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림에 떡’에 불과할 수 있다. 이를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은 물론 청소년 활동 시설 설립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아니더라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는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의 부재를 넘어 인적자원, 프로그램, 전용공간 등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일꾼을 함께 만들고 그 일꾼들이 지역사회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소통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서로 힘을 모을 때다.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세미나



[발표 4]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 발표자: 정영근·김진숙·이근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토론 7]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홍원표(연세대학교)

[토론 8]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황유진(연희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

정영근 · 김진숙 · 이근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면서

이 발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4년도 기본과제로 수행하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중,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운영 방안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가치를 중학교 교육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특성에 비추어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각국의 동향을 보면 1960년대 이후 초·중등교육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 변화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문제에 집중하여 최근까지 중학교를 거의 ‘잊혀진 존재’ 혹은 ‘블랙 홀’로 취급하여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Dinham & Rowe: 2008: 9).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로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서 초등학교는 기초 교육으로서, 고등학교는 진로·적성을 고려한 종국교육 및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연구 및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서 명확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는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들은 중학교 교육을 교육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취급해 왔으며(Dinham & Rowe: 2008: 3), OECD 보고서(2011)도 교육 기간 전체선상에서 차지하는 중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와 국정과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의 하나로 설정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한 발상적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는 단순히 정책 추진 방안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 및 독자성 확보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중학교 교육이 지금까지의 무관심과 방임에서 벗어나 그 교육적 본령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의 중추로서 다시 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과단성 있는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중학교의 한 학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 그 자체에 대한 재설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체성 및 독자성 확보라고 하는 조망 속에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은 이러한 자리매김 위에 제도적 측면과 학생 발달적 측면에서 가교·연계로서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편성·운영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근거를 전기 중등교육으로서의 중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의 독자성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자유학기제 시행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과 함께 향후 자유학기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개황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2013~2014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013년 42개교 전체와 2014년 38개교 중 32개교이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실태 및 인식, 향후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표 II-2-1>과 같이 실태 분석 항목을 설정하여 실태 조사지를 통한 분석과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II-2-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주요 항목

구분	분석 항목	세부 내용
실태	수업시수의 변화	총 교과수업시수의 증감
		총 자율과정 시수의 증감
	교과 편성의 특성	교과별 시수 증감
교과 총계 시수의 증감		
	자율과정 편성의 특성	예체능, 선택 프로그램, 진로탐색, 동아리별 프로그램(활동)의 수(전교생공통/ 학생선택)

구분	분석 항목	세부 내용
	교과 감축 시간의 활용	교과 연계 또는 자율과정(창체)
		감축된 교과시간의 지도(교사/강사)
	교과간 융합연계	교과 간 융합연계의 빈도
		자율과정에서의 교과 연계
평가	교과별 평균 수행평가 횟수	
	교과별 평가방법 유형	
	평정방법(최종은 서술식이이지만, 중간과정에서의 평정 -3단계/5단계/서술식)	
핵심 성취기준의 활용	활용한 핵심성취기준(국가/학교/교사 자율)	
	핵심성취기준의 유용성	
향후 개선 사항	핵심 성취기준	개선사항
	자유학기 운영의 어려움	교과감축/자율과정담당교사/평가/용어/지침부족
	바람직한 적용학기	1학년1학기~3학년2학기
	학기 결정 주체	국가/시도/학교
	중학교 총 시수조정	유지/감축(교과/창체)
	자유학기제 안내의 필요	교과감축시수범위/선택 프로그램/용어의 정비
	교과 감축 시수의 활용	교과연계/자율과정
		감축 범위(자율/20%이내)
자유학기제 지원 사항	수업개선방향, 평가개선방향, 기타 지원 사항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유학기제 적용학기 및 적용 모형

<표 II-3-1>은 자유학기제 운영 연구학교들의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학기의 분포이다.

<표 II-3-1> 2013~2014년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단위: 빈도(%)

구분 의견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계
	2013년	0(0)	41(97.6)	0	1(2.4)	0	
2014년	8(25)	0	23(71.8)	1(3.2)	0	0	32(100)

자유학기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학기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순이며 드물게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도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자유학기 운영학기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순이며, 3학년에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

나. 교과 교육과정 시수 편성

1) 교과별 시수의 증감현황

<표 II-3-2> 2013~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증감시수의 평균[실태조사 결과]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 기존시수(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2013	국어	2(4.8)	23(54.8)	79.7(4.7)	17(1)	-17.4(-1.02)	71.4(4.2)
	사회	5(11.9)	10(23.8)	48.1(2.8)	17(1)	-23.9(-1.4)	44.2(2.6)
	역사	1(2.3)	2(4.8)	39.7(2.3)	34(2)	-42.5(-2.5)	34(2)
	도덕	3(7.1)	18(42.9)	40.5(2.4)	56.7(3.3)	-15.1(-0.9)	34.7(2)
	수학	1(2.3)	9(21.4)	65.6(3.9)	17(1)	-15.3(-0.9)	62.9(3.7)
	과학		12(28.6)	55.0(3.2)		-15.1(-0.9)	50.8(3)
	기술·가정	4(9.5)	20(47.6)	43.2(2.4)	42.5(2.5)	-17.3(-1.02)	34.3(2)
	체육		16(38.1)	50.2(2.9)		-20.8(-1.2)	44.6(2.6)
	음악	2(4.8)	12(28.6)	33.2(1.9)	17(1)	-14.8(-0.9)	31.4(1.8)
	미술	2(4.8)	13(31.0)	26.2(1.5)	25.5(1.5)	-21.5(-1.3)	23.7(1.4)
	영어	1(2.3)	10(23.8)	58.3(3.4)	17(1)	-15.3(-0.9)	55.2(3.2)
	한문	1(2.3)	8(19.0)	28.3(1.7)	17(1)	-26.7(-1.6)	23.1(1.4)
	보건	1(2.3)	2(4.8)	17(1)	17(1)	-17(-1)	17(1)
	진로와 직업	11(26.2)	6(14.3)	26(1.5)	16.5(0.9)	-22.7(-1.3)	20(1.2)
	정보	2(4.8)	2(4.8)	17(1)	17(1)	-17(-1)	53.3(3.1)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7(16.7)		17(1)	17(1)		16.4(1.0)
	환경과 녹색성장	2(4.8)	1(2.3)	17(1)	25.5(1.5)	-17(-1)	22.7(1.3)
	한문/정보			17(1)			17(1)
	진로와 직업/보건			17(1)			17(1)
	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68(4)			68(4)
인문사회	1		34(2)	34(2)		34(2)	
중국어	1		34(2)	34(2)		34(2)	
시수합계							
주당 시수 합계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 기존시수(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2014	국어		25(78.1)	70.7(4.2)		-18(-1.1)	56.3(3.3)
	사회	1(3.1)	4(12.5)	47.2(2.8)	34(2)	-17(-1)	39.1(2.3)
	역사	1(3.1)	9(28.1)	48.0(2.8)	17(1)	-18.9(-1.1)	43.3(2.5)
	도덕		11(34.4)	38.6(2.3)		-17(-1)	31.4(1.8)
	수학		14(43.8)	65.9(3.9)		-17(-1)	58.4(3.4)
	과학		24(75)	63.2(3.7)		-17(-1)	50.5(3.0)
	기술·가정		21(65.6)	48.5(2.9)		-17(-1)	34.6(2.0)
	체육		18(56.3)	48.9(2.9)		-26(-1.5)	38.9(2.3)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기존 시수 (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2014	음악		19(59.4)	24.9(1.5)		-17(-1)	19.7(1.2)
	미술		19(59.4)	26.6(1.6)		-17.9(-1.1)	22.9(1.3)
	영어		12(37.5)	58.4(3.4)		-17(-1)	52.1(3.1)
	한문	1(3.1)	8(25)	30(1.8)	17(1)	-17(-1)	23.5(1.4)
	보건	1(3.1)	2(6.25)	17(1)	17(1)	-17(-1)	17(1)
	컴퓨터		1(31.3)	34(2)		-34(-2)	
	선택 프로그램	4(12.5)			59.5		59.5(3.5)
	진로와 직업	4(12.5)	8(25)	23.2(1.4)	30	-23(-1.4)	26.7(1.6)
	정보		1(3.1)	25.5(1.5)		-17(-1)	17(1)
	재미있는 시사토론			17(1)			17(1)
	환경과 녹색성장		1(3.1)	17(1)		-17(-1)	
	한문/중국어			17(1)			17(1)
	한문/컴퓨터		1(3.1)	34(2)		-17(-1)	17(1)
	진로와 직업/보건			17(1)			17(1)
	자유학기·교양 (진로독서)			17(1)			34(2)
	교양	3(9.4)					
	탐구	4(12.5)					
	인문사회	3(9.4)					
	진로독서	1(3.1)					51(3)
	예체능						
	중국어		1(3.1)	34(2)		-17(-1)	29.8(1.8)
	일본어		1(3.1)	22.7(1.3)		-17(-1)	17(1)
시수합계				846.3			790.7
주당 시수 합계				49.8			46.5

* 여기서 타 학기는 자유학기가 1학기인 경우 2학기 시수임. 시수는 주당으로 나타내지 않고 학기당으로 나타내는 학교가 있고 17주의 배수가 아닌 “학기당 5시간 감축”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정수가 아닌 소수로 표시됨.

<표 II-3-3> 2013~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증감시수의 평균[편제표 결과]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기존 시수 (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2013	국어	1(2.4)	21(50)	80(4.7)	17(1)	-16.5(-0.9)	71(4.2)
	사회	2(4.8)	11(26.2)	48(2.8)	42.5(2.5)	-27.1(-1.6)	43(2.5)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기존 시수 (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역사	1(2.4)	1(2.4)	42(2.5)	34(2)	-51(-3)	34(2)
	도덕	4(9.5)	14(33.3)	39(2.3)	51(3)	-21.3(-1.3)	35(2.1)
	수학	2(4.8)	9(21.4)	65(3.8)	17(1)	-10.6(-0.6)	64(3.8)
	과학		9(21.4)	54(3.2)		-14.1(-0.8)	51(3)
	기술·가정	3(7.1)	16(38.1)	41(2.4)	45.3(2.7)	-16.3(-0.9)	35(2.1)
	체육		15(35.7)	50(2.9)		-25.2(-1.5)	45(2.6)
	음악		14(33.3)	32(1.9)		-23.6(-1.4)	32(1.9)
	미술	3(7.1)	9(21.4)	25(1.5)	14.7(-0.8)	-19.1(-1.1)	23(1.4)
	영어	2(4.8)	8(19)	57(3.4)	25.5(1.5)	-13.9(-0.8)	55(3.2)
	한문	1(2.4)	6(14.3)	29(1.7)	17(1)	-34.7(-2.04)	24(1.4)
	보건	1(2.4)	1(2.4)	17(1)	17(1)	-17(-1)	17(1)
	진로와 직업	11 (26.2)	6(14.3)	26(1.5)	16.5(0.9)	-22.7(-1.3)	20(1.2)
	정보		2(21)	30(1.8)		-17(-1)	29.8(1.8)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17(1)			17(1)
	환경과 녹색성장			17(1)			17(1)
	한문/정보			17(1)			17(1)
	진로와 직업/보건			17(1)			17(1)
	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68(4)			68(4)
	인문사회	1		34(2)	34(2)		34(2)
	중국어	1		34(2)	34(2)		34(2)
시수합계			835			786	
주당 시수 합계			48.6			28.42	
2014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기존 시수 (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국어		21(65.6)	70.1(4.1)		-17.8(-1)	57.9(3.4)
	사회	1(3.1)	4(12.5)	47.2(2.8)	34(2)	-17(-1)	39.1(2.3)
	역사		7(21.9)	47.3(2.8)		-19.4(-1.1)	44.8(2.6)
	도덕		11(34.4)	38.6(2.3)		-17(-1)	31.4(1.8)
	수학		12(37.5)	66.9(3.9)		-18.4(-1.1)	59.5(3.5)
	과학		20(62.5)	63.8(3.8)		-17.9(-1.1)	52.1(3.1)
	기술·가정		18(56.3)	46.0(2.7)		-17(-1)	34(2)
	체육		16(50)	48.9(2.9)		-29.8(-1.8)	39.7(2.3)
	음악		16(50)	24.3(1.4)		-18.7(-1.1)	19.2(1.1)
	미술	1(3.1)	14(43.8)	25.8(1.5)		-18.8(-1.1)	23.1(1.4)
	영어		10(31.3)	58.4(3.4)		-17(-1)	53.1(3.1)
	한문	1(3.1)	8(25)	29.5(1.4)		-21.3(-1.3)	24.7(1.5)
보건	1(3.1)	2(6.3)	17(1)		-17(-1)	17(1)	

학년도	과목	증가한 학교	감축한 학교	학기당기준 시수 (주당)	증가시수의 평균	감축시수의 평균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시수(주당)
	컴퓨터		1(3.1)	34(2)		-34(-2)	
	선택프로그램	4(12.5)			59.5(3.5)		59.5(3.5)
	진로와 직업	4(12.5)	6(18.8)	23.2(1.4)		-19.8(-1.2)	26.4(1.6)
	정보	1(3.1)	1(3.1)	25.5(1.5)		-17(-1)	17(1)
	재미있는 시사토론			17(1)			17(1)
	스포츠클럽 활동			22.7(1.3)			22.7(1.3)
	환경과 녹색성장		1(3.1)	17(1)		-17(-1)	
	한문/중국어			25.5(1.5)			25.5(1.5)
	한문/컴퓨터		1(3.1)	34(2)		-17(-1)	17(1)
	진로와 직업/보건			17(1)			17(1)
	자유학기· 교양 (진로독서)	1(3.1)		17(1)	34(2)		34(2)
	교양	2(6.3)			38(2.3)		
	탐구	3(9.4)			27(1.6)		
	인문사회	3(9.4)			21.3(1.3)		
	진로독서	1(3.1)			51(3)		
	예체능	3(9.4)			39.7(2.3)		38.3(2.3)
	중국어		1(3.1)	34(2)		-17(-1)	29.8(1.8)
	일본어			22.7(1.3)			22.7(1.3)
	시수합계			873.4			822.5
	주당 시수 합계			51.4			48.4

<표 II-3-2>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증감시수를 나타낸 것이고, <표 II-3-3>은 연구학교의 편제표를 검토한 결과 확인된 증감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2013학년도의 경우, 국어가 23개교(54.8%)로 가장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술·가정 20개교(47.6%), 도덕 18개교(42.9%), 체육 16개교(38.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014학년도의 경우 25개교(7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가정 21개교(65.6%), 음악과 미술 각 19개교(59.4%), 체육 18개교(56.3%)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의 편제표를 확인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총량의 변화

<표 II-3-4> 2013년~2014년 학교별 교과 시수 감축시간 범위[실태조사 결과]

2013		2014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감축범위(주당)	학교수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감축범위(주당)	학교수
0(0)	4	34(2)	6
17(1)	9	35((2.1)	1
34(2)	9	51(3)	2
43(2.5)	1	68(4)	2
51(3)	2	85(5)	6
68(4)	4	102(6)	2
85(5)	1	119(7)	5
102(6)	4	136(8)	3
136(8)	3	153(9)	2
153(9)	2	170(10)	2
170(10)	2	187(11)	1
187(11)	1		
	42		32

<표 II-3-5> 2013년~2014년 학교별 감축시간 범위[편제표 검토 결과]

2013		2014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변화(주당)	학교수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변화(주당)	학교수
0(0)	14	0(0)	7
17(1)	7	34(2)	5
32(1.9)	1	35(2.1)	1
34(2)	8	51(3)	2
43(2.5)	1	68(4)	1
51(3)	1	85(5)	4
68(4)	2	119(7)	5
102(6)	3	136(8)	2
136(8)	2	153(9)	2
153(9)	1	170(10)	2
170(10)	2	187(11)	1
	42		32

<표 II-3-4>와 <표 II-3-5>는 연구학교의 학기당 교과 수업시수 감축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3-4>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고, <표 II-3-5>는 연구학교의 편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교과의 시수를 거의 감축하지 않는 학교에서부터 주당 최대 11시간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교과의 시수를 감축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는 2013년도에 4개교, 2014년도에 6개교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편제표상에서는 2013년도 7개교, 2014년도 7개교로 나타났다. 교과 시수를 감축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는 <표 II-3-2>과 <표 II-3-3>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교과 외, 예컨대 선택과목 및 기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활동시간 등을 감축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주요 활동(예컨대 자율과정)의 운영 현황을 수량화하여 고정된 틀로 정리·제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학교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마다 대단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학교들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주요 활동을 어느 정도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교과 시수의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교과 시수 감축현황에서 볼 때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따른 주요 활동은 최대 10시간 또는 11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히 ‘예술·체육 활동’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시간을 자율과정 시간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제표와 실태조사지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들 학교의 분석 결과는 향후 자유학기제 교과 시수 감축부분을 어떻게 표기하고 처리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겨 준다.

3) 교과 감축시간의 활용 방식

<표 II-3-6> 2013~2014년 교과 감축시간 활용 방식

단위: 학교수(%)

	해당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	자율과정(창체)의 다른 영역에 더하여 자율과정으로 운영	교과간 융합 연계 수업으로 운영	계
2013년도	20(38.5)	26(50.0)	6(11.5)	52(100)
2014년도	25(49.0)	24(47.1)	2(3.9)	51(100)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에 감축한 교과시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그런데 사전 조사 및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볼 때, 선택 프로그램을 자율과정의 한 영역으로 인지하는 학교, 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교와 교사들은 그것을 교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 프로그램, 융합연계 수업을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자율과정의 다른 영역에 더하여 운영한 경우가 가장 많고, “해당 교과 연계의 선택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그 다음, “교과간 융합연계 수업으로 운영”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2013년, 2014년 연구학교에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2014년도의 교과 감축시간 활용 방식은 사례조사 결과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율과정(창체)의 다른 영역에 더하여 자율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24개교(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당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22개교(44.9%)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간 융합 연계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낮은 비율인 6.12%, 3개교로 분석되었다.

<표 II-3-7> 2013~2014년 감축된 교과 시간의 지도 담당

단위: 학교수(%)

	감축 교과	해당 교과의 원래 담당 교사	타 교과 교사중 시간이 적은 교사	외부 강사	기타	계
2013년도	국어	23(62.2)	5(13.5)	6(16.2)	3(8.1)	37(100)
	사회	10(58.8)	2(11.8)	4(23.5)	1(5.9)	17(100)
	도덕	16(59.3)	3(11.1)	4(14.8)	4(14.8)	27(100)
	수학	9(64.3)	2(14.3)	1(7.1)	2(14.3)	14(100)
	과학	7(63.6)	2(18.2)		2(18.2)	11(100)
	기술가정	17(63.0)	2(7.4)	5(18.5)	3(11.1)	27(100)
	영어	7(77.8)	1(11.1)		1(11.1)	9(100)
	체육	11(68.8)	1(6.3)	2(12.5)	2(12.5)	16(100)
	음악	8(80.0)		1(10.0)	1(10.0)	10(100)
	미술	10(66.7)	1(6.7)	2(13.3)	2(13.3)	15(100)
	한문	7(70.0)	1(10.0)		2(20.0)	10(100)
	정보	2(50.0)			2(50.0)	4(100)
	보건				1(100.0)	1(100)
	창체·자율활동				1(100.0)	1(100)
기타	1(50.0)			1(50.0)	2(100)	
2014년도	국어	22(73.3)	2(6.7)	4(13.3)	2(6.7)	30(100)
	사회	5(62.5)	1(12.5)	1(12.5)	1(12.5)	8(100)
	역사	7(70)	2(20)	1(10)	0(0.0)	10(100)
	도덕	8(72.7)	1(9.1)	1(9.1)	1(9.1)	11(100)
	수학	12(75)	1(6.3)	1(6.3)	2(12.5)	16(100)
	과학	21(80.8)	1(3.8)	1(3.8)	3(11.5)	26(100)
	기술·가정	17(77.3)	2(9.1)	3(13.6)	0(0.0)	22(100)
	체육	11(47.8)	3(13)	7(30.4)	2(8.7)	23(100)
	음악	11(55)	2(10)	5(25)	2(10)	20(100)
	미술	13(56.5)	3(13)	6(26.1)	1(4.3)	22(100)
	영어	11(78.6)	1(7.1)	0(0.0)	1(7.1)	14(100)
	한문	8(61.5)	2(15.4)	1(7.7)	2(15.4)	13(100)
	진로와직업	7(63.6)	2(18.2)	1(9.1)	0(9.1)	11(100)
	컴퓨터	1(50)	1(50)	0(0.0)	0(0.0)	2(100)
	보건	0(0.0)	1(100)	0(0.0)	0(0.0)	1(100)
	환경	1(100)	0(0.0)	0(0.0)	0(0.0)	1(100)
	중국어	1(50)	0(0.0)	0(0.0)	1(50)	2(100)
	정보	1(100)	0(0.0)	0(0.0)	0(0.0)	1(100)
	선택프로그램	1(50)	1(100)	0(0.0)	0(0.0)	2(100)
	창체	0(0.0)	2(66.7)	1(33.3)	0(0.0)	3(100)
독서	1(100)	0(0.0)	0(0.0)	0(0.0)	1(100)	
스포츠클럽	2(50)	1(25)	0(0.0)	1(25)	4(100)	

감축된 교과 시간을 누가 담당하여 지도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모두 ‘해당 교과의 원래 담당 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2013년의 국어 과목을 살펴보면 총 37개교 중 ‘해당 교과의 원래 담당 교사’가 지도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23개교로 전체의 62.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외부강사’ 6개교(16.2%), ‘타 교과 교사 중 시간이 적은 교사’가 5개교(13.5%), ‘기타’ 의견이 3개교(8.1%)로 나타났다.

다. 교과간 및 교과-자율과정간 융합연계

<표 II-3-8> 2013~2014년 자유학기 교과간(교과내) 융합 연계 평균 횟수

	융합 연계 교과 영역*	교과간	교과-자율 과정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선택 프로그램	교과-동아리	교과-진로 활동
2013년도	연계한 학교 수	37	1	2	10	1	2
	연계횟수	394	10	15	86	4	19
	평균 연계횟수	10.6	10	7.5	8.6	4	9.5
	융합 연계 교과 영역*	교과간	교과 (선택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예체능	계	
2014년도	연계한 학교 수	32	6	5	1	44	
	연계횟수	327	99	53	7	486	
	평균 연계횟수	10.2	16.5	10.6	7.0	11.0	

주) 융합연계 대상 영역을 자유응답식으로 함에 따라 2013, 2014년의 영역 명칭이 다르게 제시됨

자유학기 교과의 융합연계의 횟수와 융합한 상대 교육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교과간(교과내) 융합 연계 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융합 연계 교과 영역 중 교과를 연계한 학교 수는 37개교로 연계횟수는 394회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계횟수는 10.6%를 보였다. 이에 비교하여 2014년 교과는 27개교가 연계를 하였으며 연계횟수는 246으로 9.1%를 보였다. 선택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10개교가 연계하였고 연계횟수는 86회, 8.6% 이며, 2014년도에는 5개교가 연계하였고 53회, 10.6%로 분석되었다.

라. 자유학기의 평가

<표 II-3-9> 2013~2014년 자유학기 교과의 평가 평균 횟수

	국어	도덕	역사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교과	기타
2013년	5.4 수시	4.5 수시		5.1 수시	5.2 수시	6.3 수시	4.8 수시	3.9 수시	3.4 수시	3.8 수시	6.0 수시	3.8 수시	4 수시
	23	20		18	23	17	14	19	18	15	20	15	1
2014년	4.3 수시	2.6 수시	5 수시	4.1 수시	9.4 수시	5 수시	4 수시	3.7 수시	2.7 수시	2.6 수시	5.4 수시	2.5 수시	
	20	12	3	10	15	15	13	14	9	9	17	15	

주) 수시 밑의 수는 “수시로 평가한다고 답한 빈도수(학교수)”를 말함

자유학기 공통교과의 평가 평균 횟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학기당 최소 3.4회(음악)에서 최대 6.3회(과학)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최소 2.5회(선택)에서 최대

9.4회(수학)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2013년 연구학교에 비해 2014년 연구 학교는 평가의 횟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수시평가를 하는 학교는 2013년에는 국어, 수학의 경우 23개교로 가장 많았고, 2014년의 경우에도 국어, 수학, 과학과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는 학교가 각 20, 15, 15개교로 가장 많았다.

<표 II-3-10> 2014년 자유학기 교과목의 평가 방법

교과	평가 방법	
2014년도	국어	활동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결과물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평가, 동료 평가, 말하기 평가, 역할극, 형성평가, 발표 평가, 말하기 듣기, 독서활동, 과정 활동, 진로탐색 과정활동
	도덕	과제평가, 프로젝트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토론 및 서술형 평가, 역할극
	사회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수행평가, 과정평가, 협력기반수행평가, 토론발표, 참여체크리스트
	수학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창의력평가, 자기 성찰 평가
	과학	형성평가, 과제평가, 실험평가,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동료평가, 보고서 및 산출물 평가, 단원별 형성평가, 토의 토론 평가, 탐구능력평가, 총괄평가
	기술·가정	포트폴리오 평가, 교사 관찰평가, 형성평가, 탐구활동 보고서 작성, 실습평가, 프로젝트평가
	체육	서술형평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평가, 실기평가, 수행평가, 차시별 편성평가 및 자기성찰평가, 건강활동, 경쟁활동, 도전활동, 협력기반
	음악	실기평가, 감상평가
	미술	포트폴리오평가, 실습결과물평가, 학습과정평가, 수행평가
	영어	형성평가, 듣기평가, 쓰기평가, 진단평가, 능력시험, 단어 퀴즈, 포트폴리오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영어듣기평가, 인터뷰, 수행평가, 프로젝트 평가, 태도평가
	선택교과	포트폴리오 평가, 말하기 평가, 형성평가, 찬반토론, 배심원 토론, 보고서 제출, 개별평가, 모듈평가
	창의적체험활동(자율과정)	포트폴리오평가, 체험활동 관찰 평가, 발표회, 워크북 작성하기, 보고서평가

평가의 방법으로는 학교마다, 교과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관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결과물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말하기 평가, 역할극, 형성평가, 발표 평가, 말하기 듣기, 독서활동, 과정활동, 진로탐색 과정활동 등 평가 방법을 지칭 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I-3-11> 2013~2014년 자유학기 평가 과정의 기록

단위: 빈도

	교과	매회 평가 결과를 3 단계로 평정,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모두 '서술식'으로	매회 평가 결과를 5 단계로 평정,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모두 '서술식'으로	중간중간의 평가와 최종 평가 결과 모두 단계 설정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2014년도	국어	17	11	4
	도덕	16	7	7
	사회	19	7	3
	역사	2	0	0
	수학	19	12	3
	과학	23	7	3
	기술·가정	19	7	4
	체육	20	5	6
	음악	15	3	5
	미술	17	3	6
	영어	19	9	5
	선택교과	13	4	9
창의적체험활동 (자율과정)	9	2	14	

*중복포함

평가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은 3단계, 5단계, 단계무설정 3가지 중 어느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 교과에서 3단계로 평정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국어과, 수학과는 5단계 평정하는 학교도 3단계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평정을 하는 학교들은 소수로 나타났다.

<표 II-3-12> 자유학기 평가 과정의 기록

	교과	매회 평가 결과를 3 단계로 평정,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모두 '서술식'으로	매회 평가 결과를 5 단계로 평정, 최종 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모두 '서술식'으로	중간중간의 평가와 최종 평가 결과 모두 단계 설정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2014년도	국어	17	11	4
	도덕	16	7	7
	사회	19	7	3
	역사	2	0	0
	수학	19	12	3
	과학	23	7	3
	기술·가정	19	7	4
	체육	20	5	6
	음악	15	3	5
	미술	17	3	6
	영어	19	9	5
	선택교과	13	4	9
창의적체험활동 (자율과정)	9	2	14	

*중복포함

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표 II-3-13> 2013~2014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시 어려운 점

단위: 빈도(%)

	감축 대상 교과 선정	학생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자율과정의 담당 교사 배정	자유학기제에 제시된 다양한 용어의 혼란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미흡	기타	계
2013년도	11(23.9)	18(39.1)	4(8.7)	1(2.2)	10(21.7)	2(4.3)	46(100)
2014년도	6(15.8)	16(42.1)	8(21.1)	0(0.0)	7(18.4)	1(2.6)	38(100)

*중복 응답 포함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시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학생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총 46개교 중 18개교(39.1%)가, 2014년도에는 총 33개교 중 13개교(39.4%)가 평가 및 평가기록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도에는 감축 대상 교과 선정이 11개교(23.9%),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미흡이 10개교(21.7%), 자율과정의 담당 교사 배정이 4개교(8.7%)로 분석되었고 기타의견 2개교(4.3%), 자유학기제에 제시된 다양한 용어의 혼란 부분이 1개교(2.2%)로 가장 낮았다. 2014년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난 학생 평가 및 평가 결과 기록 다음으로 자율과정의 담당 교사 배정을 선택한 학교가 7개교(21.2%)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축 대상 교과 선정 과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미흡 의견이 6개교(18.2%)로 나타났다.

바. 자유학기제의 향후 개선 방안

<표 II-3-14>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단위: 빈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기타	계
2013년도	0(0.0)	31(72.1)	7(16.3)	3(7.0)	0(0.0)	1(2.3)	1(2.3)	43(100)
2014년도	3(9.1)	17(51.5)	8(24.2)	5(15.2)	0(0.0)	0(0.0)	0(0.0)	33(100)

*중복 응답 포함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에 대한 의견은 2013년, 2014년 연구학교 모두 1학년 2학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학년 1학기로 나타났다. 2013년도 연구학교는 총 43개교 중 31개교(72.1%)가 1학년 2학기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2학년 1학기의 비중이 7개교(16.3%)로 높았으며, 2학년 2학기 3개교(7.0%), 3학년 2학기 1개교(2.3%)순으로 타나났다. 마찬가지로 2014년의 경우 총 29개의 학교 중 1학년 2학기를 선택한 학교가 14개교(4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학년 1학기 7개교(24.1%), 2학년 2학기 5개교(17.2%), 1학년 1학기 3개교(10.3%)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3-15>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의 결정 주체

단위: 빈도(%)

	학교가 자율로 정한다	국가가 공통으로 지정한다 (예: 전국 모든 중학교 1학년 2학기)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정한다. (예:A도-1학년1학기, B광역시-2학년 1학기)	계
2013년도	12(28.6)	22(52.4)	8(19.0)	42(100)
2014년도	7(21.9)	21(65.6)	4(12.5)	32(100)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의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2013년, 2014년 모두 국가가 ‘공통으로 지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22개교(52.4%), 18개교(62.1%)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교가 자율로 정한다’는 의견이 2013년 12개교(28.6%), 2014년도 7개교(24.1%)로 분석되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지정한다’는 의견이 2013년도에는 8(19.0%), 2014년도에는 4개교(13.7%)로 나타났다.

<표 II-3-16> 교과 감축 시수의 활용

단위: 빈도(%)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만 활용	타 자율과정에만 증배하여 활용	교과 연계 ‘선택 프로그램’ 또는 자율과정에 증배하여 활용	기타	계
2013년도	3(7.1)	1(2.4)	38(90.5)	0(0.0)	42(100)
2014년도	2(6.3)	0(0.0)	29(90.6)	1(3.1)	32(100)

교과 감축 시수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13년도 연구학교 42개교 중 교과 연계 ‘선택 프로그램’ 또는 자율과정에 증배하여 활용한다는 의견이 38개교로 90.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만 활용한다는 의견이 3개교로 7.1%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타 자율과정에만 증배하여 활용한다는 의견이 1개교로 2.4%를 차지하였다. 2014년 자유학기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연구학교처럼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 또는 자율과정에 증배하여 활용한다는 의견이 총 29개교 중 26개교(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만 활용한다는 의견이 2개교로 6.9%, 기타의견이 1개교로 3.5%의 의견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교과 감축 시수의 활용은 교과 연계 ‘선택 프로그램’ 또는 자율과정에 증배하여 활용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17> 교과 감축 시수의 범위

단위: 빈도(%)

	현재 연구학교처럼 학교 자율로 감축	타 활동 활용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6시간 이내, 교과별 감축시수는 3년 총량의 20% 이내	타 활동 활용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3시간 이내, 교과별 감축시수는 3년 총량의 20% 이내	기타	계
2013년도	25(59.5)	11(26.2)	2(4.8)	4(9.5)	42(100)
2014년도	21(65.6)	7(21.9)	4(12.5)	0(0.0)	32(100)

교과를 감축하여 자율활동으로 교과간 융합연계나 자율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시수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교과 감축 시수의 범위는 2013년과 2014년 연구학교들 모두 ‘현재 연구학교처럼 학교 자율로 감축’ 의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타 활동 활용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6시간 이내’, ‘타 활동 활용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3시간 이내’, ‘교과별 감축시수는 3년 총량의 20% 이내’, 기타 의견 순서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의 교과 감축 시수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29개교 중 ‘감축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현재 연구학교처럼 학교 자율로 감축’에 대한 의견이 19개교로 65.5%를 차지하였고, ‘감축하여 타 활동에 활용하는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6시간이내, 교과별 감축 시수는 교과군별 3개 학년 총량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의견이 7개교로 24.1%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축하여 타 활동에 활용하는 교과 시수의 총량은 주당 3시간이내, 교과별 감축 시수는 교과군별 3개 학년 총량의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의견이 3개교로 10.3%의 비중을 보였다.

<표 II-3-18> 2013~2014년 자유학기제에 따른 평가 개선 방향

단위: 빈도(%)

2013년	교과별 사용 가능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3(22.4)
	학생의 인성과 진로 중심 관찰 및 기록	6(10.3)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과정 관찰 평가의 형성	4(6.9)
	평가에 집착하지 않도록 배려	3(5.2)
	평가내용 기록 공유	3(5.2)
	평가 결과 서술형 기재	3(5.2)
	평가 개념에 대한 연수	3(5.2)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3(5.2)
	필수 기록 내용 제시	2(3.4)
	과목별 수행평가 및 성취기준 기록	2(3.4)
	교사들의 인식 개선	1(1.7)
	수시 관찰	1(1.7)
	교사별 평가 방식	1(1.7)
	지급체제 만족	1(1.7)
	자율과정 중 학생선택프로그램 평가기록 불편	1(1.7)
	응답없음	11(19.0)
	계	58(100)
		평가 결과 기록에 대한 분명한 지침 필요
부정적 평가를 자유롭게 허용		1(1.9)
교사의 자율적인 교과 운영		4(7.7)

2014년	1학기동안 평가하지 않음	1(1.9)
	교과 특성에 맞는 평가 유형과 방법의 다양성	4(7.7)
	평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1(1.9)
	구체적인 서술식 기록	2(3.8)
	학생의 성취력 변화를 체크할 방안 필요	2(3.8)
	서술형 평가에 대한 평가 처리 업무 해결 방안	7(13.5)
	지속적인 변화를 보는 평가 인식 필요	2(3.8)
	평가 결과 입력 방법 시스템 필요	4(7.7)
	학생의 자기 평가 및 상호평가 도입	2(3.8)
	학부모 피드백 반영	1(1.9)
	핵심 성취 기준을 기반한 성취 평가제 운영	5(9.6)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한 학생 잠재력 발견	4(7.7)
	담당 교사의 평가 및 수여권 부여	4(7.7)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부여	1(1.9)
계	52(100)	

* 중복 응답 포함

<표 II-3-18>은 2013년과 2104년의 자유학기제에 따른 평가 개선 방향의 내용을 분석한 표이다. 2013년에는 총 58개교의 학교 중 교과별 사용 가능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관련된 의견이 13개교로 22.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율과정 중 학생 선택프로그램 평가 기록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11개교로 19%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의 인성과 진로 중심 관찰 및 기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가내용 기록 공유,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필수 기록 내용 제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4년의 평가 개선 방향 의견으로는 평가 결과 입력 방법 간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33개교 중 8개교(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한 학생의 잠재력 발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5개교로 15.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자율적인 교과 운영 사항과 학생의 성취력 변화 체크 필요성과 함께 서술식 기록의 필요성, 학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3개교(9.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 결과 기록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 학생과 학습 상담의 필요성 등이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Ⅲ.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1.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쟁점

가. 교육과정 용어상의 혼란 및 오해

교육부가 201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이하, ‘시범 운영계획’이라고 칭함)을 발표하면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의

주요 활동을 나타내는 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을 비롯하여 공통과정(기본 교과), 자율과정, 체험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유학기제의 방식과 내용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시범 운영계획이 발표되고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등이 운영되면서 이들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교육과정상의 혼란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용어상의 문제로 현장의 혼란 및 오해가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용어로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들 수 있다.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기본 틀이다. 즉 자유학기제는 교과를 중심으로 한 공통과정(기본교과)과 네 가지 주요 활동(진로 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구성되는 자율과정의 편성·운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주요 활동을 보다 명료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들 양자의 용어가 기존 교육과정상의 용어들과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공통과정(기본교과)이라는 용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공통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 교과’라는 것과 충돌된다.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공통과정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공통 교육과정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공통 교과와 공통 과정은 중학교의 10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기본교과는 반드시 이 10개 교과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시범 운영계획에서 기본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으로 규정(교육부, 2013: 5)하고 있고 실제 연구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등’으로 모호하게 해 두어 기본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과의 경우는 공통과정 또는 기본교과에 왜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제외되어 있는 교과로부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다음으로, 선택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한 용어상의 문제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내용을 나타내 주지 못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 및 오해,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육과정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의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동의어로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실제 연구학교의 대부분은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동아리 활동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생의 희망을 기반으로 선택하게 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이 동아리 활동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내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용어의 강구가 필요하다.

나. 교육과정 편성상의 부담 가능성

자유학기 기간에는 교과 수업에 더하여 자유학기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학기에 비해 대단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아이디어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교육과정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교과 시수 감축 활용 방안, 교과 시수 감축에 따른 교과 재구성의 문제, 자유학기 시기의 문제 등이 커다란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유학기 기간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이것을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으로 하여 자유학기 운영 모형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5-6). 이 시범 운영계획에서 공통과정(기본교과)은 오전(1-4교시), 자율과정은 주로 오후(5-7교시)에 편성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연구학교의 대부분도 이 시범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공통과정(기본교과), 오후에는 자율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분법적 편성 방식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점으로는 오전에 교과 수업을 종료하고 지도 교사나 학생들이 교과 수업의 부담 없이 자율과정의 활동에 집중하여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교과 수업의 편성이 모두 오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연속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은 자유학기제의 네 가지 활동(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의 시수를 감축하여 이들 활동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연구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적게는 주당 3시간, 많게는 주당 10시간 정도 교과의 시수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를 위해 매년 어떤 교과의 시수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 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교과의 경우 교육 내용의 양이 수업시수 대비 적정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교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수를 감축한 교과는 수업 진도에 대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본 연구에 수행한 면담 조사에서 ‘○○중학교’의 과학 수업의 경우 계획된 교과 단원 중 한 단원을 끝내지 못해 다음 학기에 수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시수를 감축한 교과는 교과 교육내용의 재구성이 필연적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학교 방문 조사 결과, 연구학교에서는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내용 재구성을 도모하고 있는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도 교육과정 편성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와 관련하여 쟁점은 자유학기를 어느 학기로 할 것인가와 전국적으로 적용 학기를 통일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에 수행한 연구학교의 경우에서 보면 시범 적용 학기는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다양하다. 학교 자율성 도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유학기제의 적용 학기는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경우 학생들의 ‘전학’에 따른 학습결손 및 자유학기의 이중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습 결손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경우 특히 시수 감축 교과외의 경우 교과 교육내용 재구성 및 교과 편성 등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의 이중 적용 가능성은 학교마다 자유학기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학기를 보낸 학생이 전학한 학교에서 재차 자유학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이상과 실제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자유학기 적용 학기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촉진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한 실태조사 및 학교 방문 조사 결과에서 보면, 연구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시범 운영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및 학교 방문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교과 융합·연계 수업 및 코티칭과 모둠 활동, 체험활동 등이다. 이들 활동은 시범 운영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연구학교의 경우 이들 활동을 학교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시범 운영계획에서 밝히는 취지와 학교 현장에서 보이는 실제와는 어느 정도 괴리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시범 운영계획에서 밝히는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라기보다 학교 현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연구학교에서는 교과 융합·연계 수업을 해당 교과에서 나름대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련 교과 및 단원과 융합·연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하자면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부분 2개 정도의 교과 간 및 1~2개 정도의 단원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 활동이 되지 못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융합·연계 수업의 경우 관련 교과 교사의 코티칭이 필요하지만 코티칭에 대한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복수 교과 수업에서 해당 단원 및 주제를 각 교사가 의식하여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티칭에 대한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관련 교과 교사 간 수업 시간대의 차이 및 한 교실 수업에서 2명 이상의 교사가 들어가 가르치는 데에 대한 교사 문화 등에 따른 어려움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의 체험활동은 네 가지 자유학기 활동뿐만 아니라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자유학기제의 이러한 체험활동의 강조와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전개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체험활동은 한편으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험활동을 ‘학교 밖’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학교의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부담과 함께 피상적

체험활동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또한 개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을 다양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단일 체험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을 이룬다. 체험활동의 다양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경험 및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칫 피상적인 체험에 머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단일 체험에 집중할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경험 및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보다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해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연구학교의 경우 대부분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 교육과정 평가상의 부담 및 평가 방식

연구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가’에 관한 것이다.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교별로 수업 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성찰 평가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3: 8).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에서 말하는 학생 평가는 순위를 나타내는 ‘등급’ 형태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을 기록하는 ‘서술형’ 평가인 것이다. 학교에서는 단원과 같이 일정 단계마다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종합하여 기록하게 된다. 형성평가에 기반을 둔 이러한 서술형 평가에 대해 학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사 1인당 지도 담당 학생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데 있다. 학교에 따라 다양하지만 지도 담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 300명 이상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평가 형태에 따른 각 단계마다의 학생 개개의 학습진전 상황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의 대부분은 단원 등 각 단계마다 확인하는 평가의 경우 성취평가제에서와 같은 척도로 확인해 두고 학기말에 종합하여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자유학기제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 방식 및 내용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예외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부가적 업무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교사의 부가적 업무가 아니라 정상적 교육과정 활동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가 국가 교육과정으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전면 적용되어 모든 중학교에 실시될 때는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는 자유학기제의 네 가지 활동(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11)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감축한 교과(군)별 수업시수는 원칙적으로 교과 수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외적으로 교과 수업이 아닌 다른 영역 및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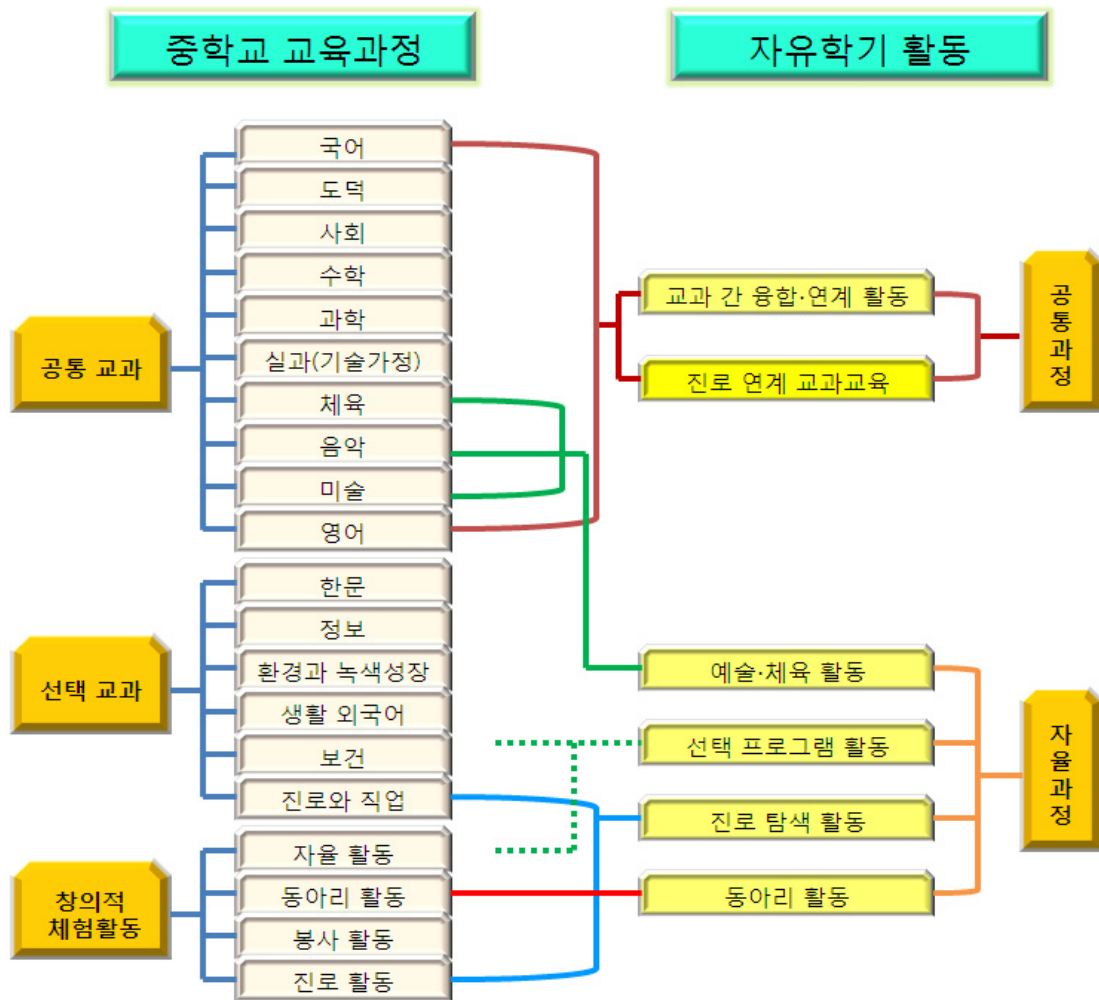
이와 같이 현재 시범 운영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국가 교육과정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 교육과정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자유학기 활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롯하여 교과 시수 감축 및 자유학기 운영 시간 제시 방식, 기타 관련 지침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방안

가. 교육과정 틀로 수렴되는 자유학기제 관련 용어 보완

교사에게 있어서 자유학기제가 특별한 부가적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 교육과정 활동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학기제 관련 용어가 교육과정 틀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용어’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 및 인간의 사고나 행위 등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자유학기제의 경우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교 활동을 나타내 주기 위해 많은 새로운 용어를 창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공통과정(기본교과) 및 자율과정, 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체험활동 등이 그것이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동안 이들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자유학기제가 학교의 교육과정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구안되어 보급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용어 사용의 혼란 및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을 크게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용어는 교육과정상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 구분보다는 [그림Ⅲ-2-1]과 같이 ‘자유학기 활동’(가칭)으로 하여 자유학기제에 수행되는 활동을 나타내 주어도 좋을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상의 용어 충돌 및 오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유학기제에 수행되는 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하고, 이 자유학기 활동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림Ⅲ-2-1]에 나타나 있듯이 교과 간 융합·연계 활동, 진로 연계 교과 교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Ⅲ-2-1]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관련 주요 활동

자유학기 활동 중 용어상 문제가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 맥락에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활동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해 주면서 교육과정 맥락에서 충돌되지 않는 대안적 용어 창출이 요구된다.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대안적 용어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학기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융합·연계 교수·학습’(교육부, 2013: 14)이라는 점, 그리고 ‘선택 교과’, ‘학습동기 유발’, ‘정규교과 또는 직업 체험과 연계하여 학습효과 증대’(교육부, 2013: 4-12) 등이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주요 취지라는 점, 또한 실제 연구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가 감축한 시수 교과 담당 교사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발표에서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성격을 교과 융합·연계 활동으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취지와 연구학교에서 보이는 운영 실체를 감안해 볼 때 대안적 용어로 ‘융합·연계 교과 활동’[가칭] 및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가칭] 등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

에서 ‘선택 프로그램 활동’이 동아리 활동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대안적 용어를 통해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혼동을 해소하고 활동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용어상 문제 외에, 교육과정상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림Ⅲ-2-1]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진로 탐색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각 영역으로 수렴되어 관련지을 수 있지만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어디에도 수렴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 프로그램 활동이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의 영역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그림Ⅲ-2-1]의 ‘선택 교과’의 한 영역으로 위치지우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택 교과의 한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기본 취지인 ‘학생 선택’의 취지를 살린다는 것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수렴해 볼 수 있는 것은 체험활동에서 강조되는 ‘활동’ 및 ‘체험활동’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택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각 영역의 재구조화를 통해 위치지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나. 교사의 교과지도와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촉진 교육과정 편성 방안

마치 교과 활동은 자유학기제에서 제외되고 시범 운영계획에서 밝힌 이른바 ‘자율과정’만이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시범 운영 계획에서도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3: 3)라고 밝히면서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연화, 평가방법의 변화’(교육부, 2013: 4)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과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자유학기제에서 교과 활동으로 어떤 새로운 편성·운영을 요구하기보다, 종래의 교사 주도의 강의식 활동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종래의 교과 활동에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추가하는 것이라기보다 종래의 교과 활동의 개선과 함께 학생의 요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활동의 확대에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장 커다란 쟁점은 교과 활동과 4가지 주요 활동(선택 프로그램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하 ‘4가지 주요 활동’으로 함)을 어떻게 편성·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교육부, 2013: 6-7), 이들 대부분이 오전에는 교과 활동, 오후에는 4가지 주요 활동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실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대부분도 이러한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연구학교

방문 조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지만, 오전에 교과 수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형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즉, 오후의 4가지 주요 활동을 위해 교과 수업이 모두 오전에 편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교사들이 1~3교시 또는 1~4교시의 수업지도를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체육 교사의 경우는 그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편성·운영은 교과 활동과 4가지 주요 활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가지 주요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 밖의 체험활동으로 인식하여 운영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전의 교과 활동과 오후의 4가지 주요 자유학기 활동으로 하는 형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은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하여 교과 활동이 자유학기 활동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교과 활동을 도모한다는 시각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모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이 ‘효율적 교과 지도 고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 체험활동 배려형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을 제시한다. 4가지 주요 활동에 할당된 주당 시수 10시간은 연구학교에서 많이 편성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 이 정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II-2-1> 효율적 교과 지도 고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당 33시간]

[주당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계통 학습 중점 교과 활동					1	계통 학습 중점 교과 활동				
2						2					
3	선택 프로 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3	선택 프로 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4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			4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창체		예술· 체육 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창체		진로탐색 활동		예술· 체육 활동	
6	X		X		6	X		X		X	
7	X		X		7	X		X		X	

<표 III-2-2> 학생의 체험활동 배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당 33시간]

[주당 34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계통 학습 중점 교과 활동					1	계통 학습 중점 교과 활동				
2						2					
3						3					
4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					4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				
5	선택 프로 그램 활동	체육, 창체		음악, 미술 교과 활동		5	선택 프로 그램 활동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활동 창체			
6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예술 · 체육 활동	6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예술 · 체육 활동	
7						7					

<표 III-2-1>의 ‘효율적 교과 지도 고려 배려형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은 교과 활동이 오전에 몰리면서 빚어지는 교사의 연속적인 교과지도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오전의 교과 활동과 오후의 ‘자율과정’으로 양분함에 따라 자유학기제가 마치 자율 과정에만 국한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모형에서는 4가지 주요 활동 가운데 학교 밖의 체험활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 프로그램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오전에 편성하여 교과 수업을 오전과 오후에 분산 편성한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표 III-2-1>과 <표 III-2-2>에서 빚금 친 시간대는 계통 학습 중심의 교과 활동과 체험 중심 활동의 ‘중간지대’를 설정한 것이다. 이 중간지대에는 강의 위주의 교과 활동을 벗어나 자유학기제에서 의도하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오후의 교과 활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다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교과 수업과 진로 연계 교과 수업,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수업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자유학기 기간에 중간·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 및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데 대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마치 교과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은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이 중간지대를 설정하여 교과의 개념 학습을 포함하여 계통적

학습을 보다 철저히 도모하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원용하는 교과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유학기제에서 학생 중심의 토론식 수업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 개선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와 체계적 학습이 경시될 수는 없다. 교과와 체계적 학습은 강의식 수업 방식의 장점을 살려 보다 철저한 교과 학습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서 단원의 성격 등에 따라 교과 간 및 영역 간 융합·연계 수업을 계획하여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토론식 수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간 지대를 설정한 것이다.

<표 III-2-1>의 기본 모형에서 4가지 주요 활동은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내 체험활동으로도 가능한 ‘선택 프로그램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오전에 편성하고, 학교 밖의 체험활동 가능성이 큰 ‘진로 탐색 활동’과 ‘예술·체육 활동’은 오후에 편성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학교의 편성·운영 양상에서 볼 때,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경우 지도 교사가 대부분 교과 시수 감축 대상의 담당 교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거의 해당 교사의 담당 교과와 특정 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의 활동보다 교내 활동이 주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학교의 이러한 양상에서 볼 때 향후 전면 실시되었을 때의 선택 프로그램 활동도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오전에 편성·운영하도록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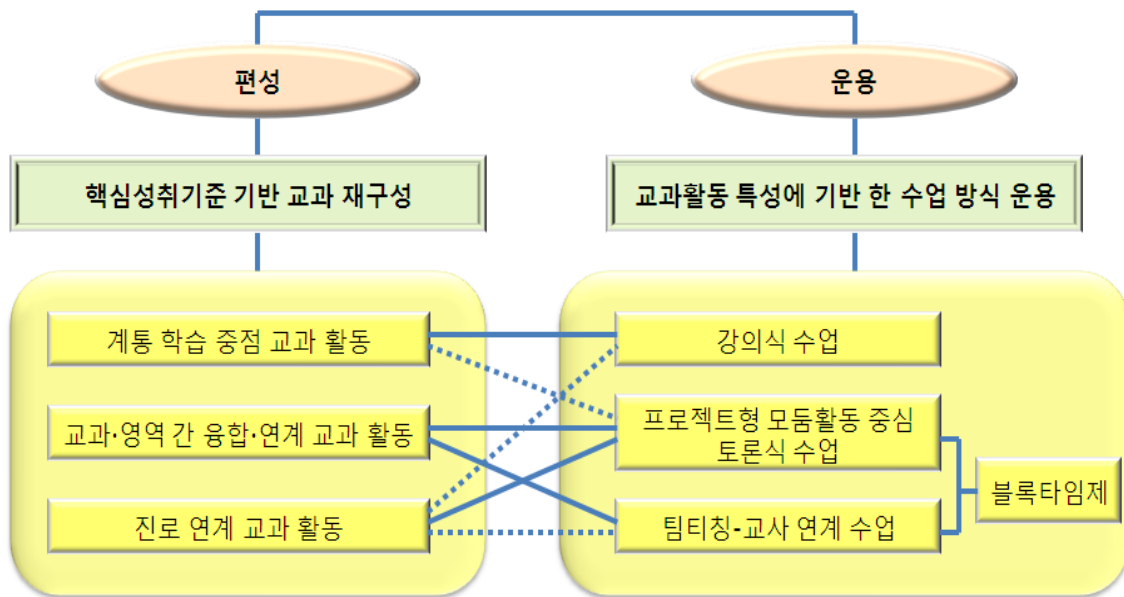
<표 III-2-2>의 ‘학생의 체험활동 배려형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모형은 교과 활동을 오전에 집중 편성하고 4가지 주요 활동은 오후에 집중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편성·운영 방식은 4가지 주요 활동을 오후 시간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수업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4가지 주요 활동에 집중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방식의 경우도 교과 활동은 1~3교시까지의 해당 교과와 체계적 학습에 초점을 두고, 4~5교시는 가능한 한 융합·연계 및 진로 연계 교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편성·운영은 교과 활동을 4가지 주요 활동 전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교사의 연속적 수업지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서 주로 권장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양상을 볼 때 4가지 주요 활동의 주당 시수가 대체로 10시간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10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하면 이러한 방식의 편성·운영의 경우도 교사의 연속적 수업지도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자유학기제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촉진 수업 운영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의 하나는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교육부, 2013: 3) 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특히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교육부, 2013: 13)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견고한 체계적 수업이 전개되어 왔고 이 교과 수업의 전개는 강의식에 편중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내면적 참여 기회가 차단되어, 자연스럽게 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나 동기 등이 대단히 낮다. 자유학기제의 방향 및 취지에서 나타내하고자 하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획일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나 변화가 종래의 획일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강의식 방법을 일방적인 배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교과외의 계통적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강의식 수업이 효율적·효과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나 변화는 일률적으로 도모하기보다 자유학기제에서 교과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그림 III-2-2] 와 같이 자유학기제에서 방향 및 취지에서 보이는 교과 활동을 편성과 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유학기 활동으로서의 수업 설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III-2-2] 자유학기 활동으로서의 수업 설계

교과 수업의 편성은 <표 III-2-1>과 <표 III-2-2>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크게 세 가지, 즉 계통적 학습을 위한 교과 활동과 교과·영역 간 융합·연계 교과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교과·영역 간 융합·연계 교과 활동과 진로 연계 교과 활동은 자유학기제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다. 교과 활동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교과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림 III-2-2]와 같이 달리하여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학기제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화가 모든 교과 활동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III-2-2]에서 ‘편성’과 ‘운영’ 사이의 ‘실선(-)’은 해당 교과 활동에 대한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운용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점선(- -)’은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는 운용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계통 학습 중점 교과 활동’의 경우 ‘강의식 수업’이 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형 모듈활동 중심의 토론식 수업’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영역 간 융합·연계 교과 활동’은 가능한 한 ‘강의식 수업’은 하지 않고 주로 ‘프로젝트형 모듈활동 중심 토론식 수업’ 및 ‘팀티칭 또는 교사 간 연계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에 보다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경우에 따라 ‘블록타임제’의 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교과 및 영역 간 융합·연계 교과 활동은 단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상하되 자유학기에 각 교과에서 몇 개 단원(2~3개 정도)을 중점 편성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학교 현실을 고려한 자유학기 활동의 평가 방안

자유학기제에 따른 가장 혁신적 변화는 학기 중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 기간 중 특히 학생들의 교과 학습 성취수준을 어떻게 확인하는가가 커다란 쟁점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특정 기간에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학습 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학생·학부모 등에게 충분히 공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16). 또한 이 시범 운영계획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3: 17). 이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사항을 신설하여 기록방식을 제시해 두고 있다((교육부훈령 제29호, 제15조 12항).



[그림 III-2-3] 자유학기제의 평가 관점의 변화 및 강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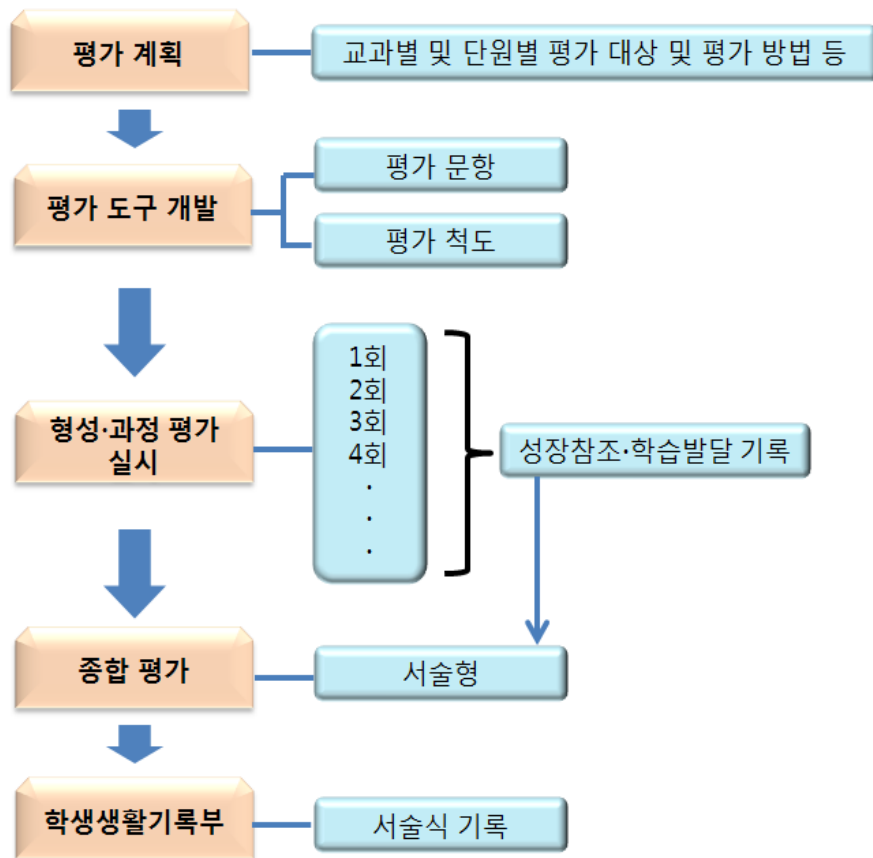
자유학기제의 중간·기말고사 미 실시 및 평가 관점의 변화에 따라 [그림 III-2-3] 과 같이 자유학기제의 평가 관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써,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체험활동을 도모하게 되었다. 종래의 중간·기말고사의 지필평가의 대안으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기말고사에 실시한 등급화를 하지 않고 수업 과정에서 실시하는 형성평가 및 과정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이러한 평가의 변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에서 볼 때,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가 관련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용어의 다양한 활용은 평가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평가에 대한 오해와 혼동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평가 방법의 촉진 및 서술식 평가 기록 강조에 따라 교과 담당 교사들의 평가 실시 및 기록에 따른 부담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학교의 중·대규모의 학교의 경우 교과 지도 학생이 1인당 300명 이상 되는 등 지도 학생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술식 기록이 강조됨으로써 자연히 등급화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력 수준 확인 요구에 따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학기제의 평가 관점 및 방식의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의 평가 수행을 안내하기 위한 기본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은림(2014: 5-6)은 자유학기제 평가 모형을 평가 기능과 평가 방법, 평가 주체 측면에서 모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춘 일반적 수준으로,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 활동의 평가 양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유학기제에 따른 평가 실시의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 교과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주요 활동의 평가를 구분하여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림 III-2-4]와 같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활동 평가와 4가지 주요 활동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한다.

평가 단계	수업 과정 (단위 수업, 주, 월)	수업 종료 (학기 말)
평가 기능 및 유형	형성 평가 (과정 평가)	총괄 평가
평가 대상	○ 교과학습 성취수준 ○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등	학습 성과
평가 방법 및 도구	○ 관찰, 척도, 체크리스트 등 ○ 간단한 쪽지 테스트 등	종합 평가
보고 및 기록 방식	○ 성장참조 기록지 ○ 학습발달 기록지 등	종합 서술 기록
평가 결과 활용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확인 및 총괄 평가 자료	학생생활기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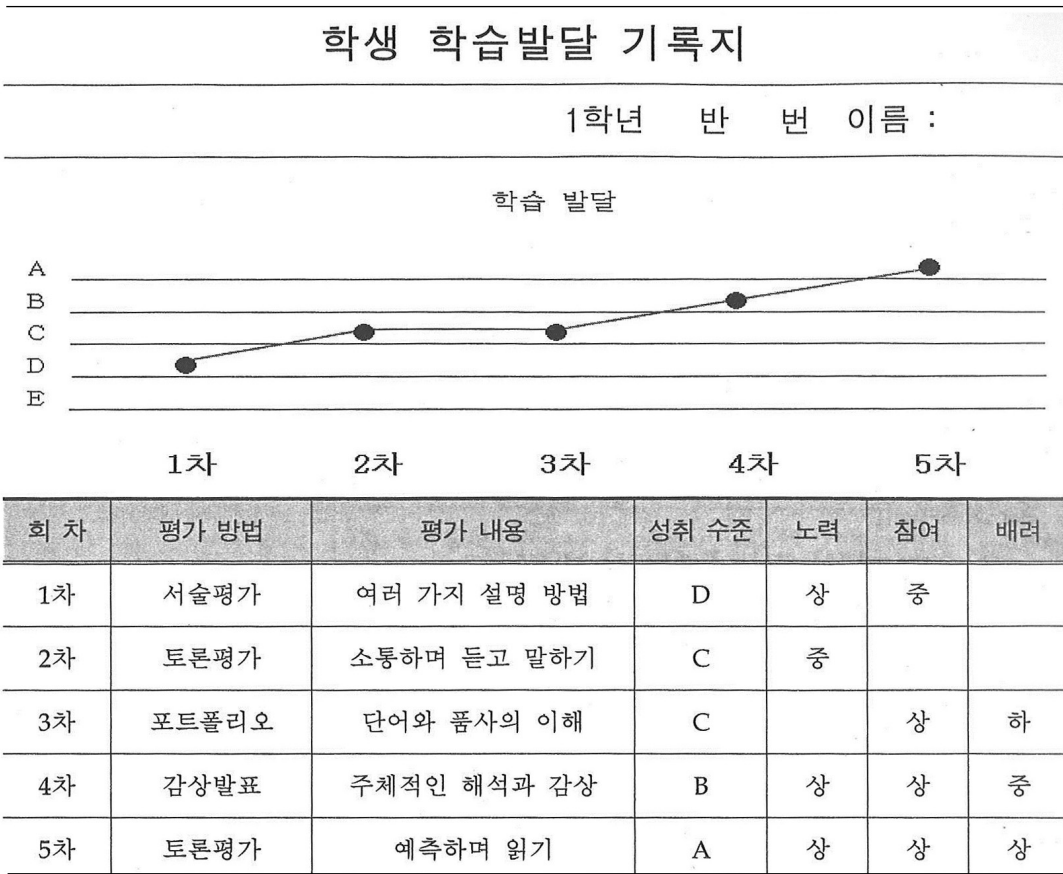
[그림 III-2-4] 자유학기제의 교과 활동 평가 모형

자유학기제에 따른 단위 학교의 평가에 대한 오해 및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III-2-4]와 같이 평가 관련 국면을 평가 단계와 평가 기능 및 유형,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도구, 보고 및 기록 방식, 평가 결과 활용 측면으로 구분한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보면 ‘과정’과 ‘종료’ 시점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교과 활동에서 보면 단위 수업 및 주, 월 등과 같은 시점의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학기 말에 이루어지는 수업 종료 시점을 가리킨다. 또한 평가의 기능상 평가의 유형은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로 구분되는데, 교과 활동의 경우 형성 평가의 주 대상은 교과 학습 성취수준을 비롯하여 주로 수행평가에서 이루어지는 수행과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 및 도구는 관찰 및 척도, 체크리스트 등이 주로 권장 사항이지만 교과 및 단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쪽지 테스트 등의 방법도 원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에서 평가 결과의 보고 및 기록 방식은 등급화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취수준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권장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형성 평가로 이루어지는 평가 결과는 <표 III-2-3>과 <표 III-2-4>와 같이 ‘성장참조 기록지’나 ‘학습발달 기록지’ 등을 활용하여 기록해 두고, 학기말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II-2-5] 자유학기 평가 절차

<표 III-2-3> A중학교 국어과 과정평가 상황 기록



출처: 정호경(2013). p.46.

<표 III-2-4> B중학교 수학과 성장기록지

	배움을 넘어 배려와 나눔의 행복을 키우는 연희중학교! 학생성장기록지	1학년 ({{번호}}반 ({{번호}}반 ({{성명}}))
	과목 : 수학 (3월-5월 중순까지의 활동)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저는 1학년 1반~5반까지 1주일에 8시간씩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 황유진입니다. 본 기록지는 부모님께 자녀들의 학습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 태도와 학습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였으므로 학생 이해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자녀의 학습과 관련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872-2882, 연구부)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수학과 교사 황유진 올림

◎ 2014년 1학년 수학 교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과 운영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만 안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교는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평가교사는 2학기 기말교사**만 실시합니다. 평가교사를 치르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지? 등에 대한 고민거리로 수학 교사들이 모여 몇 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의 취지대로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과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원, 지필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단원으로 순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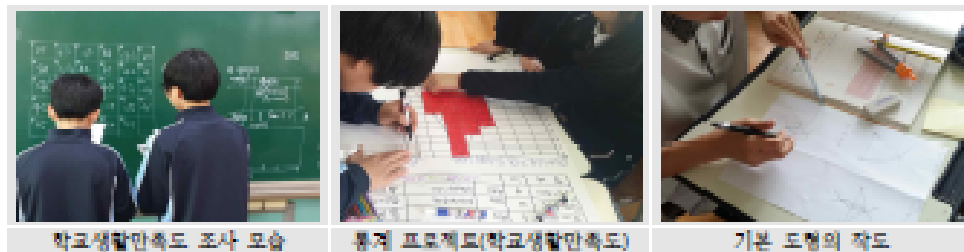
< 재구성 순서 > 2. 정수와 유리수 - 5. 통계 - 6. 기본 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 7. 평면도형의 성질 - 8. 입체도형의 성질 - 1. 소인수분해 - 3. 문자와 식 - 4. 함수와 그래프

또한, 일주일에 4시간 진도를 나가지만 월간 수학 수업을 8시간은 교과 진도, 1시간은 수학 식쓰기 시간으로 구성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 4월 동안 1학년 1반~5반까지 학생들은 정수와 유리수, 통계에 대한 단원평가를 실시하였고, 활동 학습 속에서의 과정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8일 현재 학생들은 기본도형과 삼각형의 작도를 배우고 있으며, 8월 초 중에는 단원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 평가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 편으로 안내하였고, 다음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학생은 수학 시간에 아래와 같이 학습했습니다.

1. 수학에 대한 거리감 줄이기 : 특별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수학 시간에 어떠한 자세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포스트잇에 기록 후 발표
2. 정수와 유리수, 통계 : 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 형성과 문제풀이 등을 지도
3.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통계 프로젝트1 : 반별로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반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통계 포스터로 나타내는 활동
4. 통계 프로젝트2 : 보고서 작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 처리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들의 수학 점수를 정리-도수분포표 작성-평균-히스토그램 등의 통계처리 과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짐
5. 정수와 유리수, 통계 관련 단원평가 실시 : 사전에 학습해야만 하는 문제지 배우 후, 단원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분제는 수학 식쓰기 문제로 출제, 일반 지필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6. 기본 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 눈금없는 자와 컴퍼스로 기본 도형을 작도하는 과정을 통해 도형의 정의와 성질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짐



◎ <수학> 시간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습니다.

※ 학교에서 아래의 내용들을 발견 후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학생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1.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역수의 개념” : 어떤 수 a 의 역수란 a 와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를 말합니다.
 8 의 역수는 $\frac{1}{8}$, $\frac{1}{2}$ 의 역수는 2 라고 잘 알고 있지만 -1 의 역수를 질문했을 때 1 이라고 답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지도 => $3 \times (\quad) = 1$, $(\quad) = \frac{1}{3}$ / $-1 \times (\quad) = 1$, $(\quad) = -1$

2. 통계 단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기” : 학생들의 단원 평가 결과(의명성 보장)로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평균을 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급에 속한 도수가 8인 경우 계급값 88인 자료가 8개임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 상대도수를 구하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았으나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시작과 끝 점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도 => 도수분포표 속에서 계급과 도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균 구하는 법과 계산기 활용법,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 기본 도형의 작도 단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수선의 발” : 교과서 308페이지에서 수선의 발은 점 H 를 말하는데, 학생들은 수선의 발을 자주 선분으로 기억합니다.
 지도 => 그림을 그려 수선의 발은 무엇을 말하는지 1대 1 질문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교과서 177)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교과서 188)

수선의 발(교과서 308)

◎ 학생의 소감 한마디! (성장기록지를 보고 자신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 학부모님 한 말씀! (성장기록지를 보시고 답글을 적어주세요. 별지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

단원평가의 사기를 학생 편으로 안내하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편지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편지지서비스 신청하시면 안내하겠습니다.
 편지지서비스 신청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학부모명 () / 손정희번호 ()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은 학교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학생 편으로 5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지난 4월 말 실시한 단원평가(정수와 유리수, 통계)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이미 통보했습니다. 5월 2주~4주 사이에 “기본도형과 삼각형의 작도” 단원 평가 실시 예정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출처: 황유진(2014). p.73.

[그림 III-2-4]의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실제 학교에서 자유학기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등의 평가 절차를 [그림III-2-5]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학습 진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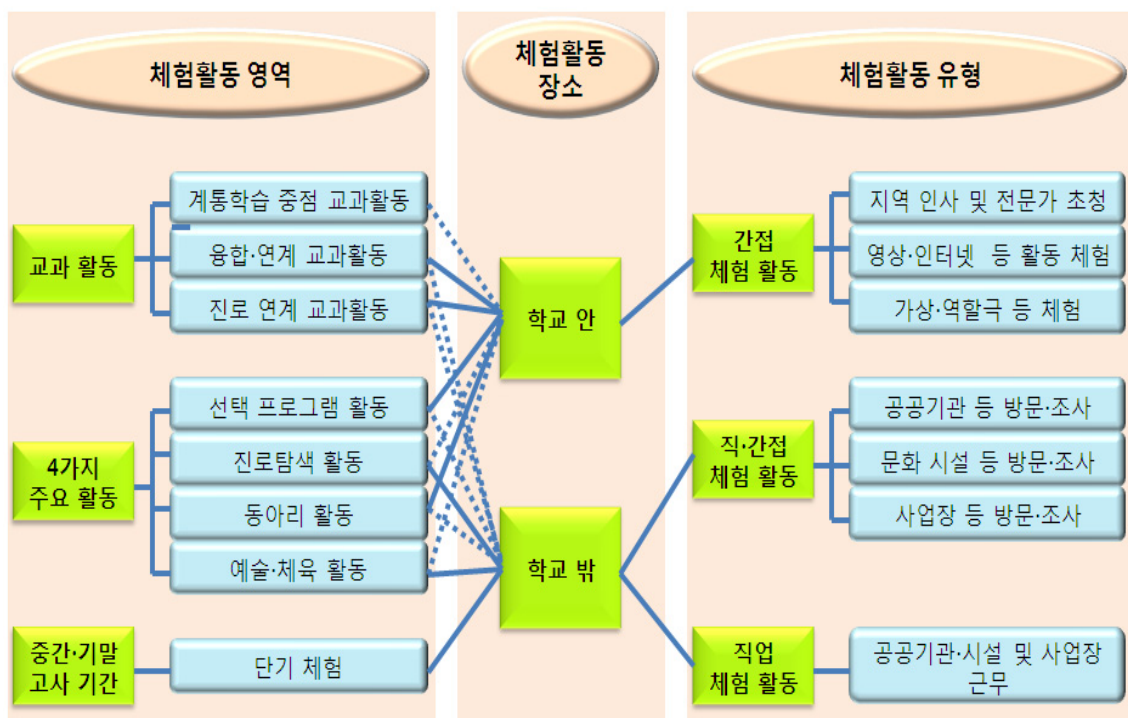
이고 치밀한 평가 절차가 요구된다. 평가 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치밀한 ‘평가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과외의 경우 단위별 평가 대상과 함께 어떤 평가 방법 등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특히 평가 방법은 수행 및 포트폴리오, 토의·토론, 체크리스트, 서술, 쪽지 테스트, 감상, 발표, 작품 등 단원의 성격 및 특성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 계획’이 수립되면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자유학기에는 종래의 점수화하는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계획’에서 계획한 평가 방법에 따른 문항을 개발해야 하며, 판단의 준거로 ‘평가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이 때 평가 척도는 예컨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표Ⅲ-2-3>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평가 계획에 따라 자유학기 동안 실제 ‘형성 또는 과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형성 또는 과정 평가는 자유학기 동안 수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말 종합평가를 위해 각 형성·과정 평가의 결과를 반드시 체크 또는 기록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Ⅲ-2-3>과 <표Ⅲ-2-4>와 같은 ‘성장참조·학습발달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성장참조·학습발달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학기말에 학생들의 ‘종합 평가’를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마. 체험활동의 다양화 및 질적 제고 방안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3: 3). 이를 위해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 등을 활용한 초청강의 및 특강 등을 활성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3: 9).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교육부, 2013: 10),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단’을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4: 3).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각 학교는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게 될 것이다. 연구학교의 경우에서 확인되지만, 자유학기제에 따라 단위 학교는 체험활동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학교 밖, 즉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과 함께 단위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을 체험활동이 가능한 영역을 분류하고 해당 영역에서 가능한 체험활동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학기 기간에 가능한 체험활동 영역은 공통 교과를 비롯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의 4가지 주요 활동,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중간·기말고사 기간이다. 이들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체험활동 장소를 크게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구분하고,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가능한 체험활동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림Ⅲ-2-5]에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영역의 체험

활동이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의 체험활동 장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점선 (---)’은 수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경우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계획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학교 내의 체험활동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연구학교의 경우에서 보면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교과 시수가 감축된 교사가 담당하게 되고 활용 주제 등이 해당 교사의 교과와 연계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밖의 체험활동은 진로 탐색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 특히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에 집중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2-5] 자유학기 활동으로서의 체험활동 영역 및 유형

학교 밖의 체험활동은 ‘직접 체험’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직접 체험’과 ‘[가칭]직업 체험’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특히 종래의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는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보다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접 체험에 대응되는 일반적인 직접 체험 형태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직접 체험’은 [그림III-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밖의 공공기관 및 시설, 문화 시설 등에 방문하여 견학 및 조사 등의 활동으로 체험하는 형태를 말한다.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의 체험활동은 대개 이러한 형태의 체험활동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개 이러한 체험활동 유형은 일회성에 머물고 보다 의미 있는 진로체험 활동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학교의 사례에서 보면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학생들이 주로 견학

형태의 설명 및 시설 둘러보기, 가상 체험 등이 주로 이루어져, 직원으로서의 체득 경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Ⅲ-2-5]에서 말하는 ‘직업 체험활동[가칭]’은 방문 견학·조사 형태의 체험활동에서 나아가 방문기관 및 시설의 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직업에 대한 체득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체험활동’은 먼저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직업 체험활동’ 기간은 ‘3~5일’ 정도로 하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체험활동 장소로 출퇴근하도록 업무를 보게 하여 보다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도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직업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 문제’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현재 대부분의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밖의 ‘직·간접체험활동’ 형태를 보다 발전적인 업무 경험 중심의 ‘직업 체험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 자유학기제 실시 학기의 일원화 및 이원화 방안

자유학기제의 취지에서 보자면 자유학기제의 실시 학기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는 자유학기제 실시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 실시 학기를 가능한 한 국가 수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통일하자는 견해가 대단히 높게 나왔다. 제Ⅱ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 2학기 및 2014년도 1학기에 실시한 학교 모두 ‘1학년 2학기’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전국적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표 Ⅲ-2-5>와 같이 1학년 2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31.8%), 그 다음은 2학년 1학기(26.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종 조사 결과에서 자유학기제 실시 학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그 경우 1학년 2학기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표 Ⅲ-2-5> 중학교 교사의 자유학기제 실시 시기 선호도

단위: 빈도(%)

학년/학기	응답
1학년 1학기	126(19.2)
1학년 2학기	208(31.8)
2학년 1학기	171(26.1)
2학년 2학기	75(11.5)
3학년 1학기	20(3.1)
3학년 2학기	55(8.4)
전체	655(100.0)

본 연구에서는 각종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 현실 측면에서도 자유학기제의 실시 학기를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일원화할 필요하다고 보며, 만약 학기를 통일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2개 학기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원화의 가장 커다란 배경은 학생들의 전학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자유학기제의 이중 이수 가능성 때문이다. 일원화로 한다면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1학년 2학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적어도 학생들이 중학교 1학기동안은 중학교 경험 및 적응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의 학교 이동이 감안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 자유학기제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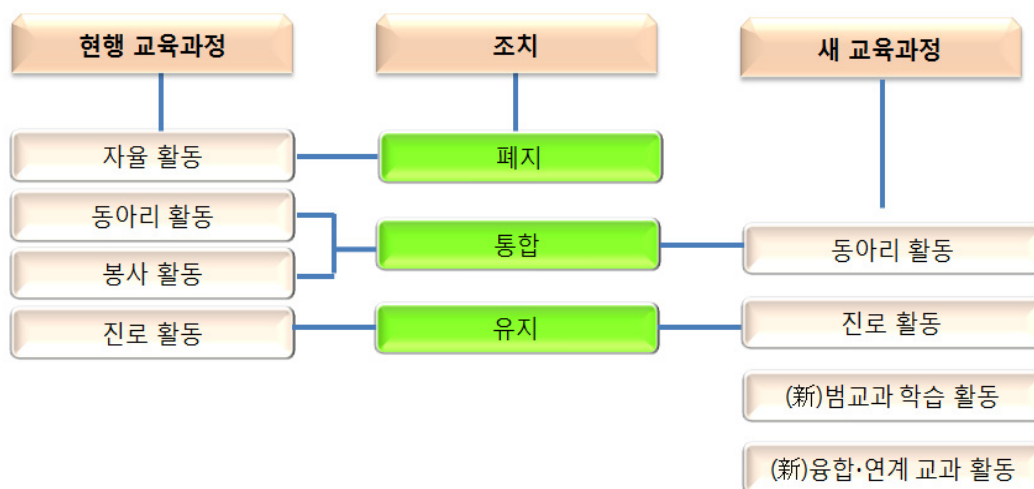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기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편제 및 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유리되거나 일정 정도 괴리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가적 업무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학교나 희망학교의 경우에서 볼 때 실제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기본 아이디어가 국가 교육과정으로 수렴되어 자유학기 활동이 교사의 부가적 업무가 아니라 교사의 일상적 교육과정 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상에 자유학기제를 안내할 경우,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안으로 ‘[가칭]자유학기 활동’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주된 근거는 전자와 같이 구분 제시하게 되면 마치 ‘자율과정’만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활동으로 간주되고 교과 활동은 배제되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상의 용어상 혼란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내용을 표현해 주지 못하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가칭]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연구학교의 사례에서 볼 때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대부분은 교과 시수를 감축한 교과의 교사가 담당하고 활동 내용도 해당 교사의 교과 내용이 주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교과 간 융합·연계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 프로그램 활동’의 성격을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국가 교육과정상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이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의 4가지 주요 활동 중 진로탐색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은 현행 교육 과정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선택 프로그램 활동은 교육과정상 신설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융합·연계 교과 활동’ [가칭] 또는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 [가칭] 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위치지우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거는 학생의 체험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림 III-2-6]과 같이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융합·연계 교과 활동’ [가칭] 또는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가칭] 으로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자율 활동'은 학생의 체험활동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자율 활동을 통해 그동안 실시해 온 학교 행사 등을 위한 시간 확보는 수업일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 되어 왔던 학교 행사 등을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학교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림 III-2-6]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재구조화

'봉사 활동'은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치하지 않고 활동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아리 활동'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즉,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합시켜도 좋다고 본다. 이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비하고, '융합·연계 교과 활동'[가칭] 또는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가칭]과 '범교과 학습 활동'을 신설하여 재구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융합·연계 교과 활동'[가칭] 또는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가칭]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신설하게 되면 이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교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신설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은 종래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것인데, 이 재량활동의 주요 영역이 '범교과 학습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향후 새 교육과정에서도 '범교과 학습 활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의 지침에만 제시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 '범교과 학습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용어 및 영역을 교육과정상과 관련시켜 정비하고 편성·운영 관련 사항을 중학교 교육과정 문서에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편제'에도 포함시켜 제시하는 경우(1안)와 '편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침으로만 제시하는 방안(2안)을 각각 제시해 두고자 한다.

[1안]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지침 구안(안)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10)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단,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기에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가칭]‘융합·연계 교과 활동’으로 하며, [가칭]‘융합·연계 교과 활동’은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에 편성·운영한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자유학기 기간에는 특히 진로 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가칭]융합·연계 교과 활동 등을 편성하여 중점 지도하도록 한다.**

(나) **자유학기 활동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시간은 교과(군) 시수를 감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각 학교는 지역 및 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고려하여 자유학기 활동의 명칭 및 목표, 내용 등을 적절히 정하고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나. 평가 활동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학교의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학교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주) 자유학기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 활동의 최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최저 시간은 102(주당 6시간) 또는 136시간(주당 8시간)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최저 시간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나 해설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에 밝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안]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지침 구안(안)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단,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기에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자유학기 기간에는 특히 진로 탐색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가칭]융합·연계 교과 활동 등을 편성하여 중점 지도하도록 한다.

(나) 자유학기 활동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시간은 교과(군) 시수를 감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각 학교는 지역 및 학교, 학생들의 실태를 고려하여 자유학기 활동의 명칭 및 목표, 내용 등을 적절히 정하고 지도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나. 평가 활동

(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중학교의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지필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학교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3. ‘전환’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가. ‘전환 학년’ 개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설계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유학기제의 가장 커다란 의의는 학생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지니는 자유학기제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제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왜 중학교이고 그것도 한 학기이며, 자유학기 전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자유학기제가 학생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성찰하는 데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중학교의 한 학기에 머물지 않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보급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I-3-1] '전환 학년' 개념의 자유학기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와 수업방법의 개선이 도모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 '양의 축소'와 '수준의 적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연구학교 면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유학기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의 충실화를 도모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전·후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유학기제의 기본 아이디어가 현재와 같이 중학교 한 학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확대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림 III-3-1] 과 같이 '전환 학년' 개념의 자유학기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 학년' 개념이란 말하자면 아일랜드의 TY, 영국의 GY, 덴마크의 After School 등의 전환 학년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의 졸업 후의 한 해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제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의 4/4분기에 도입하여 '전환 학년' 개념의 아이디어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절적 학교급 간 및 학교급 내에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4분기에 도입하는 '전환 학년'은 [그림 III-2-5]에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단기 체험'이 중심이 된다. [그림 III-3-2]에서 볼 때 초등학교는 '[가칭] 직장 견학 체험활동', 중학교는 '[가칭] 직업 체험활동', 고등학교는 '[가칭] 직장 인턴 체험활동'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초등학교는 중학교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5, 6학년의 경우 특히 위계

교과, 예컨대 수학, 과학, 영어 등은 교과전담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분과적 교과 교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융합·연계 교과 설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범교과 학습 활동과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재구조화하여 이 세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 등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주체가 학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으며, ‘봉사 활동’은 필요하다면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세 가지 영역을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위 영역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범교과 학습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범교과 학습 활동 자체가 융합적 성격을 지닌 활동임과 동시에 학생의 체험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학기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융합·연계 활동’의 전형적인 형태의 활동이기 하다.

나. 진로 발달 및 지역 교육력에 기반 한 ‘체험활동’ 설계

[그림 III-2-5]를 통해 자유학기 기간에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의 영역 및 유형을 밝혀 제시해 보았지만,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을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과 지역 연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전면 적용되었을 때 각 학교는 체험활동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위한 활동이 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III-3-2] 진로 발달 및 지역 교육력 기반 체험활동 설계

[그림 III-3-2]와 같이 먼저 학생들의 진로 발달을 고려하여 학교급의 진로에 대한 관점 및 체험유형을 명료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계획에서도 [그림 III-3-2]와 같이 제시해 두고 있다(교육부, 2013: 3). 학교 급별에 따른 체험활동의 방향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 결정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고등학교 단계이고 그 이전의 학교급에서는 진로 인식 및 탐색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진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생은 자신의 특기·적성 등을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력이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체험의 유형은 초등학생은 ‘직장 견학 체험활동’, 중학생은 ‘직업 체험활동’, 고등학생에게는 ‘직장 인턴 체험활동’이 되는 것이다. 학교급에 따른 이러한 체험활동의 관점 및 방향, 유형 등을 보다 명료히 하여 학생들의 진로 발달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III-2-6> 자유학기 운영 체험장 사례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체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리힐리 파크(레저) • 국순당 • 서울 F&B(유가공제조업) • 하나코스(화장품제조업) • 미트&푸드(축산가공업) • 대성병원 • 파스타르 • 청량버섯농원 • 남기영건축사무소 • 횡성축협생축장 • 공군제8전투비행단 • 청태산자연휴양림 • 숲체원(숲체험장) • 강원일보사 • 한림대학교 • 종가집 횡성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음악학과, 체육학과, 학생회관 광고, 공공건물 디자인) • 해태제과 • 이화여대(대학 동아리) • 영화박물관 • 떡 박물관(서대문 청소년수련관) • 하늘공원(월드컵 관린공단) • 디지털과빌리온(미래건축과학, 수학) • 서울대공원(환경미술, 공연댄스) • 조선일보 • 누리꿈스퀘어(과학) •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 소방학교, 수난구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북농협 • 사북초등학교 • 사북어린이집 • 사북읍사무소 • 사북파출소 • 119안전센터 • 삼탄아트마인(큐레이터, 요리사, 바리스타) • 현대자동차블루웬즈 • 민동산역 • 한국병원 • 사북청소년상담센터 • 흑빛지역아동센터 • 정선군생활체육센터 • 고한사북남면청년주민주식회사(보안경호)

출처: 안재연(2014). p.26; 황유진(2014). pp.58-59; ○○중학교(2014). 우리는 자유학기제로 미래를 만든다.

또한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밖’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체험활동은 필연적으로 ‘지역 연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III-2-6>에 보는 바와 같이 연구학교에서는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장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연구학교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활동은 ‘진로’에 제한된 인식이 강하고 학교 밖, 즉 지역과의 연계를 지역 시설의 이용 및 제공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체험장의 경우 공공 기관 및 시설 등과 같이 유택한 장소 확보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유학기제 및 이러한 아이디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계에 따른 체험활동을 단순히 ‘진로’에 한정되지 않고 진로 탐색력을 포함하여 대인 관계력 및 사회 관계력, 직업 역량 등의 형성에까지 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장의 경우도 공공 기관 및 시설 등과 같은 장소도 좋지만, 이러한 장소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의료 시설을 비롯하여 이발·미용실, 음식점, 상점가 등까지 체험장의 시야에 넣어

체험장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체험장의 이러한 다양화는 특히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의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 체험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자유학기 기간에는 다양한 교내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자유학기 활동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다른 학기에 비해 학교 밖의 체험활동이 대단히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가장 커다란 당면 과제는 학교 밖 체험활동과 관련한 소요 예산 확보와 안전 확보 문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나 희망학교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으로 자유학기 운영에 투입되고 있지만, 2016년에 전면 적용되는 학교의 경우는 예산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유학기 기간에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의 경우에서 볼 때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위한 체험장 확보 및 체험장으로의 이동 수단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다. 학교의 적극적인 체험장 확보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촉진할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안전 확보 문제이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사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체험활동 등에 따른 사고 보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유학기에 따른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를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13년도 현재 중학생 수가 1,804,189명인데(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16), 자유학기제에 따라 1개 학년인 약 60만 명이 매년 학교 밖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른 학교급 및 학기·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학교로서는 학교 밖의 체험활동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이러한 양상을 연구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의도하는 체험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밖 체험활동 운영비’와 ‘안전사고 보상’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학교 밖 체험활동 운영비’는 예컨대 교사의 체험장 확보 및 지도, 출장,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가칭]‘자유학기 운영 안전보험’을 신설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보험의 대상은 자유학기 기간 학교 밖 체험활동 수행 중에 일어난 각종 사고 및 체험장의 관련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보험자는 학교 밖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체험장(사업장) 지도 책임자, 학부모, 교사 등이 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특히 [가칭]‘자유학기 운영 안전보험’의 경우는 지자체가 해당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는 별도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밖 체험활동의 안전사고와 관련

하여 법적 근거를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법률 및 규정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다. 이들 법률 및 규칙에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가목 일부 개정
 (현) 제2조(정의) 제4호 가목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개) 제2조(정의) 제4호 가목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 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일부 개정
 (현)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개)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IV. 마무리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연구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대답이 교사들로부터 자주 언급되었고, “비록 힘은 들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도를 의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 또한 외국을 방문하여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중학교에 방문하여 면담을 수행했을 때, 교사들은 “직장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 학생들이 직장체험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보고(이혜영 외, 2012: 56)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 가운데 ‘학교에 다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12.6%)’,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1.9%)’고 생각하는 학생이 적지 않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이 학교에 가지 싫은 이유로 가장 높게

드는 것이 ‘학교 공부가 재미없어서(54.7%)’를 들고 있으며, ‘학교를 다녀도 희망이 없어서(29.4%)’라고 반응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설문 결과(정영근 외, 2014)에 의하면 중학교에 다니고 이유로 ‘미래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57.0%)’, 학생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진로 문제(35.1%)’, 학생의 미래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성(64.0%)’을 들어 다른 어떤 요인보다 높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학생들의 이러한 반응과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실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자신에 대한 고민은 학력(學歷)과 시험·입시 학력(學力) 지향의 비교경쟁에 편중된 우리나라 학교 교육문화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이라는 정책 슬로건 하에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대단히 의미 있고 커다란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적용에 맞추어 필요한 정책적 사항 가운데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 두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가 교사의 부가적 업무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상적 활동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 편성·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은 국가 교육과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히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칭]‘자유학기 활동’으로 하고,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가칭]‘융합·연계 교과 활동’ 또는 ‘교과 융합·연계 선택 활동’으로 활동으로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편성·운영 중점 사항에 제시해 두도록 한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의 시간 확보를 위해 최저 시간을 가능한 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설서와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의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편성·운영과 평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화되면서 명료한 모형 및 지침의 안내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여 학교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하여 학교 나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모형 및 지침 등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 및 수업 편성·운영 모형은 교사의 교과 지도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고려하여 <표 III-2-1>과 <표 III-2-2>와 같이 단순하면서 보다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경우 가장 커다란 오해는 모든 평가 결과를 서술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성과 및 행동결과를 서술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사 담당 지도 학생이 많게는 300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성·과정평가는 척도 등을 기반으로 ‘성장참조·학습발달기록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실시 학기를 일원화 또는 이원화를 도모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한 학기를 어느 학기로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연구학교를 통해 학기를 다양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학기를 국가 또는 시·도 수준에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경우 1학년 2학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전학에 따른 학습결손 및 자유학기의 2중 이수 가능성, 교사의 학교 이동 등을 감안하여, 학기를 ‘1학년 2학기’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 단위로 체험장 확보 및 관련 법률 정비와 함께 예산 지원 및 안전보험에 대한 별도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체험장 확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는 체험장 확보가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가장 커다란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교 나름대로 체험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학교 노력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의 체험장을 확보·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확보한 체험장과 시·도 교육청이 확보한 체험장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체험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6년부터 산술적으로 매년 60만명 정도의 중학생이 학교 밖의 크고 작은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가칭]‘자유학기 운영 안전보험’을 신설하여 안전사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보급을 위해 ‘전환 학년’ 개념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 교육적 가치를 확대·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교육적 가치의 확대·보급은 [가칭]‘전환 학년’ 개념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4/4분기에 ‘전환 학년’ 개념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학생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은 수학과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과를 교과 전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1호 일부 개정.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보도자료(2013. 5. 28).
- 교육부(2014).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확대에 따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도 교육지원청 선정·운영. 보도자료(2014.2.21.).
- 교육부(201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9호(2014.1.16. 일부개정).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간추린 교육통계. 통계자료 SM 2013-06-01.
- 안재연(2014). 사북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워크숍. 연구자료 ORM 2014-57. 21-46.
- 이혜영·손홍숙·김일혁·김미숙(2012).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05.
- 정영근·이명준·김진숙·이근호·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간보고서(미간행).
- 정영근·이명준·김진숙·이근호(2013).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KICE 이슈페이퍼. 연구자료 CRM 2014-27-1.
- 정호경(2013).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탐색을 위한 사례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를 위한 평가방안 탐색. 제3차 자유학기제 포럼. 37-70.
- 지은림(2013). 자유학기제를 위한 평가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를 위한 평가방안 탐색. 제3차 자유학기제 포럼(2014.2.10.). 연구자료 CRM 2014-09-1. 3-36.
- 황유진(2014). 연희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워크숍. 연구자료 ORM 2014-57. 47-80.
- 중학교(2014). 우리는 자유학기제로 미래를 만든다.
- Dinham, D. & Rowe, K.(2008). *Fantasy, Fashion and Fact : Middle Schools, Middle Schooling and Student Achievement*. ACEReSearch.
- OECD(2011). *Review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Improving Lower Secondary Schools in Norway*.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홍 원 표 (연세대학교)

- 정영근·김진숙·이근호·옥현진 박사님의 귀중한 발표 원고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네 분이 이 연구에서 2013, 2014년에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들로부터 수집된 교육과정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자유학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 자유학기는 명칭 상으로는 어느 하나의 학기에 국한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분의 연구는 앞으로 자유학기를 어떤 식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담아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방향에서는 공감하지만, 토론자로서 몇 가지 사안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다소 지엽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누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는지 좀 더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향후 개선 방안을 다루는 부분부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의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다소 혼란스러운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용어상의 혼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학기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용어상의 혼란과 기존 교육과정과의 중복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황규호 외, 2013) 연구진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은 무엇인지, 또 자율과정 내에서도 ‘선택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의 구분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율과정’의 예시로 제시된 활동들의 상당수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동안의 활동들이 교과

/창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제3의 실체인지, 아니면 교과/창체로 녹아들 수 있는지, 후자라면 자유학기의 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연구진의 논의에서도 용어상의 모호함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본문 중에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은...자율과정으로 표현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시수의 합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든가 “교과 감축시간 활용 방식은...자율과정(창체)의 다른 영역에 더하여 자율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24개교(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당 교과 연계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22개교, 44.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들에서는 자율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어 기록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선택 프로그램은 자율과정의 일부인 듯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등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용어상의 혼란은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진이 제안하고 계신 “효율적 교과 지도 고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이라든가 “학생의 체험활동 배려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통학습 중점 교과 활동”이라는 표현이 낯설 뿐 아니라,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들과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를 교육과정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 가운데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재구조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창체로 포함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융합·연계 교과 활동”으로 바꾸고, 기존의 창체 하위 영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잘 못 던져진 돌멩이’ 때문에 창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융합·연계 교과 활동”이라는 명칭의 활동이 창체의 성격과 부합하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창체 활동의 일부는 이미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무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학생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사실 저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구성은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자-동-봉-진의 구획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범교과학습 관련 활동들이 자율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교과 학습활동을 공식적인 영역으로 포함

시킨다거나 봉사활동을 없애는 것 등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소해야 할 범교과학습 관련 활동이 오히려 범람하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가지 영역으로 제안했을 경우, 영역 구분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와의 의논을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유학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습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구진이 잘 지적하고 계시듯이, 중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수준이 너무 어렵다면 자유학기는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교과 진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이전 학기나 이후 학기로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면 주5일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내용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팀(2014)은 중학교 교과별 수업 시수를 20% 증감하도록 허용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학습 내용은 20% 감축된 시수를 기준으로 개발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정도의 학습 내용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활동, 범교과적 통합 수업, 학습 부진 학생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나름의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교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학교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방안일 뿐, 어떤 식으로 중학교 학습 부담을 축소 시킴으로써 자유학기의 정착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 갈지는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다시 한 번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쪼록 자유학기제가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 고 문 헌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연구팀(2014).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6월 30일 서울대학교.
 황규호·김경자·소경희·홍원표·온정덕(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및 방안에 대한 토론

황 유 진 (연희중학교)

2013년 10월, 연희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직원 워크숍 시간! “자유학기제에서 자유란 무엇인가?”의 주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과연 우리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율과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로 가득 찼던 액션러닝 시간과 자유학기제를 먼저 실시한 학교 교사의 생생한 이야기 듣기,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 자율과정 편성을 위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며 “학교”는 성장해감을 느낄 수 있었다.

2014년 2월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들고 찾아오는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수요조사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 이용, 조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한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 역량의 신장”을 주제로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다양한 교과연계 체험학습, 17개(n+7)개의 교과연계 선택프로그램, 15개(n+5)의 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3회에 걸친 진로직업체험 활동,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함께했던 성장 기록지 활용 평가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제언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진로와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자유학기제』란 다양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고, 수업 방법을 참여와 체험, 활동 중심으로 바꾸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내 자녀가 상대적으로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에 대한 “엄마 마음 보듬어주기”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학생 배움 중심으로의 수업 방법 전개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 이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때 더 효과가 높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유학기제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은 학교의 시설과 구성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교육활동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으로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통한 유연한 수업 시수의 증감과 교과와 자율과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운영으로 해당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형 구안·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교과와 학생의 특성, 학교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나의 주제를 “따로 또 같이”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자율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덕 교과와 자율과정의 행복수업과의 연관성, 기술가정-도덕-진로와 직업 교과 속의 내용의 중복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제와 목표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과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와 체험, 활동 중심의 수업 전개와 함께 학생 스스로 구성한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과정 속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과 내에서 학생의 성장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학생 성장 기록지 등에 반영·작성할 수 있는 Neis 내의 메뉴 개발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서술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 관련 연수와 자료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본교에서는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제시된다면 과정중심의 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감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기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많은 지역사회 연계 기관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시기와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서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하기가 어려웠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기관이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학교는 급하게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사회 기관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내실 있는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미래 핵심 역량의 신장”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창의·인성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많은 영향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요구된다.

